

시로 읽는 성보순례
목조삼존불감
국보 제42호 목조삼존불감
통일시라시대 ▶2면

현대불교

짊어진 삶의 무게를 받아들여라.
이를 참고 견디며 살다보면
언젠가는 기쁜 일이 생긴다.
〈숫타니파타〉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 4월 2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892호 2012년 6월 13일 수요일

"수행은 승가, 운영은 재가"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 7일 종단 1차 쇄신계획 발표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6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제1차 쇄신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문에는 사부대중 공의를 통한 종단 · 사찰 운영, 선거제도 개선, 승단 청정성 회복 등의 내용을 담았다.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사부대중 공의를 통해 종단과 사찰을 운영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선을 통한 산중공의 복원과 선거 공영제를 실시해 공명선거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현대 청규 제정과 시행해 승단 청정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도박 파문 등으로 실추된 종단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조계종 쇄신안이 발표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6월 7일 총무원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계종 제1차 쇄신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담화문을 통해 "지난 수십년 간 사찰과 종단운영과정에서 빚어진 갈등과 부조리는 사찰과 종단 운영 시스템이 시대의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한 데서 빚어진 문제"라며 "최근에 불거진 종단 일각의 불미스러운 일도 전 근대적인 사찰운영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본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번 쇄신안에 대해 스님은 "이제는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혁신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판단에 도달했다"며 "이러한 누적된 잘못된 관행과 습관을 자성하면서 취약점을 전면 쇄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쇄신안은 크게 '재정, 선거, 청정성 확보'로 압축됐다. 재정 관련 쇄신계획은 5가지에 이를 만큼 그 비중이 컸다. 그간 여러 단체들에서 주장한 '운영은 재가자가, 스님은 수행과 교화'에 대한 의견은 사찰예산회계법을 통해 구현하기로 했으며, 사찰 모든 운영 수입에는 영

카드 사용 등 재정 투명화 추진
참회원 설치 등 승풍 개혁

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사찰에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토록 해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재 관람료 전자발권 시스템 설치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사문화돼 있는 '사찰운영위원회법'을 전면 개정에 기존 협의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강화해 사부대중이 공히 참여할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직할교구 사찰, 교구본사, 특별분담금 사찰, 문화재구역입장료 사찰에 대한 재정 공개를 시행하고 그 평가를 주지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런 사찰 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 종무원 양성도 제안됐다. 종무행정학교를 하반기에 시범 설치하고 2013년에는 정식 개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중앙종무기관과 직영, 직할교구 사찰 종무원

재가 참여 사찰운영위 구성
자승스님 "바라이죄 안 지었다"

간 인사 순환제도도 추진된다.

선거 제도 개정도 쇄신안의 주요 내용에 포함됐다. 특히 선거에서 사용되는 모든 경비를 총무원과 교구가 부담해 후보자간 선거운동 기회를 함께 주는 선거 공영제 도입을 시급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총무원장 선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직선제를 포함한 모든 방식을 종도들의 의견수렴 통해 제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승단의 청정성을 위해 △현대적 청규 제정 △승풍 실추에 대한 '징계법' 제정 및 최저양형제 도입 △참회원 설치 등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승 스님은 자신을 중심으로 루머와 의혹들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입장을 내놨다.

자승 스님은 "한국불교의 그간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나름대로 지난 해부터 자성과 쇄신결사를 추진하고 있는 도중 이런 불미스런 일이 생겼다. 그간 해명을 하지 않은 것은 의혹들이 대부분 일방적인 주장들이고, 종단 종무행정 수장으로서 언행을 함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간 입장을 밝혔다.

스님은 이어 "종단 책임자로서 10년 전 일어난 부적절한 일은 종단의 종헌, 종법의 절차를 거쳐 규명하고 처리하겠다"며 "하지만 제기된 의혹 중 바리이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종단협·조계사, 조계종 쇄신계획 지지

각각 성명서 발표… "함께 노력할 것"

조계종이 발표한 1차 쇄신계획에 대해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라 종단협) 소속 각 종단과 조계사 신도회가 지지를 표명했다.

종단협 소속 종단은 6월 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조계종 쇄신안에 담긴 재정 투명화와 청정승단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결실을 맺길 기원한다"며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승가의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많은 격려를 부탁한다"고 국민과 불자들에게 당부했다.

조계사 신도회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지입장을 확인했다. 조계사 신도회는 성명서에서 "승단 청정성 회복, 사부대중공동체 확립, 종단운영시스템 개선, 선거제도 개선 등으로 분류된 쇄신안에서 집행부의 개혁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고 지지를 표명하며 "사부대중과 함께 쇄신안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물러섬 없는 정진과 쇄신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잘못 시정 않고 종교갈등 여론 몰이?

사랑의 교회 신축 문제 불교-기독교 갈등 조장 우려

서초구가 서울시 '사랑의 교회' 예배당 신축 공사 중단에 대해 6월 2일 '도로점용허가는 적법하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이 "종교간 갈등으로 번질 양상"이라며 우려를 표함에 따라 '사랑의 교회 공사 중단'은 당분간 난항이 예상된다.

서초구는 "교회 측이 도로폭을 8m에서 12m로 확장해 기부체납했을 뿐 아니라 통행이나 지하매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만큼 도로점용허가는 적법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사랑의 교회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서초구에 요구하며 도로점용허가는 공익 · 공공 시설에 한한 것으로 교회시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결과를 서초구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초구의회 조사특위 구성을 추진했던 황일근 의원은 사랑의 교회 측이 이를 종교간 갈등으로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황 의원은 "제보에 의하면 교회 측에서 이 문제를 종교간



사랑의 교회 신축 공사 현장

서초구, 서울시 감사결과 부정
사랑의 교회 공사 계속 진행

갈등으로 포장해 여론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법령 위반에 관한 문제이지 종교간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황 의원은 "이 사건은 교회가 공공시설을 점령한 것에 대해 합법 여부를 가리고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함"이라며 "종교 갈등을 빗대 문제의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사랑의 교회는 추후 법적 절차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10년 6월 서초구가 사랑의 교회에 서초역 3 · 4번 출입구와 연결된 지하 1~8층 깊이, 길이 154m에 달하는 도로 지하공간 사용을 허가해주면서 시작됐다. 서초구는 사랑의 교회가 요구한 공간이 도로법상 지하실에 해당한다며 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교회 예배당과 주차장 공간을 도로법상 지하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서초구가 도로를 내주는 대신 교회 신축건물 내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조건이 수반된 기부는 위법'이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서초역 3 · 4번 출입구를 사랑의 교회 부지 안으로 이전하는 것과, 건물 고도제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는 공공시설이 아닌 교회의 위법한 도로점용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초구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고령자 · 장애인 출가의 길 열리나

조계종교육원, 오는 14일 출가제도 공청회서 논의

고령자와 장애인 출가에 대한 종단적 논의가 이뤄진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승진위)는 오는 6월 14일 오후 3시 국제회의장에서 '출가제도 개선과 출가자 활성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특수 출가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교육원 교육국장 가섭 스님은 승진위가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고령자, 장애인 출가의 필요성과 방안을 역설했다.

가섭 스님은 "고령화 사회의 영향으로 출가자의 수가 감소되고 있다"며 "10년이 지나면 승단의 출가자는 절반으로 줄고, 연령도 40대가 40%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사회에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연령 제한을 완화해야 하며, 현행 제도로 어렵다면 '고령자 특수 출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가섭 스님의 주장이다.

장애인 특수 출가의 경우는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들에게 불교의 가치를 실현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

가섭 스님은 "현대사회에서 장애인과 질환자 차별은 인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장애인 출가를 통해 불교가 긍정적 이미지로 비춰질 수 있다"며 "불교 내 장애인 불자를 위해 전법 포교 전문인력 확보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출가제도 개선과 출가자 활성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는 동국대 교수 보광스님이 '현행 출가제도의 문제와 개선 방향' 기조발제를, 동화사 주지 성문스님이 '출가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안과 방향' 등의 발제를 진행하며 마곡사 주지 원혜스님, 행복한 절 주지 은산스님이 토론자로 나선다.

신중일 기자

892호 INDEX

종합 2
불기2556년 하안거 결제
조계종 종책모임 잇달아 해체

종단 3
조계종 1차 쇄신 계획 과제
한마음선원 논산법당 기금 2억원
불교계 불법사찰 논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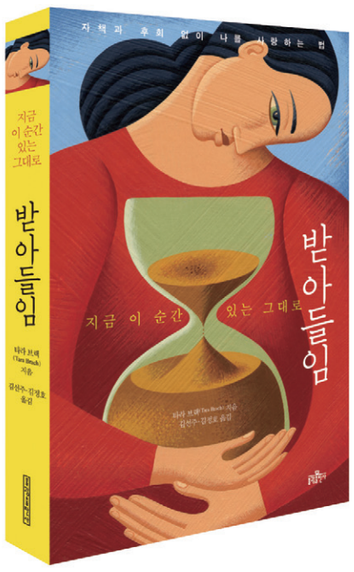
시방세계 5
경허 100주년 국제선수행 법회



열린마당 31
박원순 시장 '탈핵' 주제 좌담회



내가 싫어 나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행복은 나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교보문고 예스24 심리학 베스트셀러 1위

타라 브랙 지음
김선주·김정호 옮김
19,800원

혜민 스님이 추천한 심리치유의 바이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아마존닷컴 심리치유 분야 8년 연속 베스트셀러 Radical Acceptance 한국어판!

- 고통스러운 감정에 빠져서 끌려다니거나, 그 고통스러운 감정과 싸우느라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그저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안아주세요. 조금 슬퍼도 괜찮아,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자신을 사랑하면 세상도 당신을 사랑하기 시작할 거예요. - 혜민 스님
- 이 책은 우리에게 고통과 두려움과 갈망을 끌어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산뜻한 기분과 굳센 마음으로 관용과 사랑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 탁낫한 스님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꼭 내 얘기를 하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 독자 서평

불광출판사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 / bulkwang

생각이 사라진 신기한 마음속 평화공간
헤드스페이스

영국 국가 공인 명상 컨설턴트가
들려주는 초간편 생각 정리법



2011·2012년 영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세계적인 지식 콘퍼런스, TED 인기 강사!

영국 국회의원, 프리미어 리그 축구 선수는
물론 구글과 노무라증권 같은
기업을 대상으로 명상을 지도하는
앤디 퍼디컴의 '하루 10분 명상법'을 통해
세탁기처럼 요란한 마음을 잠재우는
비법을 배워 보자!

앤디 퍼디컴 지음
윤상운 옮김
312민 | 15,000원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제42호 목조삼존불감



목조삼존불감

정 양

콩알 한 줌에 부처님 말씀을
죄다 새긴다더니
신음소리로나 만나는 그런 솜씨가
그런 고통 그런 그리움 그런 세월이
송광사 목조삼존불감
이렇게 한 줌으로 빚어졌구나

머리맡에 부뚜막에 발자락에
언제 어디서나 만져보는 거리
큰 자비 큰 덕행 큰 지혜의 아슬한 높이를
숨죽인 탄성으로 가늠하는 거리

작은 게 가장 가깝고
가까운 게 가장 아프고
아픈 것들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하다고 귀띔하면서
삼존께서는 온 누리에 그 거리만큼씩
가장 작은 몸으로 다가오신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中에서

정양 시인은… 전북 김제 출생. 1968년 〈대한일보〉로 등단. 시집 〈빈집의 꿈〉, 〈나그네는 지금도〉 등.

"부처님 심인법 전해지도록 수행 매진"

불기 2556년 하안거 결제… 2천 4백여 스님 방부

불기 2556년 하안거를 맞아 조계종 등 전국 선원에서는 6월 4일 결제법회를 봉행하고 일제히 안거에 들어갔다.

조계종종정 진제 스님은 동화사에서 열린 결제 법회에서 법어를 내리고 전국 수행납자들에게 정진을 당부했다.

진제 스님은 하안거 결제 법어를 통해 "하안거 결제를 맞아 승속의 모든 수행자들은 '금생에 이 법을 만난 김에 참나를 알고 이 몸뚱이를 바꿔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 오매불망 간절히 화두와 씨름해야 한다"며 "한화잡담과 시비장단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던고?' '어떤 것이 참나던고?' 하고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하고 또 의심해나가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국 방문 일화를 소개한 진제 스님은 "선종의 본산국인 중국에는 공산화 60년 동안에 선법(禪法)이 없어짐으로 인해 더 이상 안목자(眼目者)가 없게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웠다"며 "우리 모든 사부대중은, 한 가닥 밝은 부처님의 심인법(心印法)이 단절되지 않고 천추만대에 면면히 이어지도록 바르게 참선법을 익혀 정진에 정진을 더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설했다.

법어 말미에는 "오늘 작금의 종단 사태에 대해 한 마디 덧붙이고자 하니 모든 사부대중은 유념해달라"며 "사태 수습은 사부대중이 다 같이 지혜를 모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화합하고 수행정진해 불조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도 하안거 법어를 통해 "불교의 수행은 모든 악을 금하고, 착한 일을 행하여 선근을 쌓으며, 그 마음을

방장 · 조실 스님 법어 내려

수행납자 용맹정진 당부

청정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와 같이 불교는 먼 곳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마음에 보리와 번뇌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고 수행자들의 용맹정진을 당부했다.

혜초 스님은 수행자들에게 "이번 안거동안 능엄경의 '어찌하여 도둑놈이 나의 법의를 빌려 입고, 부처를 팔아 각종 업만 짓는가?'를 회광반조하라"며 "선지식을 뵙고, 더욱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요한 호흡 속에서 오매불망 정신을 집중하여 최상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동화사서 열린 결제법회에서 하안거를 맞는 대중에게 정진을 당부하는 법어를 내리고있다.

각 총림에서도 결제법회를 봉행하고 정진에 들어갔다.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은 결제 법어를 통해 "결제란 중생의 불성을 드러내는 일"이라며 "용상의 덕은 수행이라는 긴 고통을 참아내야 하고 사자좌는 욕락을 버려야 기약할 수 있다는 옛 선지식의 고구정녕한 말씀을 명심하라"고 설했다.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은 4일 결제 법회에서 "모두들 자성과 쇄신을 부르짖고 있지만 행이 따르지 않고 말만 내세우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수행자의 분상에서는 그런 허례허식은 필요치 않고 다만 굳은 의지로 정진해 나가는 것만을 진실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도 하안거 결제 법어를 통해 "참선에는 말이 필요없다. 달리는 자동차 같이 가라. 화두에 달라붙어 절대 놓쳐서는 안된다. 그렇게 달리다 보면 헐덕거리는 마음도 쉬어지고 적멸보궁에 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에서는 매년 전국 100여개 선원에서 2400여 명의 수좌스님들이 방부를 들여 수행에 매진하고 있다.

신중일 기자 · 이재진 부산지사장

인문학부터 답사까지…스님 연수교육 '다채'

조계종 교육원 하반기 연수교육 7월 23일 시작

남산 답사 등 13개 강좌 신설

조계종 종단 스님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교육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꾸며진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오는 7월 23일 각묵 스님의 '초기불교의 정수'를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한반기 연수교육을 진행한다"고 6월 5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연수 교육은 선전, 삼장, 인문 · 사회 · 문화, 사찰운영, 전법향상 등 5개 과정, 25개 강좌로 운영된다.

이번 하반기 연수에는 원로의원 고우 스님의 '성철스님의 백일법문'과 학담 스님의 '천태기관의 임제가풍'을 비롯한 불교 강독부터 이희봉 교수의 '현대건축 이야기', 김종욱 교수의 '서양사상의 흐름', 조용헌 교수의 '동양문화의 이해' 등 13개 강좌가 새롭게 신설된다.

특히 인문 · 사회 · 문화 강좌들은 스님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현장 교육을 확대를 위한 '경주남산 불적답사', '전통건축의 이해와 실습' 등의 강좌도 진행될 계획이다.

스님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과정은 지역사회복지(40개), 장애인복지(21개), 노인복지(40개), 아동 · 청소년복지(48개), 재난구호(1개)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했으며,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소속 150개 전국 산하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높였다.

하반기 연수 교육 대상은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종단 스님과 종단 등록 사찰 주지 스님이며, 3, 2, 1급 승가고시 응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신청은 조계종 연수사이트(http://monkedu.buddhism.or.kr)와 교육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종책모임 무량, 화엄, 법화회 해체

잔여회비 '…동행'에 전액 기부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무량회, 화엄회와 법화회가 5월 30일과 6월 5일 각각 회의를 갖고 해체를 선언했다. 이제 중앙종회 내 종책모임은 보림회 하나만 남았다.

해체 이유에 대해 무량회 관계자는 "종회 종책모임이 이익단체로 변모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해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책 모임에는 비판과 견제 등의 순기능도 존재한다. 현재 순기능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겨 아쉽다"고 말했다.

화엄회와 법화회는 잔여 회비 2천만원과 1천만원을 소외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 기금, 승려노후복지 기금으로 아름다운동행에 전달했다. 이에 앞서 무량회도 남은 회비를 전부 동행에 기부했다.

신중일 기자

자성과쇄신결사 홍보책 발간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가 〈평화와 행복을 찾아 붓다의 길을 따라〉라는 제목의 홍보용 책자가 최근 제작, 배포했다.

포켓형 홍보책자는 △돌아봅시다(자성) △붓다의 아들로 거듭납시다(쇄신) △사부대중이 함께 대중공사를 실천합시다(결사) △결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등 4단락으로 구성됐다.

한편 결사추진본부가 발간한 소책자는 전국 사찰과 신행단체에 배포된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산화하신……

㊗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들을 위한 합동 위령제 ㊘

귀의 삼보 하옵고
금번 한국불교 종단 총연합 진흥회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국선열 및 전몰 군경등
호국 영령들을 위한 합동 위령제를 靈山堂. 一空 大和尙을 대법주로 모시고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 불교 교단 대덕 큰 스님들과 일반 불자 등 사부 대중 여러분을 초청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께서 동참 하시어 법석을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2012년 6월 13일 (오전10시~ 오후1시)
| 장 소: 서울 동작동 국립 현충원
| 식 순
제1부 : 현충탑 참배 - (오전10시~10:30분)
군악대, 의장대 동참
제2부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합동 위령제
집전 - 국제혜능불교대학 회원 외 15명 (오전11시~오후1시)

| 주 최: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 총연합 진흥회
| 주 관: 2012(임진년)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 합동 위령제 봉행위원회
| 후 원: BTN TV 방송국. BBS 불교 방송. 현대불교신문
자유 수호 참전 동지회. 전국 의용소방 연합회.
세계 불교 지도자 연맹. 세계 예술 교류 협회.
월남 참전 자유 동지회. 한국 민속 예술 연구원
| 연락처: 02) 857-2250. 010-2718-0963. 011-285-6800
※ 참석자 전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 종단 총연합 진흥회 이사장 영산당 일공 합장
회 장 석연화

청정 승가 기대… 문제는 '실천'

조계종 1차 쇄신계획 의미와 과제

"물러섬 없는 쇄신으로 사부대중 공의의 종단 운영 초석을 놓겠다. 반드시 쇄신하겠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6월 7일 내놓은 쇄신계획안을 살펴보면 지난 5월 한국불교를 뒤흔든 도박 파문과 승풍실추로 인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모든 방안으로 채워졌다.

이번 쇄신계획의 골자는 크게 △재정 투명화 △공명선거 실현 △승단 청정성 회복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방만해진 한국불교 재정에 대한 세간의 지적을 의식한 듯 시스템 바꾸기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 흔적이 역력하다.

우선 '사찰예산회계법'이 눈에 띈다. 스님은 수행과 교화·관리만 하고, 재가자가 사찰 운영과 신행을 담당하는 합리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사찰 재정을 전문 종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재정공개 실적을 주지 인사고과 때 적극 반영, 스님들은 오직 수행과 포교에만 전념하게 하겠다는 의지다.

여기에 회계전문가 감사, 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지출 예산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까지 권장키로 했다. 또한 △전문종무원 양성 △사찰재정 공개 △사찰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까지 포함돼 있다.

무엇보다 무게를 둔 건 '사찰재정의 투명성 강화'다. 이는 대형 사찰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금권, 부정 선거 등과 관련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승려가 사찰 재정에서 손을 떼겠다는 건 진일보한 신선한 쇄신책이라고 볼 수 있다.

외부 회계 전문가의 감사를 받은 후 그 결과를 승려와 민간인이 함께 참여하는 사찰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찰의 수입·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주지가 절 수입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돈 선거 논란, 주지 자리를 둘러싼 다툼의 소지를 줄여보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사찰 재정 공개가 전면 시행되지는 않는다. 일단 올해는 직영사찰과 일부 직할교구 사찰이 대상이다. 서울의 조계사·봉은사·약사사, 대구의 선본사, 강화도의 보문사 등 5개 직영사찰과 서울·수

재정·선거·청정성에 주안점
직영 및 일부 직할 사찰 재정 공개
야단법석서 '실천의지' 강조
종법 제개정 종회 협조 관건

도권에 있는 직할교구 17개 사찰의 살림을 공개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교구 본사와 특별분담금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 등으로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선거의 모든 비용을 종단과 해당 본사가 지출해 후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주는 선거공용제 도입과 불교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명선거추진위원단'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번 쇄신 계획에 대해 불교계는 전반적으로 말을 아꼈지만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분위기다. 불교사회정책연구소장 법응 스님은 "재정 투명화, 직선제 논의 등 일련의 계획은 고무적"이라며 "다만 사찰운영과 율장에는 아직 필요한 연구들이 많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불교시민사회 등 제도권 바깥에 있는 단체들의 의견들 대부분을 종단이 안으로 받아들인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조계종 1차 쇄신계획의 성패는 종단 사부대중의 '실천'이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이 6월 5, 6, 7일 세 차례 연속으로 개최한 야단법석에서 쏟아진 이야기들을 보면 알 수 있다.

3일 내내 야단법석에 참가한 봉은사 평담 거사는 "제도가 없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다. 모두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은해사 인근 불자는 "이런 계획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본말사 주지나 기존 기득권 세력이 쉽게 동참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주영 불교여성개발원 사무국장은 "쇄신계획은 오늘 같은 대중공사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이라며 "사찰, 단체, 불교 모임에서 이를 깊이 논의하고 살을 붙여나가 공의를 모으면 쇄신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쇄신으로 가는 길목 중 첫 번째 고개는 오는 6월 21일 열리는 중앙종회 임시회다. 이날 종회에서는 '사찰예산회계법', '사찰운영위원회' 등 쇄신계획과 관련한 법안들이 대거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중앙종회의 결정이 쇄신의 1차 성패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6월 7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종헌 종법의 관여되는 쇄신계획들은 종회의원이 논의에 걸맞은 종헌 종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제 공은 조계종 중앙종회로 넘어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자성과쇄신결사추진본부가 3일간 주최한 야단법석에서 한 스님이 종단 쇄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이들은 종단이 쇄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쇄신 계획에 대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대행 스님 부의금' 군포교 위해 기탁

안양 한마음선원 논산 법당 기금 2억원 쾌척

5월 22일 원적에 든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의 자비 원력을 잇기 위해 문도들이 군불교 기금 2억 원을 쾌척했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주지 혜원)은 6월 5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4층 총무원장 접견실에서 조계종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논산 군법당 건립 기금 2억 원을 지정 기탁했다.

이날 기금은 故대행 스님의 장례기간 동안 접수된 조문비로, 문도들은 이를 청년 포교의 황금어장인 군불교 진흥을 위해 기부한 것이다.

기금 전달 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대행 스님이 입적해 상심이 크신 데도 종단 불사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며 "군불교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은 "한마음선원의 기금으로 부족했던 불사 기금이 많이 충당됐다. 선원 대중께 모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열심히 포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주지 혜원 스님은 "많은 도움이 됐다니 대행 스님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금 전달식에서는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혜일, 한마음선원 재단 부이사장 혜수 스님 등이 함께 자리했다.

글=신중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은 6월 5일 논산 군법당 건립기금 2억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금은 故대행 스님 부의금을 모아 문도들이 마련한 것이다. 왼쪽부터 원로회의 부의장 밀운 ·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 총무원장 자승 ·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 · 한마음선원재단 부이사장 혜수 스님.

불교계 불법 사찰 논란 확산

조계종, 대불청 등 사찰 진상 촉구

불교계 민간 불법 사찰 정황이 사실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 대한불교청년회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6월 5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최근 불거진 불교계 불법 사찰에 대해 정부가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대변인 능도 스님(기획실장)은 논평을 통해 "서울신문이 검찰 수사결과를 확인해 불교계를 중심으로 이뤄진 불법 사찰의 일단을 밝혔다"며 "불법 사찰의 대상에는 얼마 전 입적하신 전 종무원장 가산당 지관 대종사도 있었다. 정권 초기 종교편향에 대한 강력 항의한 데대해 불법 사찰을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정부가 직접 불법 사찰과 정치공작에 대해 그 실상을 공개하고 불교인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우식)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최경환)은 6월 5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는 불교계 사찰을 자행해 온 책임을 지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대불청·대불련은 "최근 불교계의 불미스런 사건을 계기로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며 "현 정부가 불교계를 길들이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중일 · 이은정 기자



'참회' 대장정 회향 부산과 경남지역 범종단 스님들의 수행결사공동체인 무심회(회장 법장)는 28일간 진행한 참회의 국토순례대장정을 6월 5일 조계사에서 회향했다. 조계사 일주문을 지나 조계사 대웅전으로 향하는 무심회 스님들에게는 불자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부산 시민광장에서 입재식을 봉행한 5월 9일부터 이날 순례까지 28일간 스님들이 걸은 거리는 720km에 달했다. 스님들은 부산을 출발해 서울 조계사까지 험난한 길을 두발로 직접 걸었다. 글= 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전법단, 해외사찰 지원 나서

7일 전체회의… 단장 계성 스님 직접 미주 순례

조계종 전법단(단장 계성)이 국내를 비롯한 국제포교 활성화에 주력할 전망이다. 전법단은 6월 7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전법단 대표 회의를 갖고 '전법단의 비전과 전략을 위한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전법단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포교강화와 더불어 국제포교전법을 위한 미주지역 전법순회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미주지역 전법순회는 해외교구 및 미주지역 사찰의 포교활성화 를 목표로 전법단장 계성 스님이 직접 순회에 나선다.

계성 스님은 "미국에 크고 작은 사찰이 130여 곳이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력 문제인 것으로 안다. 법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황이 어떤지 직접 확인 후, 종단과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어를 잘하는 스님을 추천받아 3~6개월 마다 파견할 계획"이라며 "미국 전법순회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유럽포교활동도 계획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계성 스님은 ▷6월 17일 미국 뉴욕 원각사 24일 보스턴 문수사 ▷7월 1일 뉴욕 불광선원, 7월 8일 필라델피아 관음사, 7월 15일 뉴욕 원각사 ▷8월 5일 LA 정혜사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바로 잡습니다〉

6월 6일자 891호 1면 대행스님 영결·다비식 기사 제목 중 전국비구회장 엄수를 **'전국비구니회장 엄수'**로 바로잡습니다.

5월 30일자 890호 23면 사부대중 칼럼 필진 혜만 스님의 직함을 前 조계종 호법국장에서 **前 조계종 조사국장**으로 바로잡습니다.

불기 2556(2012)년 하반기 연수교육 안내

불기2556(2012)년 연수교육이 5월말 현재 1,700여 명의 스님들이 수료하면서 원만히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늘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종단 스님들의 수행과 전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급, 2급, 1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스님들께서는 본 연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말사 주지스님들께서는 매년 개설된 강좌 중 1개 강좌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하반기 연수교육 강좌는 스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였으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강좌와 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교육대상
① 구족계를 수지한 모든 스님
② 2012년 현재 종단 등록사찰 주지스님
③ 승납 30년 이상인 스님은 연수교육 의무대상자가 아니지만, 희망에 따라 필요한 강좌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간 및 시간
① 일 반 연 수 과 정 : 2박 3일, 12시간 이상
② 사찰경영지도자과정 : 4박 5일, 25시간 이상

■ 교육장소
① 태화산전통불교문화원 (충남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604)
② 기타 교육원에서 지정한 교육장소 (경주, 부여 등)

■ 접 수
① 교육신청은 조계종 연수사이트(http://monkedu.buddhism.or.kr)에 접속하시면 가장 빠르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홈페이지의 '연수교육신청' 코너를 클릭하거나, 위 연수사이트 주소로 직접 접속하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②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스님들은 교육원에 전화로 연락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③ 교육비는 강좌 일주일 전에 입금하여 주시고, 현장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교 육 비
강좌별 기간과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 승납 10년 미만으로 주지소임을 맡고 있지 않은 스님 : 5만원 감액
※ 연수교육 강좌를 2개 이상 신청하시는 스님 : 5만원 감액 (2회차 교육부터 적용)
※ 승납 10년 미만이면서 2개 이상의 교육과정을 신청하신 스님 : 10만원 감액 (2회차 교육부터 적용)

■ 교육비 납부방법 :
계좌이체 – 농협, 053-17-006226, (재)대한불교조계종
온라인 입금시 본인 속명(법명) 사용 / 예) 홍길동(광명)
※ 교육비는 반드시 온라인으로 입금해 주시고, 현장 납부는 받지 않습니다.
※ 사찰명으로 입금시에는 전화를 별도로 주셔야 납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문 의 처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국
주소) 우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연수국
전화) 02-2011-1807~8, 1810 팩스) 02-732-4926

불기 2556(2012)년 6월

대 한 불 교 조 계 종 교 육 원

2012년 하반기 연수교육과정 강좌안내

과정	강 좌 명	일 정	강 사	장 소	교육비
선전(禪典)과정	천태지관과 임제가풍	9. 22 ~ 24	학담스님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선문단련설	9. 25 ~ 27	월호스님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백일법문	10.10 ~ 12	고우스님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진심직설	10.24 ~ 26	현봉스님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삼장(三藏)과정	초기불교의 정수	7. 23 ~ 25	각묵스님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중론	8. 8 ~ 10	김성철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유가사지론(보살지를 중심으로)	9. 4 ~ 6	혜거스님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대품반야경의 세계(반야불교신행론)	9. 19 ~ 21	혜담스님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인문사회문화과정	현대건축 이야기	7. 27 ~ 29	이희봉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서양사상의 흐름 (그리스철학에서 현대철학까지)	8. 4 ~ 6	김종욱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불교와 자연과학 (물리학,천문학,뇌과학)	8. 6 ~ 8	장영록,이시우, 박문호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불교의 눈으로 본 '생명과 삶'	8. 20 ~ 22	우희종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동양문화의 이해	9. 25 ~ 27	조용헌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수행과 건강	10. 4 ~ 6	최상용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사찰운영과정	사찰경영지도자과정	9. 10 ~ 14 11. 19 ~ 23	교육원	전통불교문화원	35만원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시설 유치	9. 19 ~ 21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사찰의 모연방법과 활동	10.22 ~ 24	이명희 외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전법향상과정	경주남산불적답사	10. 5 ~ 7	신라문화원	경주남산일대	20만원
	전통건축의 이해와 실습	10.10 ~ 12	한국전통 문화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20만원
	차명상 이론과 실습	10. 11 ~ 13	지장스님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모바일 혁명과 미래지도	10. 17 ~ 19	김중태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전통지화와 불교장엄	10. 17 ~ 19	김태연	전통불교문화원	30만원
	템플스테이 운영의 실제	10.23 ~ 25	문화사업단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리더십과 코칭	11. 8 ~ 10	김종명	전통불교문화원	20만원

※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및 연수교육 인증과정 안내는 각 사찰로 배포한 연수교육 안내 책자 및 종단 연수사이트(http://monkedu.buddhism.or.kr)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 주 문



용주사 사도세자250주기 특별전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7월 6~30일 용주사 효행박물관에서 사도세자 서거 250주기 추모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파라미타 리더쉽 캠프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 정여 스님은 6월 9~10일 충남 금산 대둔수련원에서 파라미타 전국 간부학생 250여 명을 대상으로 리더쉽 캠프를 실시했다.



미술 세계 초대 기획전

동양화가 혜림 윤석임 씨(대전 보은정사 신도회장)가 '미술세계초대 기획전' 을 6월 13~18일까지 인사동 '공아트갤러리' 에서 개최한다.



힐링댄스 스터디 개강

이철진 성균 소극장 대표는 극장무대를 활용한 무용치료프로그램 '힐링댄스스터디' 를 6월 12~7월 21일까지 펼친다.

현성 스님, 호국영령위령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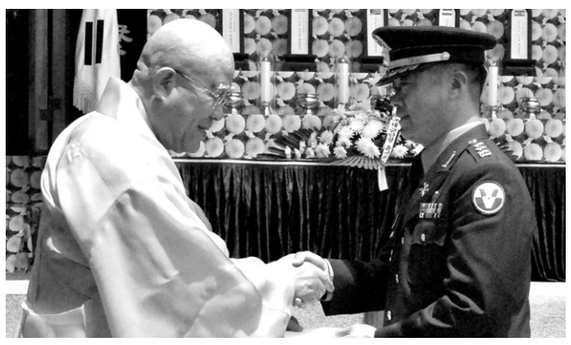
6월 6일 5군단 호국 금강사에서

"나의 존재가 이웃 · 국가 · 사회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자기 위치에서 나라를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청소년교화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은 현충일을 맞아 6월 6일 5군단 호국 금강사에서 제29회 위령대재를 봉행하고 법회를 열었다. 현성 스님은 법문에서 "스스로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발휘할 때 비로소 현실에 중첩된 난제들이 해결되고 조국의 무궁한 발전과 평화통일이 높이 성취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과 군인 등 청년불자 포교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현성 스님은 이에 앞서 5월 12일 논산 육군훈련소에 위치한 호국연무사를 찾아 수계법사로 나서 3500명 장병들을 위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신축 불사 완공 후 처음으로 열린 수계법회다.

이 밖에 스님은 5월 2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안양교도소 2300명 전 재소자에게 간식을 제공하고 200여 재소자를 위한 수계식도 봉행했다. **이나은 기자**



현성 스님이 5군단 소속 대령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있다.

김묘주 씨, 한국여성불자상 수상

6월 2일 한국여성불자연합회 시상식

김묘주 한국여성불교연합회 명예회장이 제4회 한국여성불자상을 수상했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한재숙)는 6월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지하식당 라 피아짜에서 제4회 한국여성불자상 시상식을 가졌다.

김묘주 명예회장은 한국여성불교연합회 창립을 비롯해 30여 년 동안 여성NGO 활동을 통해 여성 불자들의 사회적 진출과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 김 회장은 행복한가정상담소, 이혼예방센터 등을 개설하고 교육사업을 활발히 펼쳐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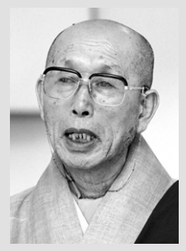
고희연을 겸한 이날 김 회장은 수상소감에서 "30년 가까이 불법 홍포와 여성 불자의 권익신장에 노력해 왔지만 아직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도 여성 불자들을 위한 다양한 포교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불교연합회는 20년 이상 포교에 정진하며 생활불교 · 대중불교에 기여한 여성 지도자를 발굴해 '한국여성불자상' 을 시상하고 있다. **이은정 기자**



한국여성불교연합회(회장 한재숙 · 사진 오른쪽)는 6월 2일 김묘주 명예회장(사진 왼쪽)에게 제4회 한국여성불자상을 수여했다.

화엄사 조실 종산 스님 추대



구례 화엄사 새 조실에 원로회의 의장 종산 스님〈사진〉이 추대됐다. 화엄사는 원로의원 명선 스님을 화엄사 문장에, 현 선원장 현산 스님을 선덕으로, 종남 스님을 새 선원장으로 각각 추대했다.

화엄사문도회 스님 30여 명은 지난 6월 2일 충북 청주 보살사에 주석중인 종산 스님을 예방하고, 지난해 9월 도천 스님 원적으로 공석이 된 화엄사 조실을 맡아 줄 것을 요청했다. 화엄사 문도들은 "종산 큰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수행정진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종산 스님은 1949년 도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화엄사 강원에서 대교과를 졸업했으며 제9대 중앙종회 법제분과위원장, 임시 의장 등을 역임했다. 또 천은사 방장선원 조실, 제5대 원로회의 수석부의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제7대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현대불교 박재완 기자 신인상 수상

〈에세이스트〉에 '산사로 가는 길' 로 등단



박재완 현대불교신문 사진부 차장이 '산사로 가는 길' 로 수필전문지 〈에세이스트〉 신인상을 수상, 수필가로 등단했다. 박 기자는 2009년부터 2012년 5월까지 '박재완 기자의 불교 사진 이야기' 를 연재해 독자들의 호응을 받은 바 있다.

당선작 '산사로 가는 길' 은 그가 산사에 다니면서 느낀 단상들을 담은 글이다. 그는 카메라를 들고도 찍을 수 없는 풍경들을 만나게 되면서 사진가로서의 자신을 생각하게 된다. 좌절과 희망을 반복하던 그는 절이 자신을 만날 수 있고 자신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공간임을 깨닫고, 자신의 종교가 그곳에 있음을 알아가기 시작한다. 결국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준 산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산사를 찾아간다는 이야기다. 세상이 받아줄 수 있는 글쓰기를 하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힌 그의 작품은 에세이스트 5,6월호에서 감상할 수 있다. **정혜숙 기자**

"민중불교 뜻 이어 나가자"

여익구 민불련 초대 의장 입적

초재 6월 10일 흑석동 달마사서



불교계 민주화 운동의 거목 여익구 민중불교연합 초대의장〈사진〉이 6월 5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별세했다. 향년 66세.

여 의장은 이날 11시 충남 서천 인근 국도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으며, 서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여 의장은 민중불교운동 1세대라고 불리며 70~80년대 불교민주화운동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10년을 구형 받고 1년간 수감생활을 했으며, 1975년 '민중불교회' 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다시 구속됐다. 이후 속세에 회의를 느껴 강원도 평창 월정사에서 탄허스님을 인사로 5년 간 출가하기도 했다.

70년대 뜻 있는 몇몇 불자 청년들이 던진 조그마한 불씨인 '민중불교운동' 은 80년대에 들어서면 들불처럼 번져 1987년 6월 항쟁에서는 가장 주도적인 역할하기도 했다. 1981년 대불련 사무총장에 취임한 여 의장은 청년불교도연맹과 법사단을 기획하는 등 사회적 역량을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나갔다.

장례는 불교사회장으로 치러졌으며 노재는 6월 8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노재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 장기표 씨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여 의장의 시신은 노재 후 대전 국립 현충원에 안치되기로 했으나 국가보안법 등의 문제로 동작구 흑석동 달마사로 유해를 옮겨 봉안식을 가졌다. 여 의장의 초재는 6월 10일 흑석동 달마사에서 봉행됐으며, 2재는 17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49재는 7월 22일 조계사에서 열린다. **정혜숙 기자**

한일 불교 100년사 연구모임 추진

진관 · 법상 스님 발기…6월 28일 한일불교교류대회서 제안

"현재 한국불교의 여러 문제점을 진단하려면 100년 전 개화기 당시부터 진행된 조선불교 전반의 흐름을 고찰해야 합니다. 근대 한일불교 100년사 연구모임을 통해 일본불교계와 공동으로 근대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근대 일제 침략이 불교계에 미친 여러 영향을 파악해 현재 불교계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도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은 6월 6일 근대 한일불교 100년사 연구모임을 발기했다.

발기인으로는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법상 스님이 참여했다.

진관 스님은 6월 5일 만난 자리에서 진관 스님은 "일본불교 잔재 청산 명목 하에 일본불교를 언급하는 것부터 금기시 되다보니 일본불교로 인한 영향의 장점과 단점을 면밀히 살펴볼 기회 자체가 없었다"며 연구모임 추진의 의미를 설명했다.



진관 스님



법상 스님

스님은 이어 "한국불교계는 마치 조선시대 억불숭유로 모든 문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개화기 이후 일본불교의 영향으로 현재의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한일불교도교류대회에서 일본불교 대표들에게 공동연구를 제안하고 일본불교계와도 근대사 연구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한국에서 바라보는 한국불교근대사에서의 일본불교의 영향과 일본에서 바라보는 한국불교 근대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함이다.

스님이 추진하는 근대 한국불교 100년사 연구모임은 △조선 개화기 이전 조선불교 발전 △조선 개화기 선불교 태동과 재가불자들의 역할 △고종 이후 조선불교 활동 △도성출입금제 해제의 역사성 △일본불교계의 조선포교당 설치 △조선총독부시대 조선불교 △미군정 시대 △이승만 시대 △박정희 시대 △현대 한국불교 연구를 진행한다.

"이번 연구모임이 향후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등에 일본불교와 근대사를 연구하는 스님, 학자들의 연구를 증진하는 모임으로 발돋움해 대학 강단에서도 근대사를 강의하는 토대가 되길 바랍니다."

진관 스님은 "한일불교의 근대사에서의 상호 영향을 조명함이 한일불교 우호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김자영 골프선수, 동국대에 기부



최근 여자 골프계의 새로운 얼굴로 떠오른 김자영 선수가 6월 4일 1000만 원을 동국대에 기부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금은 최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우리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과 두산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에서 우승상금 중 일부로 김자영 선수는 "체육교육과 학생들의 장학기금에 보태달라"고 기금전달의 의미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동국대 체육교육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자영 선수는 2010년 동국대 체육교육과에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했다.

김자영 선수는 "평소 학교 교수님들과 선후배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 응원이 큰 힘이 됐다"며 모교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하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2년 7월 9일까지

◆ 개강일시 : 2012년 7월 10일(화요일) 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1시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무선 마이크 무료보시!

지난 25년간 金文華가 제작해온 최고성능의 'DX-707 스탠드 마이크' 를 구입 해 주신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7대의 'DX-707 스탠드 마이크' 제작을 끝으로 더 이상 공급 해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오며...

DX-707 마이크 7개는 법당에 앰프설치를 새로 할 사찰 일곱 곳에만 공급합니다.

마지막 남은 7대의 'DX-707 스탠드 마이크' 를 영원히 소장, 보관하실 스님 7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법당에 새로 앰프 시설을 원하시는 스님께는 "고급 무선 마이크 + 헤드셋1세트" 를 무료 보시하겠습니다. (₩270,000원 상당)



DX-707 스탠드 마이크

1대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특징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가격 : 250,000원

□ 법당 고급 앰프시설 특별 설치 □

특별가격 : 1,620,000원(선착순 7 스님께)

구 성 :
· 스테레오앰프 300와트 1대
· CD 기기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세트
· DX-707 스탠드 마이크 1대
· v-620 핸드 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무선 핀 마이크+헤드셋 1세트 (보시)



무료 보시 무선마이크

高音質 무선마이크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왼쪽 세번째)을 선두로 선수행 대법회에 참가한 200여 스님들이 수덕사 일주문부터 천장암까지 포행하며 경허 선사의 '길 없는 길'의 발자취를 되짚고 있다.

"참자성 터지면
우주법계 다 찰 것
그것이 바로
경허 선사의 가르침"

"경허 선사 되짚음은
숭산 스님 뿌리 찾기
선사의 법맥 살펴
한국불교 중흥 이루자"

숭산의 뿌리 찾아 '길 없는 길'을 걷다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 국제선수행대법회 거행… 200여 국내외 불자 모여

Q: "하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심해야 합니까?"
- 혜월 스님

A: "누가 하심합니까. 하심하는 이는 누구입니까?"
- 국제선원 무상사 대봉 스님

Q: "참선 중 자꾸 졸음이 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 봉은사 청정심 보살

A: "아이가 아프면 잠이 오겠습니까. 동기가 확실해야 합니다. 왜 수행하는지 먼저 생각하고 앉으세요."
- 대봉 스님

Q: "깨달음 전 가르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님이 장님 이끈다는 격입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현장에서는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 비로자나 국제선원 자우 스님

A: "다른 이 보다 더 알고 있다는 거만함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가르친다는 말에 끄달릴 것이 아니라 닥친 일을 할 뿐입니다. 임제선사는 있는 그대로를 본다고 했습니다."
- 대봉 스님

Q: "삶에서 살아있는 공안을 만날 때 마다 지혜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 운문사 강원 싼치 스님

A: "질문을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너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숭산 스님은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민 될 때 차라리 동전을 던져라'"
- 대봉 스님

6월 7일 경허선사 열반 100주기 기념사업회(회장 지운, 수덕사 주지)가 덕숭산 수덕사에서 개최한 국제선수행대법회 '길 없는 길(The Pathless Path)'의 한 장면이다. 무더운 날씨에도 국내에서 수행정진 중인 외국인 납자들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국제선원 무상사 대봉 스님을 중심으로 즉문즉설로 각자의 수행을 진단했다.

한국선불교의 중흥조 경허 선사의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한 이날 국제선수행대법회에서는 경허 스님의 법을 이은 숭산 스님의 뜻을 좇아 그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유럽 관음선원 우봉 스님,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 대진 스님, 헝가리 국제 원광사 청안 스님 등 외국인 스님들은 숭산 스님으로부터 받은 법의 뿌리인 경허 스님의 가르침을 알고 또 따르기를 서원했다.

이에 앞서 행사의 첫 시작인 입재법회에서는 경허 선사 법손인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이 법문을 통해 이들을 격려했다.

"여러분의 참자성이 확 터지는 순간 그 마음이 우주법계에 꽉 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허 선사의 가르침입니다."

설정 스님은 "경허 선사가 천장산 산하에서 오도송을 읊으신 것이나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든 것이나, 달마대사가 직지인심을 외친 것이나 오로지 한 곳, 바로 각자의 참성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이라며 참나찾기를 위해 용맹정진 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숭산 스님 제자를 대표해 대봉 스님은 입재법회에서 경허 선사의 가르침을 되짚는 일은 숭산 스님의 가르침의 뿌리를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해외 많은 숭산 스님의 제자들은 경허 스님이 없었다면 한국불교 수행을 못하고 있을 것"이라며 "경허 스님의 법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가를 살펴서 선불교를 중흥 했듯 한국불교 중흥에 기여하자"고 힘주어 말했다.

행사는 입재법회에 이어 대중들의 자기소개와 대봉 스님의 법문, 즉문즉설로 이어졌다. 이날 선수행대법회에는 스님들뿐만 아니라 재가자들도 함께 했다.

향산 이재명 거사(60)는 "나를 찾으러 왔는데 오히려 잊어버릴 것 같다"며 "이 자리에 모인 스님들처럼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첫날 국내에서 떨어져 수행하다 오랜만에 동향도반을 만난 외국인 스님들은 행사가 끝난 뒤에도 삼사오오 모여 대화를 이어갔다. 둘째날인 8일에는 새벽 3시 30분 예불 후 좌선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수덕사에서 경허 선사가 깨달음을 점검한 보임처 천장암까지 포행했으며 개심사·서산마애불을 순례했다.

경허 스님이 걷던 길은 스님의 방편법처럼 때론 포장길로, 때론 흙길로 다양했다. 포행 뒤에는 세시간에 걸친 유럽 관음선원 우봉 스님, 계룡산 국제선원 무상사 주지 대진 스님의 법문과 즉문즉설이 진행됐다. 셋째날에는 정혜사와 금선대 참배가 진행됐으며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회향법문 속에 행사는 마무리 됐다.

예산 수덕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이 경허 스님 가르침을 주제로 법문하고 있다.



6월 7일 진행된 대봉 스님의 즉문즉설하는 모습



불교계에 새로운 선풍을 일으켜 세울 **혁신적인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2012 아이센스 탄생!**

보고 · 듣고 · 배우는~
첨단혁명의 간편한 **휴대용 시청각 경전학습기!**

불교대학에서 의식을 공부하시는 **주지스님, 학인스님, 행자스님, 천도재, 상단불공, 시식** 등의 의식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많으시죠?
어려운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쉽도록 인도하는 **첨단 불경 해석 학습기기!**

염불(念佛), 염송(念誦) 모음

▣ 염송경
반야심경, 천수경, 불설아미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원각경, 관세음보살보문품, 이산혜연선사 발원문, 불설약사여래본원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화엄경 약찬게, 초발심자경문, 무상계, 의상조사 법성게, 장엄염불, 부모은중경, 백팔대참회문, 대불정능엄신주, 지장보살본원경, 천지팔양신주경, 보왕삼매론

▣ 염송의범
송주편, 예경편, 불공편, 천도재 · 49재편, 시식 · 영반편, 장의편, 점안편, 이운편, 의식편, 기타편

경전학습기에는 영어 · 중국어 · 일어의 회화기능 외 여러가지 부가기능까지~

- 통역기능 : 기존 번역기와는 차별화된 120문장의 정확한 4개국어 통역기능까지
- 회화강좌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생활회화 강좌기능
- 전자사전 : 옥스퍼드, 동아프라임, 민중엣센스, 현대옥편, 수능 및 토플단어장 시중에서 25만원에 판매하는 전자사전과 동일한 컨텐츠 탑재
- 녹음기능 : 고성능 마이크가 내장된 선명한 음질의 녹음기능

신한M&B 경전학습기 사업부 (02)2061-9924~5

신청하시면 택배로 다음날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010-2950-9398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 개발 시급

사회적으로 황혼이혼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발표한 '2011 서울서베이 및 2011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부부의 이혼이 결혼 4년차 이하의 이혼보다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황혼이혼은 1991년 7.6%에서 2011년 27.7%로 꾸준히 늘어난 반면, 신혼이혼은 1991년 35.6%에서 2011년 24.7%로 줄어들었다. 이에 최근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와 복지단체에서는 부부 갈등 극복을 위한 관계 개선 프로그램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불교계는 다른 종교에 비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편집자주〉

◇불교계, 일회성 행사로만 그쳐

불교계는 부부 관련 프로그램들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그나마 한국여성불교연합회서 이혼예방센터 및 전문상담 교육을 진행해 온 것이 전부다. 불교는 템플스테이, 명상, 참선 등 대표적인 수행법이 있음에도 부부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은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불교문화사업단 홍민석 팀장은 "휴식·건강 등을 테마로 한 가족형 템플스테이들은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하지만 부부만을 위해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사찰은 현재 없다"며 "부부 템플스테이가 진행된다고 해도 일회성으로 끝날 뿐"이라고 말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지난 5월 전체 전화상담 중 가정문제 52%, 부부문제가 22%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성례 불교상담개발원 사무국장은 "2007년 8월 한 차례 부부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뤄지진 않았다"며 "부부만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보다 가정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각 사찰에서도 부부를 위한 법회보다 가족법회·어린이법회 활성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부부보다 가족,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포교활동이 신도확장에 더욱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김묘주 한국여성불교연합회 명예회장은 "부부관계개선을 위한 법회 및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사찰과 단체에서 연대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홍보효과도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어 "상담이나 법회를 진행할 지도 법사들도 증대돼야 한다. 종단 차원에서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및 발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부법회 및 포교활동 등을 통해 가정 불교를 실천 하고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법안정사 부부불자회는 1993년 창립해 20년 넘게 부부포교활동을 실시해 왔다. 매월 첫째 주 토요일마다 정기법회를 열고, 봉사활동, 바자회, 수련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윤광진 법안정사 부부불자회 회장은 "법회를 통해 또 다른 부부들을 만나고 함께 포교생활을 이어나가니 부부 사이가 더욱 돈독해 진다"고 말했다.

조계사도 3월 초 평생교육원을 수탁하고 이번 달부터 '조계사 마인드 케어 평생교육원'을 운영해 갈 계획이다. 평생교육원의 주요 프로그램에는 부부행복 캠프, 가족행복캠프, 노인행복캠프 등이 개설될 예정이다.

◇종교 상관없어…효과만 좋다면 OK!

종교계에서도 부부의 원만한 결혼생활을 돕는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원불교에서 진행중인 '행복캠프'는 일반인들의 신청이 쇄도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원불교 권도갑 교무가 진행하는 '행복캠프'는 매월 한 번씩 1박2일 코스로 진행된다.

불교, 부부법회 활용 필요 대두
원불교, '행복캠프' 큰 인기
기독교, YMCA 등 세미나 다양

'행복캠프'는 2007년 8월 문을 열어 지금까지 1700여 명이 참가했다. '배우자와의 만남' '부모와의 만남'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관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봄으로서 부부간 갈등과 원망이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 근본 원인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권도갑 교무는 "서로가 상대방이 자신에게 귀 기울여 주지 않는 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정불화의 가장 큰 원인이다. 때문에 프로그램에서는 첫 번째로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며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자신이 외롭다고 느끼는 이들이 캠프를 자주 찾는다"고 말했다.


불교계도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증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사진은 한 부부가 템플스테이에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모습이다.

기독교 단체에서도 부부개선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서울YMCA는 6월 23일, 30일에 '2012 생명을 사랑하는 신혼부부학교'를 개최해 부부대화방법등을 비롯한 서로를 이해하고 올바른 가족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지구촌가정훈련원에서는 7월 30일~8월 3일까지 중국 청도에서 제17차 해외부부세미나를 개최한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주제로 다양한 강의 및 워크샵, 축제 등이 진행된다. 또 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은 19년 전부터 국내외 820여 교회에서 가족갈등치유 세미나를 비롯한 부부행복학교를 개최해 왔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학교폭력' 명상으로 대안 찾자

청소년명상상담 지도자 워크숍 6월 16일 개최

한국명상치료학회 명상상담연구원이 청소년 명상상담 지도자 아카데미를 연다. 청소년 자살 및 자해 예방을 위한 명상상담 프로그램인 '명상상담 지도자 워크숍'은 6월 16일 서울 장충동 불광산사 3층에서 첫 수업을 진행한다. 참가 대상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교사·심리상담사·사회복지사·청소년 지도사 등의 현장전문가, 관련학과 대학원생 등이다.

팀장을 맡은 혜타 스님은 "오늘날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자살, 학교폭력, 부적응 행동, 인터넷 및 게임 중독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별다른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에 대한 지속적 자기 조절 훈련을 제공하지 못하는 현 프로그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명상적 접근을 접목한 지도자 워크숍을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한다.

청소년명상상담 아카데미는 명상적 접근을 통해 인성 함양 및 자기조절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월 1회씩 총 12회 진행되는 워크숍은 ▷청소년 자살 및 자해 예방 ▷청소년 불안 ▷어린이 ADHD ▷분노조절 ▷유아 염지관 명상 ▷청소년 DBT ▷어린이 스트레스 ▷청소년 ADHD ▷청소년 LIDA명상 ▷양극성 성격장애 ▷위기의 청소년을 위한 명상 상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혜타 스님은 "강사진은 심리상담 전문가, 임상심리사, 교수 및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기존의 심리학적 방법에 명상을 접목시켜 청소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깊은 영성과 긍정적인 자기감 형성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명상상담연구원은 이 프로그램이 템플스테이, 교직원 직무연수, 학부모 교육,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수, 전문상담인 연수프로그램 등으로 발전돼 정착할 예정이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연꽃마을, '전국효사랑마라톤대회'


6월3일 연꽃마을 마라톤 행사에서 파라밀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은 2km 건강코스에 참여했다. 사진은 각현 스님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르신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대표이사 각현)은 6월 3일 안성에서 '제5차 전국효사랑마라톤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각지에서 참가한 마라톤 동호회와 개인 마라토너, 친목을 위해 단체로 참가한 직장인들, 가족 단위로 마라톤을 즐기러 나온 시민 등 2300여 명이 함께 어우러진 큰 잔치였다.

마라톤행사는 하프(21)㎞, 10㎞, 5㎞, 2㎞ 건강걷기 코스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파라밀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이 참가하는 2㎞건강코스는 자원봉사자들 시설장과 시설직원들이 어르신들의 휠체어를 밀며 2㎞의 코스를 함께 완주해 훈훈한 감동을 자아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홍태선씨가 1시간 20분 13초의 기록으로 남자 하프코스 1위, 김미숙씨가 1시간 41분 31초로 여자 하프코스 1위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연꽃마을은 참가자 전원에게 먹거리와 경품추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축제분위기를 마련했다.

이나은 기자

BBS, 난치병어린이위해 5천만원 기부

'거룩한 만남' 통한 모연금 조계종 복지재단에 전달

BBS 불교방송은 6월 8일 사장 집무실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종선)에 난치병어린이 지원 모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모연금은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과 '거룩한 만남' 제작팀이 5월 한 달간 '거룩한 만남' 프로그램을 통해 ARS로 모연한 것이다.

사회복지재단과 5월 '제12회 국내외 난치병어린이지원 3000배 철야정진'을 공동주관한 불교방송은 "어느 때보다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는 따스한 마음과 실천이 필요한 요즘, 보다 많은 아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부처님 품안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길 바라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이날 전달받은 모금액과 서울조계사 및 전국 사찰서 동참한 현장모금액, 5월 한 달간 지속된 온라인 모금액 등을 합쳐 오는 7월경 난치병어린이에게 치료비로 전달할 계획이다.

병원법당과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은 사회복지재단은 "6월중 선정회의를 개최해 치료비 지원이 시급한 난치병 환아 30여 명을 선정하고, 생활환경 및 치료의 시급성을 고려해 치료비 및 수술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나은 기자

생명나눔, 환자 위한 음악회 열어

14일 동대 일산병원서 '한다솜 희망음악회'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6월 14일 오후 3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서 '제4회 한다솜 희망음악회'를 개최한다. 희망음악회에는 가수 이범학, 고한우, 송봉주, 세리, 국악인 송소희양이 출연하며, 남양주 광동고 댄스부(카르페디엠)와 포르테 색소폰 동호회 연주가 마련된다.

음악회에 앞서 일면 스님과 홍보대사 김병조, 김혜옥, 설수현 씨 및 병원관계자들은 떡을 나누며 병실을 위문하고 환자 치료비 특별지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밖에 부대행사로 장기기증 캠페인과 단주만들기 체험, 무료 차 나눔이 준비될 계획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이번 음악회는 아프고 힘든 사회적으로 소외된 환자와 가족들이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734-8050 이나은 기자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제9대 총무원장 경원 스님

2012년 5월 30일 제44차 임시중앙종회에서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본종 제9대 총무원장으로 경원스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제방에 아룁니다.

중앙종회의장 **법선스님** 호 계 원 장 **법성스님**
교 육 원 장 **법해스님** 포 교 원 장 **도안스님**
감 사 원 장 **석성스님** 선거관리위원장 **동청스님**
총무원부원장 **용운스님**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의 종단업무는 **재단중심체제**로 운영됨에 따라 **각사암은 주지임명장을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삼장불교대학**은 본종 종립대학으로 새로 출발예정이며, 이재복 처장님 입적후(2010년) 발급된 수료증 또는 졸업장은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총무원 :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 440-27, 엄지빌딩 3층 전화 02)991-8175, 8904 전송 02)991-8176

니체·칸트 안에 불교가 있었다

동국대 불교문화硏, 봉축세미나서 한국불교 고승사상과 서양철학 비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이 개최한 봉축 세미나에서는 서양 사상과 한국불교사상의 접합점이 모색됐다.


한자경 교수


김종욱 교수


권서용 교수


박찬국 교수

니체 칸트 화이트헤드 비트겐슈타인 등과 한국불교 고승들의 사상을 비교분석한 연구가 종합 발표돼 눈길을 끈다.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은 6월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불교와 서양철학'을 주제로 부처님오신 날 봉축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자경 이화여대 교수는 '눈이 눈을 볼 수 있는가' 주제발표에서 눈에 대한 비유를 통해 18세기 칸트의 초월적 관념론과 3~4세기 신라 원측 스님의 유식 사상을 비교했다.

한 교수는 "원측 스님과 칸트 모두 마음이 인식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과 각각의 존재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통찰했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두 사상가는 각 개체가 마음으로 인한 세계를 바라본다는 결론에도 마음이 마음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인식 여부에 있어서는 입장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칸트는 마음이 마음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고 보았다"며 "반성이 아닌 지적 직관은 인간에게 불가능하다고 여긴 신 중심의 서양사유의 특징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한 교수는 "반면 불교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그 자체에 있음을 이해하기 때문에 마음이 마음을 아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자 그 지향점"이라며 원측 스님의 입장을 들었다.

이어 발제에서 김종욱 불교문화연구원 원장도 "초월적 주관에 의한 인식으로 현상과 경험이 가능하다는 칸트뿐만 아니라 이데아의 실재를 주장하는 플라톤, 창조주의 주재를 신앙하는 기독교 모두는 이 세계가 무엇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믿는 기체용인적 현상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어 "불교에서는 현상 자체가 상호의존 하에 나타나기 때문에 '무엇'이 없어도 전개된다"며 "본체가 현상을 초월해 지배하지 않고 현상이 본체와 평등하다는 상호 귀속의 장에서 실존주의를 외친 하이데거와 지금 이 자리가 정토란 것을 외친 원효 스님은 접점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서용 부산대 교수는 '의상과 화이트헤드' 발표에서 20세기 영국철학자인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적 세계관과 의상 스님의 인드라망 세계관의 연관성을 조명했다.

권 교수는 "의상 스님의 부처와 화이트헤드의 신은 초월자 혹은 전지전능한 완전체가 아닌 점에서 접점을 보인다"며 "하지만 화이트헤드의 신은 현실적 존재 그 자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찬국 서울대 철학과 박사는 '만해 한용운과 니체' 발표에서 만해 한용운과 니체의 사상을 비교했다.

박 박사는 "만해 스님은 니체의 불교 이해에 더해 불교를 중생을 고통에서 구하고자 하는 구세주의적 종교라고 평가했다"고 강조하며 "약자가 지배당하는 책임을 강자보다는 약자 자신에게서 찾는 태도에서 두 사상가가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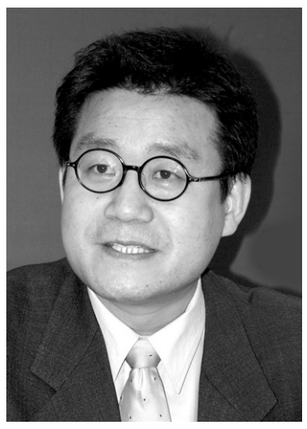
박찬국 박사는 "만해 스님은 니체와 유사하게 양육강식의 현실에서 현실적인 힘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이면에는 평등사상, 자비사상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영필 교수(대구교대)의 '지눌과 윌리엄 제임스'와 ▷홍창성 교수(미네소타주립대)의 '깨달음의 패러독스와 사적 언어논증'이 각각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사관 사부대중 중심으로 바뀌어야"

고영섭 소장, '한국불교사 기술의 몇 가지 문제들' 세미나서 주장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목판연구소장이 '한국불교사 기술의 사관과 주제'를, 김용태 동국대HK교수가 '한국불교사 기술의 주제와 쟁점'을, 황인규 동국대 교수가 '한국불교사 기술의 학통과 인물'을 각각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역사를 기록한 이들의 관점에 따라 역사는 다르게 기술되기 마련이다. 지금까지의 한국불교사 기술에 있어 문제점을 짚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 · 사진)는 6월 2일 권상로의 〈조선불교약사〉(1917), 이능화의 〈조선불교통사〉(1918)로부터 우정상의 〈한국불교사〉(1969)와 김영태의 〈한국불교사〉(1994) 등 지금까지 간행된 '한국불교사'에 나타난 '사관'과 '주체', '주제'와 '쟁점', '학통'과 '인물' 등 문제점을 집중 검토했다.

이날 고영섭 소장은 "그동안 한국불교사의 중층적이고 입체적인 시각들을 도외시한 채 학통(종파)과 인물(고승) 등의 생애와 사상 일변도로 기술해 왔다"고 지적했다.

고 소장은 "한국불교사 기술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요청이 없다보니 사가들 역시 한국불교사 기술의 방법과 문제에 대해 깊이 고뇌하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한국불교사가 대중화되지 못했고 한국사에서 주류사학으로 자리매김 되지도 못했다"고 분석했다.

고 소장은 이날 "업설 · 연기 · 중도 사관의 확고한 정립과 함께 기술 주체로 출가자 중심에서 사부대중 중심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구 이외에 비구니, 거사와 부인들의 존재감을 사료를 통해 복원하자는 시도다.

또 고승의 행적과 사상에 대한 연구로 일관해 온 기존의 연구를 확장시켜 그들의 행적과 사상이 당시 사회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 왔는지에 대해서까지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불교사 내부, 특히 승단 중심이던 사관이 한국사의 전 영역으로까지 확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 소장은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의 보다 유기적인 협동체제가 요청된다"며 "종래 한국불교사 통사류에 대한 검토와 분석 작업 역시 새로운 한국불교통사의 간행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주요한 업무의 하나다"라고 강조했다.

불교계 사회복지사업 방향 제시

〈불교평론〉 2012 여름호서 '불교와 사회복지' 특집



만해사상실천선양회는 최근 〈불교평론〉 여름호를 통해 불교사회복지 방향을 제시했다. '불교와 사회복지'를 특집으로 다룬 이번 호에는 △불교사회복지의 이념과 교리적 배경(이광준) △역사로 살펴본 불교사회복지활동(김응철) △일제강점기 불교계 사회사업의 개괄(이혜숙) △종교계 사회복지시설의 현황과 과제(고경환) △불교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방귀희) △불교사회복지의 모범 사례(김호성) △한국 복지정책의 발전과 불교계의 대응(최경구) △불교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제언(조성희) △현대 불교사회복지의 새로운 지향(권경임) 등 논문이 실렸다.

이중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장은 "한국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민간 위탁 형식을 취하고 있어 수입구조에서 정부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며 "그러나 외국의 경우 복지서비스 민영화 등으로 정부의 시설 지원 등이 점차 감소하거나 사라지고 있다"고 말하며 불교계의 거시적인 복지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밝혔다. 고 실장은 "최근 우리나라도 장기요양보험 도입 등으로 정부의 지원형태가 변하고 있는 만큼 수입원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종교계의 시설재정 확충을 위해 동일종단간 자원배분 협의체 구성 및 결연운동, 공동복지기금 조성 등의 운동 전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불교복지의 거시적인 방향을 짚는 논문도 소개됐다. 최경구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복지정책의 발전과 불교계의 대응'에서 한국불교복지의 대응방향으로 △공생체주의 △양극화해소 △소수집단의 복지강화 △새 지역복지와 대안가족 복지공생체 강화 △불교생태복지 개념 도입 등을 제안했다.

최 교수는 "불교계가 정부의 복지정책을 잘 소화할 수 있었던 요인에 보시의 종교라는 특성과 현실 지향적이라는 특성이 있었다"며 "공생체주의를 확립해 새롭게 변화하는 사회에 불교계가 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불교사회복지 활성화에는 인적자원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주장도 실렸다. 조성희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불교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제언'에서 "불교계는 1987년 목동청소년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타종교와 비교해 짧은 시간에 그 비중을 높여왔다"며 "이제는 그 역할이 어떻게 자리매김 할 것인지 고민할 때"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제고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인력수급 장기계획 수립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불교 정체성 교육이수 제도화 △불교 사회복지 교육전담기관 설립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끝으로 "불교사회복지계가 타 종교와 차별적 특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보할 수 있기 위해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기억해 인적자원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불교계의 관심을 호소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지원사업회, 소장학자 지원 공모

6월 30일까지 박사논문 · 번역지원 2개 분야서 접수 받아

(사)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는 제9회 불교소장학자 연구지원사업을 공모한다.

한국불교학 연구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불교관련 박사학위 논문 지원, 불교관련 번역지원 등 2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불교관련 박사학위 논문 지원은 학위취득시기에 제한이 없으며 학위 논문 수정, 보완 후 응모도 가능하다.

외국어 논문의 경우 번역 후 지원 가능하며 선정된 2인에게는 각 500만원이 지원된다. 불교관련 번역지원은 불교학 관련 원전 및 외국어 단행본을 대상으로, 선정된 2명의 학자에겐 각 1000만원이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6월 25~30일로 심사결과는 9월 중 개별 통지된다. (011)9789-3083

노덕현 기자

공 고

귀의 삼보하옵고 본종 종법 상벌법 제3장 징계, 제8조(체탈도첩·제적), 제4항(파당을 형성하여 승단의 화합을 파한 자)과 제 11항 (기타 종단발전을 저해하고 명예를 훼손한자)에 의거 2012년 5월 31일자로 다음과 같이 징계함을 공고합니다.

◈ 멸빈 (4명) ◈

울산 화엄정사 화엄 김광옥 부산 연화사 삼주 이영교
경기 우 리 절 광은 이석용 충남 해천사 상원 이동규

◈ 제적 (12명) ◈

포항 정토사 명종 김인창 서울 법성사 법운 이대연 경주 용암사 용암 최용길 경기 도광선원 도광 박인근
울산 운지암 지운 안성찬 광주 약천사 지현 정홍록 경기 미륵사 일성 강종진 대전 삼 성 암 현담 박문종
대전 혜림선원 법광 이재복 제주 한라암 동해 이영식 충남 수광사 보월 전태윤 경북 지 장 사 해동 최승용

(재)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경 원

총무원 :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 440-27, 엄지빌딩 3층 전화 02)991-8175, 8904 전송 02)991-8176

“계율 지키며 선한마음 갖고 수행해야”

광주 연화사, 미얀마 삼장법사 초청법회

“붓당 사라낭 갓차-미, 담망 사라낭 갓차-미, 상강 사라낭 갓차-미”

세계 불교계 최고 삼장법사가 한국에서 법을 펼쳤다. 광주 연화사(주지 명신)는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와 공동으로 5월 31일 대웅전에서 미얀마 삼장법사인 우 간하마라 라카라 스님을 초청해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삼장법사란 빨리어로 된 부처의 가르침인 경(經)·율(律)·논(論) 삼장공부를 완료한 스님으로, 미얀마를 비롯한 세계불교계에서 가장 추앙받는 분의 하나이다. 현재 미얀마에서도 삼장시험을 통과한 스님은 역대 13명밖에 배출되지 않아, 삼장법사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행사에는 붓다락키타 스님(보리수 선원), 위세이따 스님(짓따수카 선원), 명신스님, 지각 스님(동원사 주지), 일명 스님(금선사 주지), 이화영 이사장을 비롯해 400여 신도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위세이따 스님의 통역으로 붓다락키타 스님의 인례로 삼귀의와 오계에 대한 강연과 수계의식이 봉행됐다.

이날 법회는 평소 광주지역에서 많은 강연을 진행하고 있는 붓다락키다 스님이 광주지역 불자들을 위해 마련한 법회이다. 행사는 친견식에 이어 미얀마 양식의 불교의례, 삼장법사에 대한 헌공의식, 수계의식, 법문으로 진행됐다.

특히 헌공의식에는 미얀마 의식에 따라 참가한 스님과 대중들이 삼장법사에게 공양물을 올리는 의식을 진행해 이채로웠다.

우 간하마라 라카라 스님은 법문에서 “사람의 마음은 선한마음과 불순한 두 마음을 갖고 있지만 수행을 할때는 선한마음을 통해 매진해야 한다”며 “선한마음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계율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미얀마의 전통의식에 처음 참여한 김순례(58) 씨는 “작은 것 하나하나에 세심한 관심을 갖고 수행하시는 모습이 좋았다. 특히 계율에 대한 엄격한 마음가짐과 실천을 하고 있는 스님들의 모습이 한국불교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 연화사는 5월 31일 미얀마 삼장법사 우 간 하마라 라카라 스님을 초청해 수계법회를 봉했다. 사진은 신도들이 스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모습이다.



전북 남원여고를 비롯한 10여 학교의 40여 청소년들이 생명농사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 모심기 체험을 하고 있다.

슬로우푸드의 정신을 배우자

청소년 생명평화연대 ‘생명평화 모심기’ 개최

전북 청소년 생명평화실천단(단장 오종근)이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농사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한 ‘모심기’를 전북 전주시 중인동에서 열었다.

“생명의 모를 심어 평화의 쌀을 키우자”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전북 남원여고 등 10여 학교의 청소년 40여 명이 동참했다.

대부분 처음 모심기에 동참한 청소년들은 약 500평의 논에 직접 모를 심고, 가을 수확시까지 꾸준하게 자신들이 심은 모를 관리 수확한다.

오종근 생명평화실천단 단장은 “생명평화실천단의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있다”며 “로컬푸드, 슬로우푸드 등의 정신과 친환경농사 등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여 생명농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런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생명평화 실천단 관계자는 이번 모심기를 계기로 생명평화 정신과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하고 참여자 스스로 모금과 쌀 모으기를 진행하고 있다. 또 가을에 추수한 쌀과 함께 북한 동포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학생들 이름으로 기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동참한 장지영(남원여고·17) 양은 “모심기를 통해 쌀 한 톨이 만들어 지는 과정이 많은 정성이 들어간다는 말을 실감했다” 며 “앞으로 밥을 남기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반야불교문화연구원 개원기념 학술대회



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 · 사진)이 6월 3일 개원기념으로 통도사 반야암에서 ‘다문화사회에서의 불교의 역할’에 대해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과 반야암 주지 지안 스님을 비롯해 20여 영남권 대학교수와 15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반야암 주지 지안 스님은 개회사에서 “현재 한국불교에 있어서 가장 약점은 불교학자가 적다는 것이다. 한국불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라불교처럼 교학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연구원의 설립이 교학을 더 넓히고, 불교를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학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올 3월에 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았으며 불교문화창달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학술대회는 ▷부산대 김준호 교수의 ‘다문화 담론과 불교정신’ ▷동아대 윤종갑 교수의 ‘원융무애와 불교 다문화’ ▷동국대 김선임 교수의 ‘다문화 가정의 실태와 불교적 대안’ ▷대구교육대 김영필 교수의 ‘한국의 다문화 교육과 불교’ 등이 발표됐으며, 임승택(경북대), 조수동(대구한의대), 도제 스님(마하이 주민지원센터), 명법 스님(서울대), 명오 스님(동국대 박사과정) 등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홍법사, 현충일 맞아 나라사랑 실천

현충일을 맞아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는 제22회 홍법바라밀제와 제2회 호국숨결대회를 개최했다.

1부 행사인 홍법바라밀제에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천도재가 봉행됐다. 이어 2부 호국숨결대회에서는 초·중·고 1300여 학생들이 참여해 그림, 글짓기, 서예 부문을 겨루는 행사로 진행됐다.

심산 스님은 “우리는 개인만을 위한 삶만 강조될 뿐, 사회와 국가는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미래의 인재들이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국숨결대회 시상은 15개 종목별로 총 168명에게 수여되며, 시상식은 6월 23일 부산시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진해 해군작전사령부 군악대연주 및 의장대 시범 등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됐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지역소식

금산사 화림선원 백옥불 봉불식 등 개최

임진왜란 당시 뇌묵처영 대사의 승병 본거지로 활용돼 정유재란 당시 소실됐던 김제 금산사 화림선원이 복원돼, 6월 4일 백옥불 봉불식 및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을 비롯해 도영 스님, 원행 스님 등 17교구 본말사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서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은 “화림선원의 복원과 함께 나라가 부강하고 도정이 날로 발전하고 도덕이 성취되는 한편 세계가 평화롭고 눈푸른 납자들이 수행 정진할 수 있는 선원이 되길 바란다”고 설했다.

도영 스님도 백옥불 봉불 축원에서 “이 지역 불교를 이끌어 가고 있는 모악산 금산사를 전법과 포교, 교육, 사회복지의 중심도량으로 열심히 가꾸어 나가고자 하오니 이 도량에서 역대조사님들의 승풍이 되살아 날수 있도록 가피하여 달라”고 기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재)일붕선교종 새임원진 선출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총무원장 경원)은 5월 30일 인수동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44차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새 임원진을 선출했다.

9대 총무원장에 경원스님을 비롯 중앙종회의장 법선, 호계원장 법성, 교육원장 법해, 포교원장 도안, 감사원장 석성, 선거관리위원장 동청, 총무원부원장 용운 스님을 신임 임원으로 선출했다.

구암 대종사 열반 10주기 추모법회

부산시 지정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의 범패 및 장엄부문 예능보유자 구암 대종사 열반 10주기 추모법회가 6월 4일 백양산 백화원 관음사에서 열렸다.

행사는 (사)부산영산재보존회 회원들의 바라춤과 작법무의 화려한 영산재로 봉행됐으며 혜인종 종정 혜지 스님, 일붕선교종 종정 정각 스님을 비롯한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자인 스님과 범산 스님, 사상구 연합회 회장 청강 스님, 前 직지사 주지 자광 스님 등이 참석했다. 법화종 총무원장 혜륜 스님은 “대종사의 영산재에 대한 큰 뜻을 열과 성을 다하여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진 부산지사장

전국 청소년 무일문학상 백일장 열어



전국 청소년 무일문학상 백일장에 참가한 학생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부설 무일학원이 주최한 ‘전국 청소년 무일문학상 백일장’이 6월 3일 경북 청도 ‘참좋은 이서 중·고등학교’에서 개최됐다. 이번 까지 사찰 내 행사로 열렸던 ‘무일문학상 백일장’은 올해부터 전국 단위 청소년 백일장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와 경북지역의 중·고교생 500여 명이 ‘인연, 길, 계절의 순환, 개인과 국가’를 주제로 평소 갈고 닦은 글 솜씨를 겨뤘다. 한편 이날 백일장에서는 중학생 13명, 고등학생 15명을 선발해 5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단법인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 도 모 집

종 정 명진 석법운

원로위원 석보운 석월현 석해동 석법등 석성우 석월산

귀의삼보 하옵고

새로운 불교, 혁신적인 종지종풍으로 이어가기 위하여 석가세존으로부터 법맥을 이어온 저희 종단은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으로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불교의 역대 선지식들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문화를 불교에서 찾아내어 역사와 민족앞에 제시하고 함께 실천 지도하여 왔습니다.

원효대사는 화쟁사상으로 통일신라시대의 병폐를 치유했으며 보조 지눌선사는 고려불교의 사치와 호화를 경계하여 선교의 수행 실천으로 후학을 지도하였고, 서산대사는 선사상 등 여럿이 있지만 사명대사에 이어져 호국불교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불교로 민중을 지도해 왔던 것입니다.

저희 종단 역시 깊은 뜻을 받들어 전통 불교의식의 이념전파 및 범음범패를 현재에 전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단은 한국불교중흥을 위해 누구에게나 열린 종단, 엄격한 교육과 철저한 선수행을 통해 양질의 승려와 불자를 양성하는 교육종단, 일체의 삿됨도 배제하고 정법수호에 앞장서는 개혁종단으로 그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중흥과 불교세계화를 염원하는 사단법인 대한불교 응공 조계종 종단과 함께하실 제방의 청정승가와 불심 깊은 불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 총무원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04-5 3층

▶ 총본산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1리 1095 동명사

전화 054)974-2605. 011-544-2605 / 팩스 054)974-5789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2년도 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나.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다. 강 주 : 석법운 스님, 월봉 스님

2. 수업일시

■ 수업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총무원 자혜불교대학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1-544-26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조계종 통합 종단 50년 내일을 위한 핵심과제 7

〈6〉신도교육

'바른 신행' 첫 걸음…교육 체계 정립해야

조계종은 1962년 통합종단을 출범한 이래 오늘날까지 포교·역경·도제양성을 3대지표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반면 신도 교육은 종단을 이끌어 나가는 구성 인원에 대한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책은 아니다. 신도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어봤다.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 불교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신도 조직의 결성은 바로 포교가 지향해야 할 과제이며, 신도조직화에 필요한 각종 신도교육 방법과 교육기관 정비, 의식 통일 등은 포교원이 장, 단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교 종책이다.'

1996년 불교교양대학 대표자회의 자료집 내용 중 일부다. 신도는 종단을 외호하고 유지하는 기틀이다. 신도를 하나로 결집시키고 종도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분명 체계화 된 교육이 필요하다.

하지만 신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각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해방 이전에도 대중 불교 강연 등이 있었지만 단발성에 머물렀고 1970~80년대 불교교양대학들을 신도 스스로 필요해 생겨난 교육 형태들이다. 신도교육의 방향과 체계를 종단적으로 정립하기 시작한 것은 포교원이 별원된 1994년부터. 1999년 신도법, 포교법이 개정되고 2000년 신도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며 그 기틀을 잡아간다. 여러 성과를 낸 신도교육위원회였지만 2006년 3월 15일 회의를 끝으로 2009년 3월 포교위원회, 신도종책위원회, 포교연구위원회가 발족할 때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수 많은 종책 과제 중 신도 교육은 변방에 있어 왔다. 이런 이유는 어디에 기인할까? 조계종 포교국장 남전 스님은 종단 행정 시스템 구축이 체계화되지 못한 부분에서 원인을 찾았다. 남전 스님은 "해방 이후 통합종단이 출범하면서도 불교에는 승가든 재가든 교육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며 "여러 노력은 있었지만 수행, 포교, 교육, 사회활동 등 현대사회에 필요한 과제들이 1994년 별원 체계로 나뉘면서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불교 내부적인 면에 기인한다고 봤다. 오래 전부터 신도들의 교육 수요는 많았으나, 사찰들이 이를 안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교육 공간도 없었으며, 양질의 강사진도 확보되지 않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이다.

김 교수는 "그간 사찰들의 교육 환경은 매우 낮았다"며 "불교 교리를 삶 속에 응용하고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이뤄져야 하는 데 그렇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나마 신도기본교육 의무화 등 최근 신도교육은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11년 1월 포교원은 신도기본교육 전면 재시행 지침을 일선 사찰에 시달했다. 지침은 조계종 모든 사찰은 통일된 교본으로 신도기본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해야 하고 교육체계를 △입교 △신도기본교육 △재교육 및 전문교육 △지도자 교육 등 4단계로 나눴다. 또 교육 이수 단계에 따라 이를 인정하는 신도 품계도 함께 수여키로 했다. 신도 품계는 발심·행도·부동·선혜로 구성된다. 올해 3월에는 서울 호압사에서 첫 발심품계법회가 봉행됐다.

남전 스님은 "신도교육 의무화는 이미 법제화 돼 있었지만 관리가 안됐다. 이번 지침은 일선 사찰들이 종단에 교육 현황을 보고토록 하고 있어서 의무적으로 신도교육을 할 수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신도품계에 대해서는 "품계는 교육만 받고 활동하지 않는 불자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시작한 종책"이라며 "사찰 역시 교육을 완결시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종단에서 이를 보완해주기 위해 품계제도와 이에 대한 수계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현장 반응도 고무적이다"라고 밝혔다.

남전 스님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반 불자들의 재교육 역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심사찰 강남 봉은사 교육국장 묵산 스님은 "재적사찰로 있는 신도들이 소속감 증대와 자부심이 고취될 수 있으며, 단계별 교육으로 신행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기본교육이 의무화된 것은 분명한 성과지만 사찰 자율적 교육이 사라지고, 신도 등록에만 정책이 쏠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통일성을 강조하다 보니 사찰들이 가지는 특성화된 교육을 할 수 없다. 통일 교육교재보다는 실상 수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영상자료, 교육 부교재들을 개발해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신도등록에 대해서는 비판의 수위가 높았다. 김 교수는 "신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일반 불자들에 대해 더 문턱을 높인 것이고 불자들은 더 소극적으로 행동할 수 밖에 없다"며 "운영의 묘미를 찾아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기본교육 의무화는 성과
품계로 종도 개념 구축
사찰 특성화 된 교육 無
우수강사진 양성 급선무
평생 교육시스템 정립도

바른 믿음을 바탕으로 한 바른 신행을 추구할 수 있는 신도 교육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선결돼야 할까? 김 교수는 우수한 강사진들이 배출돼 일선 현장에서 활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처님 근본교설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교재 개발도 선행돼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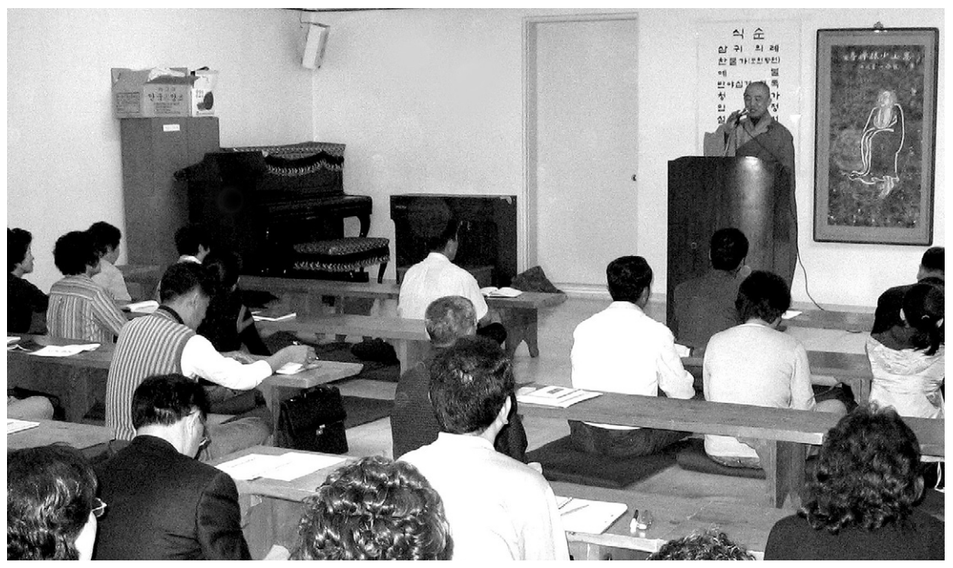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신도들의 다양한 교육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강사진이 우선된다. 사실 교육의 성패도 강사진에서 갈린다"며 "우수 강사를 키우고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묵산 스님은 세대별 맞춤 교육을 강조했다. 스님은 "어르신 교육과 젊은 세대의 교육은 구분돼야 한다. 젊은 세대는 온오프라인을 전부 활용할 수 있으나, 노인 분들은 철저히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며 "특히 젊은 세대들을 사찰에 끌어들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 전문, 재교육 이외에도 사찰을 통해 평생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중요한 문제다. 묵산 스님은 "현재 봉은사는 노인대학인 연화대학을 통해 만 60세 이상의 노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전학교 등을 통해 전 세대가 공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교육, 봉사와 신행활동을 연계한 불교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전 스님은 교육 체계 활성화에 대해 종단 차원의 노력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현재 등록 신도들이 종도로서 조직되는 것과 일반 불자들을 위한 재교육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또한 의무교육 표준화, 강의 계획 동영상 제작 등도 계획 중이며, 각 사찰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중일·노덕현 기자


충북불교대학 수강생들이 스님의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바른 신행을 알리고 평생공부를 할 수있는 교육시스템 정립이 필요하다.


남전 스님


김응철 교수

신도교육 분야 주요 연혁

1956. 9月	종로 대각사 3주 불교 강좌
1972. 6月	서울신도회 불교교양대학 개설
1973. 4月	대원불교대학 설립
1999. 9. 15	신도법 개정안 통과
2000. 3. 18	포교법 개정안 통과
2000. 9. 27	신도교육위원회 발족
2001. 5. 14	포교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2001. 11. 13	신도기본교육 캠페인 발대식
2002. 6. 20	신도전문교육 고불식 봉행
2002. 11. 11	제1회 전법인력 양성 교육
2003. 3. 12	제2기 신도교육위원회 출범
2003. 8. 31	온라인 신도등록 개시
2004. 2. 28	교재 〈불교의 이해와 신행〉 발간
2004. 3. 23	교재 〈불교사의 이해〉발간
2005. 1. 10	교재 〈불교문화〉발간
2005.12.20	제3기 신도교육위원회 출범
2009. 4. 1	포교원, 새 신도증 발급
2010. 1. 4	포교원, 어린이 청소년 신도증 발급
2010. 11. 6	제1회 종단 교구본말사 신도임원 연수
2011. 8. 31	신도멤버십센터 개소
2010.10.28	제1회 신도품계 품서
2011. 1. 5	포교원 신도교육 전면 재시행 지침 하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방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8㎝]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세로 32㎝×높이(뒷면) 6㎝]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Health Food Prescription Counselor

보건식품처방사

보건식품처방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보건식 품처방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가족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보충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보건식품처방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보건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토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교육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

지 부 교 육 원

창 원 055-543-6155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해 운 대 051-757-9990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과학기술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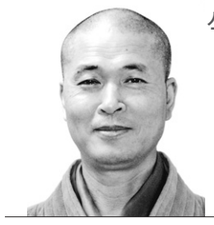
32,3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언제까지 묻기만 할 것인가

학승이 물었다. "밤에는 도솔천에 올라가고 낮에는 염부제에 내려오는데 그 가운데에 왜 마니보주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무엇을 말하는 거야?"

학승이 다시 한 번 더 물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비바시불이 일찍이 거기에 마음을 머무르고 있었고, 바로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아직 그 묘리(妙理)를 얻지 못했다."

問 夜昇兜率晝降閻浮 其中爲什麼摩尼不現 師云 道什麼 僧再問 師云 毗婆尸佛早留心 直至如今不得妙

대승불교를 높이 천양했던 무착보살(無着菩薩)이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을 지을 때에 밤에는 도솔천에 올라가 미륵보살의 가르침을 받고, 낮에는 남 염부제인 사바세계에 내려와서 유가사지론을 집필했다고 하는 설화가 있다.

도솔천은 33개의 천국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천국인데, 천국 중에서도 으뜸가는 곳이다. 석가모니불이 사바세계에 오기 전에 머무르던 곳이고, 미륵보살도 미래의 사바세계 부처가 되기 위하여 현재 대기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비바시불은 석가모니불 보다 먼저 성불한 6명의 부처님 중에 최초로 부처님이 된 사람이다. 마니보주는 '사람의 성품'을 말한다. 사람의 성품은 신비해 때에 따라 각기 다른 색깔을 낸다. 그러나 체(體)는 투명해 정작 자신의 색깔은 나타낸 적이 없다. 그렇지만 무착 보살이라면 남다르게 신통이 자재했으니까, 마니보주가 자기 색을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묻는 것이다.

선사는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우주가 생길 때 최초로 성불한 비바시불 때부터 거기에 마음을 머무르고 있었고, 지금 수많은 조사들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묘한 것의 정체에 대해서는 조금도 아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학승이 물었다. "무엇이 옷 속의 보물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무엇을 싫어해서 한 질문이냐?"

학인이 물었다. "그것은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이 보물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그러다간 옷마저 잃어버리고 말 것이야."

問 如何是衣中寶 師云 者一問嫌什麼 云者箇是問 如何是寶 師云 與?即衣也失?

〈법화경〉에 옷 속의 보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두 사람의 친구가 있었는데 나중에 한 사람은 가난한 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부자가 되었다. 하루는 가난한 친구가 부자 친구를 찾아갔는데 부자는 가난한 친구가 잠이 든 새에 옷 속에 보물을 넣어놓았다.

시간이 많이 흘러 가난한 사람이 다시 부자 친구를 찾아갔다. 부자친구는 의아해서 물었다.

"아니, 자네 왜 그러고 다니나?"

"무슨 말인가, 가난한 자가 이렇지 무슨 수가 있단 말인가?"

"음, 사실 지난번 자네가 잠들었을 때 나는 자네의 옷섶에 보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네. 나는 때가 되면 자네가 그것으로 부자가 되리라 생각했는데 자네 그 보물을 어떻게 했나?"

가난한 사람은 그때서야 옷섶을 뒤져보니 정말 보물이 있었고 알고 보니 자기는 큰 부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이 설화의 뜻은 중생은 원래 부처이고 행복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스승을 만나서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다.

"무엇을 싫어해서 한 질문이냐?"라는 말은 네가 이미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또 무슨 보물을 찾느냐는 반문이다. 그러자, 학인이 곧 알아듣고 그러면 무엇이 보물인가 물었다. 그러자, 조주 스님은 "그러다간 옷마저 잃어버리고 말 것이야"라고 대답했다. 그런 질문을 하고 다니면 손해가 더 많다는 말이다.

자기 팔과 다리에 대해서 남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다. 자기 신체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더 잘 알아야 정상이다. 매순간 보물을 쓰고 있으면서 자기가 쓰고 있는 물건에 대해 남에게 묻는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무불선원 선원장



주성원의
기초 교리〈17〉

삼학과 팔정도

계정혜 삼학은 곧 팔정도 수행법

부처님은 40년간의 오랜 세월에 걸쳐 사부대중에게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다양한 수행법을 설했다. 이 수행법을 모두 포괄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계학(戒學)·정학(定學)·혜학(慧學)의 삼학(三學)이다. 여기서 '배울 학(學)'은 글자 그대로 배움을 뜻하지만 오늘날 말하는 학문을 배우는 것이 아닌 수행을 배우는 것을 가리킨다.

계·정·혜 삼학의 계학은 몸[身]과 언행[口]과 생각[意]으로 짓는 악행을 막고 선업을 실천토록 하는 덕목이고, 정학은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히 하여 깊은 정신집중 상태인 선정(禪定)에 들도록 하는 덕목이며, 혜학은 평정된 마음에서 분별심을 없애고 사성제 등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수행덕목이다.

이 세 가지 항목은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칼로 무 자르듯 엄격히 나눌 수 없다. 계율을 실천하는 것은 곧 선정에 도움이 되고 선정은 진리를 바로 보는 지혜를 낳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삼학은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의 구조를 셋으로 나눈 것을 뜻한다. 생각을 통해 내린 결정을 지키겠다는 의지, 즉 의사적인 측면을 계, 마음의 감정적인 측면을 정, 올바른 지식적인 측면을 혜로 구분한다. 하지만 이 또한 편의적인 구분으로 계·정·혜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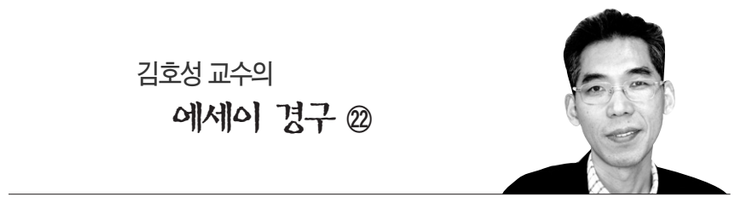
흔히 불교에는 소승과 대승의 구분이 있고, 소승불교의 수행론으로 팔정도가, 대승불교의 수행론으로 육바라밀(六波羅密)이 있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 역시 2500여 년 의 긴 시간 동안 부처님 가르침의 해석을 놓고 불교종단이 분열하면서 제각기 교학체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내용에 지나지 않다. 따라서 대소승을 구분하여 우열을 가리려는 생각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열관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는 대소승의 구분을 잠시 내려놓고 삼학의 큰 틀에서 어떠한 수행론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초기 〈아함경(阿含經)〉 등에서 가장 대표적인 실천수행법으로 들고 있는 것이 '37보리분법(三十七菩提分法)'이다. 37보리분법은 부처님이 설한 팔만사천 법문 중에 수행에 관련된 내용만을 추려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 도움이 되는 서른일곱 가지 수행법'이라는 뜻이다. 이 서른일곱 가지 수행법을 단순히 나열하면 (1) 사념처(四念處) (2) 사정근(四正勤) (3) 사신족(四神足) (4) 오근(五根) (5) 오력(五力) (6) 칠각지(七覺支) (7) 팔정도(八正道) 등이 있다. 각 수행법 이름 앞에 붙은 숫자를 모두 합하면 서른일곱이 되고, 이 중에는 팔정도가 포함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일곱 종류, 서른일곱 가지의 수행법은 수행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계통을 이루면서 상호 유기적으로 하나가 돼 있다. 지면상 이 모든 수행법을 각각 설명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앞서 연재를 통해 소개한 팔정도를 삼학으로 구분하고, 다른 수행법과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살펴보는데 그치도록 하겠다.

불교 내에서 팔정도를 삼학으로 나누어 배분하는 것에 대해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구분은 다음과 같다. 정견·정사유는 혜학에 해당되고, 정어·정업·정명은 계학에 해당되며, 정정진은 삼학전체에 해당된다. 나머지 정념·정정은 정학에 속한다. 이 중에서 사념처는 정념, 사정근은 정정진과 일맥상통하는 수행법으로 이미 앞서 연재한 바 있다. 불교에는 이밖에도 더 세분화되고 다양한 수행체계가 존재하지만 이 수행들은 모두 계·정·혜 삼학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㉒

니간타들이 탁발 오면 그들에게 보시 해야 합니다 〈맛지마 니까야 56〉

니간타 나따뿟따라는 종교인이 있었다. 부처님과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활약한 자이나교의 창시자이다. 출가수행자는 '무소유'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체수행자가 되었기에, '나형외도(裸形外道)'로 폄하되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날란다에 머물고 계셨는데, 가까이에 니간타 역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듯하다. 니간타의 한 제자가 부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자, 니간타의 무리들은 누군가를 보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논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인물이 우빨리라는 장자(長者)였다.

당시 종교인들은 이렇게 서로를 찾아다니면서 토론을 걸고 논쟁을 하는 풍조가 있었다. 인도인으로 199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 역시 그의 책 〈살아있는 인도〉(이경남 역, 청림출판)에서 바로 그 점을 주목하고 있다.

당시 문제가 되는 논쟁점은 이랬다. "행동의 잘못이 큰 것에 비하면 생각의 잘못은 하찮은 것이다." 몸, 입, 그리고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업 중에서 가장 무거운 업,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업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니간타의 가르침에서는 행동의 잘못이 가장 크다는 것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생각의 잘못이 가장 크다는 것이었다.

자이나교의 수행자들은 지금도 길을 갈 때는 벌레를 밟아죽이지 않도록, 빗자루를 들고 다니면서 쓸고 지나간다. 그렇지만 그래도 실수로 밟아죽이는 일이 있을 터이다. 그런 제자가 있다면, 자이나교의 스승 "니간타 나따뿟따는 그에게 어떤 과보를 말하는가?" 하는 질문을 부처님께서는 던지고 있다.

우빨리의 답 : "니간타 나따뿟따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비난받을 만한 것이 못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승부가 갈라진다.

쐐기를 박으시는 부처님의 말씀 : "그러면 의도적이란 것은 행동, 말, 생각의 잘못 중 어느 것에 속합니까?"

승부는 이렇게 끝났다. 이러한 토론에 수반되는 사건이 '개종(改宗)'이다. 우빨리 역시 그러한 생각을 표명한다. 당연히 부처님께서는 좋아했으리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깊이 심사숙고하십시오. 그대와 같이 잘 알려진 사람에게는 깊이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일아스님 역편,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민족사, 137쪽)

그가 더욱 감동한 것은, 바로 이 장면에서였다. 부처님의 '열린 마음'을 보았던 것이다. "다른 교단 사람들이 저를 제자로 얻었다면 그들은 '장자 우빨리가 우리 교단의 제자가 되었다' 고, 온 날란다에 깃발을 들고 행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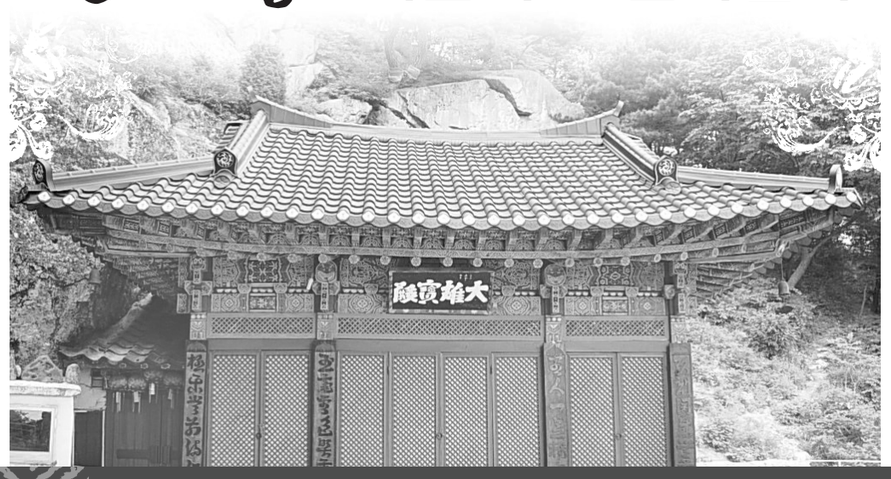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우빨리 역시 '포기하지 않는 영혼'이었다. 두 번, 세 번, 삼귀의를 거듭한다. 마침내 허락을 하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으신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니간타들에게도 보시를 하라." 다른 교단의 사람들 같았으면, "보시는 나에게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마십시오. 보시는 나의 제자들에게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을 것이다.

몇일 지나서 '잃어버린 제자'를 찾아온 옛스승 니간타 나따뿟따에게 우빨리는, 6행으로 1연을 이룬 시 9연을 읊는다. 이제 부처님 제자임을 선언한 것이다. "다른 교단의 제자들 물리치고서 / 그대에게 진리를 보이고 싶었을 뿐 / 제자 욕심에서가 아니라네 / 함부로 '개종'을 말하지 말라 / 옛스승에게도 보시를 하라시는 / 부처님이 바로 그 분이고 나는 그 제자이네." 우빨리의 시를 흉내내서 불러본 것인데, 마지막 6행만은 우빨리의 시구 그대로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양 지 국 악 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자연적 폭포 많은 사찰엔 인공폭포 적어

폭포

폭포는 낙차가 있는 지형에서 물이 아래로 떨어지도록 만든 수경관형식이다. 예로부터 폭포는 장엄하고 신비한 분위기를 연출할 뿐만 아니라 자연을 느끼게 만드는 시설이었기에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폭포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필요한 경우 인공적으로 조성하여 정원에 도입하기도 하였다. 인공적으로 만든 폭포는 거의 대부분 자연폭포를 흉내 내어 만든 축소된 경관요소이다.

자연형 폭포의 경우에 있어서 물의 처리방식은 비천(飛泉)이라고 하는 비교적 힘찬 낙수형태와 괘천(掛泉)이라고 해서 조용히 흘러내리는 형태가 있다. 또한 인공적으로 만든 폭포의 경우 지당에 물을 넣을 때 소리를 내며 위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폭포형 급수장치인 현폭(懸瀑)과 물이 넘쳐들게 한 자일(自溢)이라는 유형이 있어 폭포가 설치되는 장소의 성격이나 만드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사찰은 산자수명한 곳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물과의 인연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사역주변을 흐르는 계류는 기본적인 수경관요소이고, 경사가 급한 경우에는 계곡을 따라 흐르던 계류가 폭포가 되어 떨어지기도 하였다. 우리의 산사에서 볼 수 있는 유명한 폭포로는 소백산 희방사의 희방폭포, 지리산 불일암의 불일폭포, 소요산 자재암의 원효폭포와 청량폭포, 함양 용추사의 용추폭포, 양산 홍룡사의 홍룡폭포, 포항 보경사의 12폭포 등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이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형성된 폭포들이 많았기 때문인지 사찰 내에는 인공적으로 폭포를 만드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우리나라 정원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폭포는 경주의 안압지가 가장 오래된 것이다. 이것은 직선수로를 통해 외부에서 들어온 물이 2단 석구를 통해 모아졌다가 다시 자연형 수로를 통해 작은 못에 고이고 이 물이 수로를 따라 흘러 안압지에 이르러서는 2단 폭포를 이루며 흘러내린다. 이 폭포는 심미적으로는 시각적 효과와 청각적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것이고 기능적으로 물의 흐름을 조절하여 안압지의 물이 순환하는데 도움을 준다.

사찰에 만든 인공폭포의 유형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이 못에 물을 담기 위해 도수된 물이 낙차를 가지고 못에 떨어져 폭포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 안압지와 같이 물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게 자연석을 놓아 물이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끌어들인 물을 나무홈대를 통해서 떨어트려 폭포효과를 낸다. 나무홈대는 대나무를 반으로 쪼개서 만들거나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나무을 반으로 잘라 속을 파내서 쓰기도 한다. 옛글에는 나무홈대를 견, 견간, 죽간, 연통, 가조, 고목 등으로 표현하였고, '높이 띄워 물을 나른다'는 의미에서 비구(飛溝)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한편, 축대의 상부에 수로의 말단부를 연결하여 물이 떨어지도록 만든 폭포의 유형도 있다. 더 나아가 계곡에 보를 만들어 물을 담아두고 그 물이 보를 타고 흘러내리면서 폭포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자연형 계류와 유사한 경관성을 가진다.

우리나라 사찰에 설치한 폭포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본다. 먼저 순천 선암사의 경우 현재의 성보박물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청파당 옆에 있는 쌍지의 물이 해우소 옆으로 흘러내려 곡수로를 따라 곡지에 도수되고 곡지의 물이 다시 곡수로를 따라 석단 아래로 폭포를 이루며 떨어지도록 했는데, 지금은 이러한 폭포효과를 볼 수 없게 됐다. 그것은 지난날 있었던 곡수로가 멸실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변형된 곡지의 수량이 적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연폭포, 비천과 쾌천방식으로 나눠
인공폭포 낙차 이용해 만든 경우 많아
경주 불국사 석누조 폭포효과 유발

김천 직지사의 경우에도 폭포가 있는데, 폭포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역을 관통하며 설치된 수로를 따라 흘러내리는 물이 낙차가 있는 곳에서 현폭형태로 떨어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양주 묘적사의 경우에도 작은 폭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직지사의 폭포와 같이 수로를 흐르던 물이 낙차가 형성된 지점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것을 보면 사찰에서 볼 수 있는 인공폭포는 대체적으로 수로와 연관되어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산 통도사 사명암에는 오래전에 만든 못이 하나 있는데, 이 못의 수원은 못 바닥에서 용출되는 용출수와 절 위쪽에서 지하수로를 통해서 끌어들인 자연수이다. 이 못에 물을 대기 위해 지하수로를 통해서 끌어들인 물은 자연석으로 만든 폭포장치를 통해서 입수되는데, 평소에는 물이 많지 않아 뚜렷한 폭포효과를 볼 수 없지만 물이 많은 경우에는 폭포가 연출하는 멋진 수경관을 볼 수 있다. 더불어 나무를 깎아 만든 나무홈대를 통해서 물을 떨어트리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나무홈대를 이용해서 물을 대는 경우는 오래전부터 사찰에서 볼 수 있었던 인수방식이었다. 조선시대에 불국사를 찾았던 이덕홍(李德弘, 1541~1596)은 기행문인 『동경유록(東京遊錄)』에서 "연못 북쪽에 나무홈대의 비천(飛泉)이 수리를 가로질러 석조에 떨어지고 있다"라고 적고 있어 나무홈대를 통해서 물을 못에 끌어들였으며, 선암사 달마전 삼탕에 물을 끌어들인 장치도 나무홈대였다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다.


송광사 계담의 물이 보를 타고 넘으면서 폭포 효과를 보인다. 우리나라 사찰 여러곳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폭포의 한 유형으로 인공폭포지만 자연폭포로 인식되고 있다.

순천 송광사 계담에 고인 물이 보를 타고 흘러내리면서 폭포효과를 내는 것도 우리나라 사찰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폭포의 한 유형이다. 이것은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지만 설치된 환경이 자연계류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폭포처럼 인식된다.

경주 불국사의 석단에 불쑥 튀어나온 석누조의 경우에도 폭포효과를 유발하는 수경요소이다. 실제로 대웅전 마당에 내린 빗물이나 무설전 후면에 있었던 샘물이 이 석누조를 통해서 흘러내릴 때는 폭포와 같은 경관을 연출한다. 불국사에 구품연지가 있었던 당시에 석누조를 통과한 물이 하부 자연석에 떨어지면서 만들어내는 수경효과는 일품이었을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묘적사 폭포는 수로를 따라 내려온 물이 지형 처리를 위해 축석한 석단에 이르러 현폭 형태로 떨어진다.


통도사 사명암 못에 물을 대는 나무홈대도 폭포효과를 가지는 수경요소이다.


직지사 경내의 수로 말단부에 장치한 현폭. 사역 관통하며 수로따라 내린물이 낙차를 만든다.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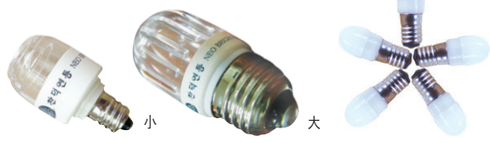

윤장대 인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악보 같고 캔버스 같은 녹색 숲 길…사유의 숲 길

④ 북한산 '명상길' 그리고 심곡암(深谷菴)

우리나라 오악(五嶽)의 하나인 북한산은 서울을 품고 있는 산이다. 아니 서울이 안겨 있는 산이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천 만이 낮과 밤을 허물고 치열하게 살고 있는 서울. 물기 없는 도시에 물을 대고, 인정 없는 도시에 숨을 대고 있었으니, 그것은 녹색의 '자연'이고 서울의 '녹색'은 북한산이다. 또한 그 수학책 같은 도시 저편에 음악책과 미술책을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있다. 서울의 수원(水原)이자 기원(氣原)인 북한산에 둘레길이 들어섰다. 지난 2011년 6월에 총 21가지 테마를 가진 둘레길이 완성됐다. 그 중 '명상길'이란 이름이 붙은 5구간을 걸었다.

5구간은 4구간인 '솔샘길'이 끝나는 정릉주차장에서 형제봉까지의 길로 약 2.4km이고 걷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20분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승용차를 이용하면 주차장까지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북한산탐방안내소를 찾아간다. 뒤쪽 주차장에 '명상길'이란 안내판이 있고 길이 시작된다. '둘레길'이란 안내판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안내에 따라 걷기 쉽게 해놓았다. 초반에는 가파른 길이 조금 있지만 계단이 놓여 있어 걷는데 불편하지 않다.

"이른 아침의 걷기는 하루를 위한 축복이다." 숲을 사랑했던 〈월든〉의 소로우가 말했다. 둘레길 곳곳엔 '명상길'에 걸 맞는 금언들이 숨이 가빠올 때쯤 하나 씩 나타난다. 바쁜 숨을 늦추고 잠시 마주하는 금언의 안내판은 악보 같고 캔버스 같다. 걷기 좋은 계절이다. 걸음은 걷는 대로 땀이 되고, 가벼워진 몸이 닫힌 가슴을 열기 시작한다. 넓어진 가슴이 걸음 속에 사유를 들인다. 걷는 즐거움이다. 진면목을 드러낸 녹색의 숲. 그 숲에서 들려오는 태고의 새소리. 숲과 숲 사이에 깃든 건강한 햇살. 어디서부터인지 알 수 없는 산들바람.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는 하늘. 보일 듯 말 듯 한 한 줄짜리 거미줄에 걸려 걸음을 멈춰서면, 길은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멈춰 서서 앞서간 것들을 바라보는 것 또한 길 위에서 할 일이었다. 다시 길을 걷는다.

중생이 살고, 중생이 드나드는 길에 절이 없을 수 없다. '명상길' 주변에도 크고 작은 절들이 있었다. 우선 2km를 못 간 지점에서 쉼터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둘레길을 잠시 접고 오른 편으로 약 150m 정도 오르면 세 곳의 절을 만날 수 있다. 서광사, 영불사, 그리고 심곡암이다. 서광사는 가파른 계단을 많이 올라야 한다. 아담한 사찰이다. 서광사를 내려와 다시 둘레길에서 빠져 나와 걷던 방향으로 계속 걸으면 영불사가 나오고, 그 왼편으로 심곡암 이정표가 있다. 영불사에서는 대중이 모여 재를 모시고 있었다. 심곡암 가는 길에는 등산로가 없다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절은 있는데 등산로는 이어지지 않으니 등산객은 알아서 하라는 뜻 같았다.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절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안내문이 없어 처음 와본 이는 길에 들어서기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절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의심을 품고 걷는 길은 헛걸음에 대한, 보상 받지 못할 시간과 고단함을 먼저 생각하게 했다. 그 때 멀리서 백구 한 마리가 짖었다. 절은 있겠다 싶어 계속 올라갔다. 도량에 들어서고 보니 너럭바위와 산사음악회로 유명한 심곡암이었다. 모른다는 것이 그토록 어두운 것인지를 또 한 번 느끼는 순간이었다. 백구가 더 크게 짖는다. 나가란 소린지. 어서 들어오란 소린지. 세상엔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가 더 많았다. "안녕하세요?" 채소밭에 물을 주고 계시던 주지(원경 · 조계종 종회의원) 스님이 백구 소리 끝에 어정쩡하게 서있는 중생에게 합장을 하신다. "차 한 잔 하고 가세요."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 같은 목구멍으로 뜨거운 녹차가 단비처럼 흘러내려갔다. "그토록 유명한 심곡암이 이렇게 조용하게 숨어있었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스님이 웃으셨다. "절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들어서 많이 망설이며 길을 왔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절이 있음을 알리지 않는지 묻자 스님이 대답했다. "처사님처럼 올 사람은 다 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만 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북한산 둘레길 5구간인 '명상길'에 들어서면 진면목을 드러낸 녹색의 숲과 그 숲에서 들려오는 태고의 새소리 그리고 산들바람을 만날 수 있다.


심곡암 주지 원경 스님이 텃밭에 물을 주고 있다.


이름처럼 드러나지 않게 깃들어 있는 심곡암


둘레길을 찾은 등산객이 '명상길'을 걷고 있다.

21가지 테마 둘레길 중 5구간 '명상길'
서광사, 영불사, 심곡암 등 세 절 있어
봄꽃 · 가을꽃 피면 심곡암 음악회 열어

심곡암은 글자 그대로 심곡암이었다. "깃들고 싶은 사람만 깃들었으면 해요. 도량엔 그런 사람들만 오면 돼요." 스님은 산사음악회 공연이 있을 때도 특별히 안내문이나 이정표를 세우지 않는다고 했다. "작은 것은 작게, 큰 것은 크게." 스님은 15년 전에 주지로 와서 처음 한 일이 심곡사였던 도량의 이름을 심곡암으로 고친 것이었다고 한다. 도량 크기에 비해 도량 이름이 너무 큰 것 같아 '사'를 '암'으로 바꿨다고 한다. 거꾸로 바꾸는 일은 많아도 드문 일이다.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지키겠다는 것 또한 흔치 않은 일이다. 너럭바위 옆에는 110년 된 졸참나무(보호수)가 한 그루 있다. "심곡암은 자연이 아름다운 절이에요. 꽃들이 혼자 피고지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산사음악회를 해요. 돈 많이 안들이고 자연 무대(너럭바위) 위에서 음악회하면서 심곡암 보여주려고요." 스님은 전각불사보다는 문화불사를 통해 심곡암이 현실정토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스님은 관념 속의 정토보다는 현실정토가 더 필요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심곡암이 그 현실정토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가을에 산사음악회 또 합니다."

녹차 두 주전자를 비우고 나니 어느 새 날이 저물고 있었다.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는데 조금 난감했다. 서둘러 자리를 일어섰다. '명상길' 구간은 아직 3분의1 쯤 남아있었다. 날이 저물어 갈 수 없을 것 같아 국민대길로 바로 내려왔다. 약 400m 길이다. 명상길 코스는 형제봉까지 가야하지만 힘든 사람은 기자처럼 심곡암에 들러 주지 스님께 차 한 잔 얻어 마시고 국민대 앞으로 내려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길이 꼭 정해져 있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걷고 싶은 만큼 걸으면 될 것이다. 북한산에 가을이 오고 가을꽃들이 피면 숲 깊은 곳에서 음악이 들려올 것이다. 북한산 둘레길 '명상길'에는 꽃이 홀로 피고 지는 것을 아까워하는 스님과 그 때마다 음악소리 들려오는 작은 정토가 있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북한산 둘레길은

기존의 샛길을 연결하고 다듬어서 북한산 자락을 완만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한 저지대 수평 산책로다. 길은 전체 71.8km 중 서울시 구간과 우이령길을 포함하여 2010년 9월 7일 45.7km가 개통됐고, 2011년 6월 30일 나머지 26.1km 구간이 개통됐다.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어 걷는 둘레길은 물길, 흙길, 숲길과 마을길 산책로 등 각각의 21가지 테마로 조성됐다.

〈5구간 '명상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남성용 여성용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 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 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 세로3.5㎝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찰스님 20%할인)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장,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정찬주의 아쇼까대왕 유적기행 (13)

진리 믿고 행동하는 것이 '참공양'

전생 부처님이 왕으로 살던 쿠시나가라

부처님은 왜 말라족이 사는 쿠시나가라를 열반지(涅槃地)로 정했을까? 부처님 인과법이란 한마디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따른다는 진리이다. 부처님께서 쿠시나가라를 열반지로 선택하셨던 데에는 명백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필연적인 근거를 설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인과법이 아니다. 부처님이 바이샬리에서 머무시다가 우연히 쿠시나가라로 가시게 되어 그곳에서 열반에 드셨다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란 맹신이 아니라 이성적인 확신이기에 그렇다.

이 한 가지 예를 보더라도 불교란 물음표에서 시작하여 온갖 우여곡절 끝에 느낌표로 회향되는 종교가 아닐까도 싶다.

쿠시나가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나의 상념은 계속된다. 결국 나는 부처님과 아난존자의 대화 속에서 부처님이 왜 쿠시나가라를 열반지로 정했는지 힌트를 얻는다. 〈대반열반경〉에서 쿠시나가라가 부처님 전생의 고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아난이 물었다.

"세존이시여, 왜 이렇게 작고 외진 마을의 변두리에서 열반에 드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부디 그만두시옵소서. 이런 작은 꾸시나라(현 쿠시나가라) 마을이 아니라도 찬빠나, 라자그리하, 사왓티, 사께따, 꼬삼비, 바라나시 같은 큰 마을이나 도시가 있지 않사옵니까? 세존이시여, 도시나 큰 마을에서 열반에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나 큰 마을에는 왕족의 큰 집회장과 브라만의 큰 집회장, 부자의 큰 집회장이 있으며, 세존께 존경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이도 많이 있으므로 세존께서 보여 주실 사리도 정성을 다해 수습하지 않겠습니까?"



인도 스님들이 부처님을 화장한 다비장 스투파 옆에서 수행하고 있다.

부처님은 아난을 자애롭게 달랬다.

"아난이여,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이 꾸시나라를 작고 외진 마을이라고 말하지 말라. 지금의 꾸시나라마을은 작고 외지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느니라. 아난이여, 옛날에 마하수닷사나(大善見)왕이 있었느니라. 그는 전륜성왕으로서 혈통이 바르고 법에 맞는 왕이었느니라. (중략) 전생에 여래는 이 꾸사와띠성(꾸시나라국 수도)에서 태어나 왕이 된 일도 있었느니라. 그러나 여래는 '부귀영화도 오래 지속할 수 없는 것이요, 몸도 무상한 것인바, 오직 법만이 진실할 뿐이다. 그러니 법을 받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네.' 하고 왕위를 버린 채 오로지 수행만 하였느니라. 꾸사와띠는 이처럼 여래에게 숙연(宿緣)이 있는 곳이니라. 이곳에서 열반에 드는 것은 이 땅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자 함이니라."

전생인연이 있는 곳의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은혜를 갚고자 쿠시나가라를 열반지로 선택하였다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쭌다의 집에 스투파 조성한 아쇼까왕

아쇼까왕이 쿠시나가라에 순례 와서 조성한 스투파는 두 개였다. 〈대당서역기〉를 보면 쿠시나가라 성안 동북쪽의 쭌다의 옛 집에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부처님이 열반에 든 장소에 조성한 스투파다. 현재 열반당 뒤에 있는 스투파가 바로 그것이다.

독이 든 버섯요리를 공양하여 부처님의 열반을 재촉한 쭌다 공양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얘기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다만, 부처님이 공양을 받기 전에 쭌다에게 설했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늘 깊이 새겨봐야 할 것 같아 소개해 본다.

음식을 베푸는 이는 남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며,
의복 베푸는 이는 남에게 아름다움 주는 사람이며,
탈것 베푸는 이는 남에게 편안함 주는 사람이며,
등불 베푸는 이는 남에게 밝은 눈 주는 사람이며,
집 베푸는 이는 남에게 모든 것을 주는 사람이며,
여래가르침 준 이는 남에게 윤회 끊어주는 사람이다.

보시, 즉 나누며 살라고 말씀하는 부처님의 절절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다. 아쇼까왕은 이와 같은 부처님의 설법에 감동하여 쭌다의 옛 집터에 스투파를 조성하지 않았을까 싶다.

뿐만 아니라 독이 든 버섯요리를 공양한 쭌다가 받게 될 비난을 걱정하는 부처님의 자애로운 모습도 잊히지 않는다.

부처님이 피가 섞인 설사를 계속하자 아난이 "쭌다의 공양으로 지난번처럼 병을 얻는다면 큰일입니다"라고 허둥대며 걱정하자, 부처님은 오히려 "여래의 열반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니 여래의 병을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거리며 쭌다에 대한 비난을 변호하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할 쭌다를 위로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답사일행은 쿠시나가라에 도착해 하루를 접는다.



열반상이 모셔진 열반당〈왼쪽〉과 아쇼까왕 스투파〈오른쪽〉. 아쇼까왕의 스투파나 석주가 없었더라면 부처님 성지도 인도 역사 저편으로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고 누웠던 사라나무. 그 밑으로 답사일행이 열반상에 모실 가사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독이 든 버섯 요리 공양하고도
시주자 걱정한 붓다의 자애로움
쿠시나가라에 조성된 열반상서
맨발로 설한 거룩한 역사 느껴

숙소는 미리 예약한 조그만 모텔 수준이다. 식사를 먼저 하고 짐을 풀기로 한다. 일행 모두가 조금은 지친 듯하다. 그러고 보니 마라톤을 뛴 것 같다. 파트나를 출발하여 바이샬리를 반환점 삼아 쿠시나가라까지 달려온 것이다.

부처님 성지 되살린 아쇼까왕 스투파 · 석주

다음날. 답사일행은 아침 일찍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장소로 이동한다. 안개가 물러서지 않을 것처럼 완고하다. 안개 속에서 그림자처럼 드러난 사라나무 숲 저편에 열반당이 희미하게 보인다. 우리 일행보다 먼저 온 순례자들이 있는 모양이다. 열반당 앞에 관리인 몇 명이 서성이고 있다.

누군가가 부처님을 덮을 가사를 빌려온다. 물론 상술이 개입된 것이지만 열반상에 우리 일행의 마음을 담아 가사를 씌워드리는 일도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일행 모두가 빌린 가사 끝을 잡고 열반당을 한 바퀴 돈다.

안개가 조금 걷히자 열반당 앞에 선 사라나무들이 조금씩 또렷하게 보인다. 흰색 표피와 잎 모양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상수리나무 같다. 부처님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자, 아난이여, 이 두 그루 사라나무 사이에 머리가 북쪽으로 되도록 자리를 준비하여라. 피곤하므로 누워서 쉬고 싶구나."

아난이 자리를 펴자 부처님은 머리를 북쪽에 두고 얼굴은 서쪽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자리에 붙인 채 두 발을 포개어 옆으로 누웠다. 사자가 누운 모습과 흡사했다. 그러자 사라나무가 갑자기 꽃을 피웠다.

"아난이여, 지금 이렇게 두 그루의 사라나무는 제 철도 아닌데 꽃을 피워 여래에게 공양하고 있구나. 허공에서는 만다라와 꽃이 내려오고 전단분향이 퍼져 오는구나. 그러나 아난이여, 이러한 일만이 여래를 존경하며 공양하는 것이 아니니라. 비구와 비구니, 남성과 여성 재가신자들이 진리로 인하여 올바르게 행동하며, 진리를 믿고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보다 깊이 여래를 존경하고 공양하는 것이 되느니라."

부처님이 열반을 앞두고 이적에 현혹되지 말라는 이성적인 말씀이다. 진리로 인하여 올바르게 행동하고 진리를 믿고 행동하는 자체가 부처님에게 올리는 참공양이라는 것이다. 단순히 진리를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진리를 실천하는 행동이 참다운 공양이라는 벼락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다.

열반당에 안에 들어 다시 부처님 열반상을 한 바퀴 돌며 참배한 뒤 들고 온 가사를 씌워드린다. 가사 밖으로 드러난 포개진 부처님의 맨발에 법륜이 새겨져 있다.

맨발로 걸으며 진리를 설하셨다는 표현이다. 전법을 위해 길 위를 맨발로 걸으셨던 부처님 일생의 거룩한 역사가 느껴진다. 부처님 얼굴에는 자애로운 미소가 어려 있다. 유한한 생(生)을 초월해버리는 영원한 미소다.

일행이 찾던 아쇼까왕 스투파는 열반당 바로 뒤에 있다. 7세기 중반에 현장이 보았던 그 자리다. 흙과 벽돌로 조성한 복발형(覆鉢形)이 아닌 돔형의 스투파다. 아쇼까왕이 조성한 스투파를 후대에 변형한 것이리라. 새삼 아쇼까왕의 순례가 고맙다. 아쇼까왕의 스투파나 석주가 없었더라면 부처님 성지도 인도 역사 저편으로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부처님 법체는 이곳에서 7일 동안 머문 뒤 말라족들에 의해 다비장으로 옮겨진다. 현재 라마브하르(Ramabhar) 스투파 자리다.

원래는 말라족들의 왕들이 대관식을 치르는 사당, 즉 보관사(寶冠寺 혹은 天冠寺)가 있었던 곳이라고 한다. 현장이 갔을 때 땅바닥이 황흑색이었으며 회탄(灰炭)이 섞여 있었다고 하니 부처님 열반 이후에도 중요인사들을 화장한 장소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다.

안개가 낀 이른 아침인데도 순례자들이 찾아와 부처님을 상징하고 있는 스투파를 참배하고 있다. 스투파 옆에는 공작 야자수들이 참선을 하듯 꼿꼿한 자세로 서 있다. 마치 부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화현한 듯한 모습이다. 생과 사를 초월하는 스승과 제자들의 아름다운 풍경이다. 진리의 세계에서는 생사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진다.



글=정찬주 · 사진=아일선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新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삼환양초에서는 법당에서 부처님께 초 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법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불자님들의 마음을 담아 법당에서 1인1등 연꽃밀납양초로 초 장엄을 할 수 있습니다.



•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제조-삼환양초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강화사자밭약쑥양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약쑥초 90cm ×90㎝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34㎝ ③ 약쑥초 돈타레 5.6∮×27㎝
④ 약쑥초 밀대 4.7∮×25㎝ ⑤ 약쑥초 1호 5.9∮×18㎝ ⑥ 약쑥초 2호 5.9∮×14㎝
⑦ 약쑥초 3호 4.7∮×13㎝ ⑧ 약쑥초 4호 4.7∮×10㎝ ⑨ 약쑥초 4호 반야심경 4.7∮×10㎝
⑩ 약쑥초 3호 반야심경 4.7∮×13㎝ ⑪ 약쑥초 2호 반야심경 5.9∮×14㎝ ⑫ 약쑥초 1호 반야심경 5.9∮×18㎝
⑬ 약쑥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한봉밀납양초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①

① 밀납초 90cm ×90㎝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34㎝ ③ 밀납초 돈타레 5.6∮×27㎝
④ 밀납초 밀대 4.7∮×25㎝ ⑤ 밀납초 1호 5.9∮×18㎝ ⑥ 밀납초 2호 5.9∮×14㎝
⑦ 밀납초 3호 4.7∮×13㎝ ⑧ 밀납초 4호 4.7∮×10㎝ ⑨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10㎝
⑩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13㎝ ⑪ 밀납초 2호 반야심경 5.9∮×14㎝ ⑫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18㎝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야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레 전사지(반야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야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New 꽃과 나비

원기둥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북경 '798 예술거리'는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특구다. 군수공장을 개조한 거리에는 특유의 예술품들이 설치돼있다.

고판화 활용한 소통 인쇄예술 역사 이을 비결

인쇄 문화의 꽃 - 판화의 원류를 찾아 ⑨

한국고판화학회 제1차 해외 학술답사

판자웬 고완시장 고미술 관광 필수코스

10월 한·중 고판화 학술대회 개최

'북경 798거리', 창작과 관광 하나돼

하북성 무강 연화박물관을 방문하고 자정 늦게 북경 오웬 호텔에 도착해 여장을 풀었다. 여기에 여장을 푼 이유는 답사 일정 중 꼭 가야했던 수도박물관이 맞은편에 있어서 였지만, 한편 그 옆에 세계 최대 벼룩시장인 판자웬 고완 시장이 열려서다.

판자웬 고완 시장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새벽 4시에 개장되는 곳으로 중국 전국에서 고미술품 상인들이 모여 드는 곳이며, 고미술품에 관심이 많은 세계인들이 모여드는 북경 관광의 필수코스가 된 곳이다.

고판화학회 회원 중 수집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아 새벽부터 채비를 꾸렸다. 일요일 개장 시간에 맞춰 호텔에서 두 블록 떨어진 시장 정문으로 갔다. 현장에 도착하니 여전히 상인과 손님들로 북적이기는 했으나, 예전 같은 활기는 없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제 중국에서도 고미술품이 고갈되고 있다는 소문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증거로 생각된다.

실제 세계 토픽 뉴스에 등장하듯 판자웬 시장에서 산 고미술품이 어마 어마한 진품으로 확인돼 횡재했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 전 사라졌고 이제는 공예품을 싸게 파는 이미테이션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수집가들에게는 고물 더미에서 고미술 진품을 발굴해 내는 광산이 하나 사라져 버린 느낌이다.

우리 일행은 새벽부터 보물찾기를 위해 동대문운동장 크기의 서너 배가 될 만한 판자웬 시장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 판자웬 시장은 여러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 사방이 뚫렸지만 지붕으로 둘러쳐져 있는 곳 중에 위쪽에는 주로 고미술품들이 모여 있고, 아래쪽으로 신작 공예품들이 판매된다.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은 상설시장이 열리며, 2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중심 건물 1층은 가구가 2층 전문 수집가를 위한 미술품들이 판매된다.

고판화와 관련 있는 전문매장이 있는 2층 마니아 코너에서 추수가 끝난 논두렁에서 이삭 줍는 심정으로 작은 눈을 부릅뜨고 유물을 찾아 다녔지만 쉽게 가져올 수는 없었다. 고판화와 관련된 좋은 작품을 발견되면, 그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때문이다.

이날도 두 점의 좋은 작품을 만났다. 천진 양류청에서 청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연화판화와 〈무량수경〉에 묘사된 지옥세계를 삽화로 만든 대형 판화가 눈에 들어왔으나 값이 한국 돈으로 천만 원을 호가했다. 결국 이날은 두 작품을 사진에 담아오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했다.

고판화 관련 유물 수집은 1996년 중국에서부터 시작됐으며, 처음에는 고판화 관련 목판이 우리나라 돈으로 1만 원정도 였다. 하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최소 1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을 상회하니 그 가치가 매우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중국과의 국제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이 중국보다 나은 위치에서 교류 했을 때가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시절 등 몇 차례 되지 않는다. 이후 중국이 우리나라와 국교를 맺은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한 지금도 이에 포함되는 시간이 아닌가 싶다.

고판화박물관도 이 시점을 중심으로 중국 유물을 수집했고 중국 고판화 작품 중 현지에도 없는 귀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중국 고판화 관련 자료 소장 처로 세계적으로 손꼽는 곳이 됐다.

199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중국을 압도했던 20여 년간의 시절 인연도 한몫했다. 지금도 중국 고판화관련 학자들과 소장자들과의 인연을 더욱 깊이 있게 쌓아나아갈 때 좋은 열매로 승화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다가오는 10월 중국 관련 학자들을 초청해 한·중 고판화학술대회를 개최하기로한 것도 그런 이유다.

판자웬 고완 시장을 뒤로하고 귀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린 곳은 '798예술 거리'다. 2010년에 들렸을 때는 거리 초상화가가 그려주는 그림에 심취해 거리를 자세히 탐방하지 못해 아쉬웠다. 다시 와보니 사진으로 보이던 거리만이 아니라 골목 구석구석 마다 예술적인 감각으로 이뤄진 공예품과 다양한 상품들이 즐비했다. 예술 서적만 판매하는 대형 서적들과 다양한 전시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한 특색있는 갤러리들도 늘어서 있다. 거리의 노점상도 먹거리뿐만 아니라, 예술 서적을 덤핑으로 판매하는 노점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그 만큼 이곳이 문화예술로 특화된 거리이며, 관광지로도 자리매김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실감했다.

'798예술구'는 원래 군수 산업 기지로 '798' 이라는 명칭은 산업 기지 내의 한 공장의 번호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냉전이 끝난 이후 무기 공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70% 이상의 공장이 생산을 중단했기 때문에 임대료가 싼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주머니가 가벼운 예술가들이 하나 둘씩 모여 빈 공장을 수리하고 인테리어를 하며 작품 활동을 펼치면서 적막하던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고 한다.

값싼 임대료 덕분에 예술인들이 몰리고 카페, 갤러리 등이 들어오면서 798예술구는 공장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젊은이들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60만 ㎡의 넓은 부지에 전문화랑, 갤러리, 카페 등으로 개조했다. 798거리를 둘러보면서 현대에서는 문화와 관광이 융합될 때 그 시너지 효과가 크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폐교를 개조해서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으로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은 종종 볼 수 있지만, 북경의 798거리와 같이 창작과 관광이 하나가 되는 경우는 없다. 이제는 문화 예술이 창작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창작자와 이용자가 공유하고 소통할 때 진정한 문화예술의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문화의 큰 틀 속에서 보면 박물관의 역할이나 학문을 연구하는 학회의 역할도 이용자들과 소통되지 못한다면 이름만 있는 박물관이나 학회가 될 수밖에 없다. 고판화학회도 고판화 관련 학자들이 모인 연구단체이지만, 고판화를 활용해 창의적인 일하고자하는 모든 이들과 소통될 때 '인쇄문화의 꽃' 고판화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판화학회의 4박 5일의 제1차 해외 답사의 모든 일정을 마치면서 고판화가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국가 성장 동력의 주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끝〉

글=한선학 고판화박물관장
사진제공=황진, 정찬민, 고판화박물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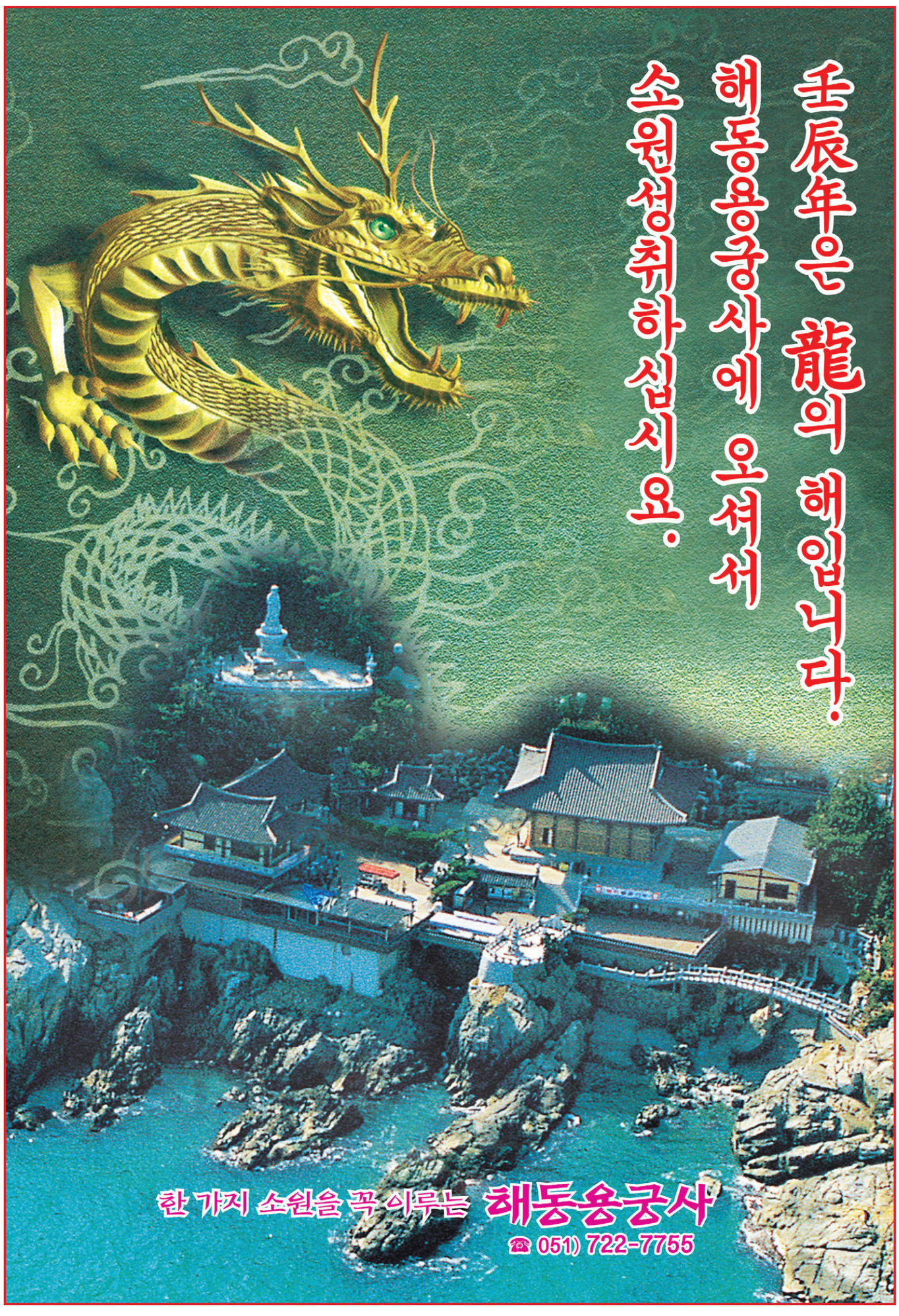
'798예술거리'에 설치된 조각상. 사회주의 예술의 단면을 느낄 수 있다.



세계최대 벼룩시장인 판자웬 시장. 중국 전역의 고미술 상품이 모인다.



수많은 서적과 유물들이 판자웬 시장 상점을 채우고 있다.



한 빛이 만상 삼키니 다시 해가 떠오르다

경허 스님 수행 일화

㉛북녘에서의 마지막 유행

을사조약의 올가미가 씌워지던 해(1905년) 경허 스님은 북녘으로 발길을 돌린 뒤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다. 머리를 기르고 박난주(朴蘭洲)라고 이름지었다. 경허 스님이 왜 삼수갑산으로 몸을 숨겼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는다.

경허 스님의 유발은 환속이 아니었다. 다만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기 위한 행위다. 선은 형상으로 성(聖)과 속(俗)을 가르지 않는다. 깨달음만을 원칙으로 삼고 있을 뿐이다.

삼수갑산에서 경허 스님의 행적은 재가제자로 삼은 김탁 등에 의해 수덕사에 전해졌다. 김탁은 상하이(上海) 임시정부 발족을 위한 국민회의 국민대표 250인 중 한명에 포함 될 정도로 평생을 조국광복에 헌신했다.

경허 스님은 김탁의 집에서 가족처럼 허물없이 지냈다. 그러나 김탁에게 조차 경허 스님은 제 전력을 밝히지 않았다. 아니 밝힐 필요가 없었는지 모른다. 깊은 학식과 범상치 않은 행동거지, 눈빛까지도 유생 박난주가 보통 사람이 아님은 조금만 눈여겨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김탁도 그 주위에 몰려드는 사람도 경허의 전력에 대해 과거를 캐묻는 사람은 없었다.

김탁의 집에 머물던 경허는 얼마 지나지 않아 갑산으로 옮겨 도하리라는 작은 마을에 거처를 정했다. 거처를 정한 후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 그때 마침 경허 스님을 찾아 북쪽을 돌던 수월 스님이 이 소식을 듣게 됐다.

박난주라는 떠돌이 유생의 기이한 행적과 범상치 않은 모습은 강계, 갑산을 비롯해 혜산, 풍산까지 널리 퍼져 있었다. 수월 스님은 김탁의 아내 박씨 부인의 안내로 도하리 글방을 찾았다.

서당에 도착해 섬돌 위에 가지런히 놓인 짚신을 보자 수월 스님은 스승 경허 스님의 짚신임을 알아보고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스님, 스님, 안에 계시옵니까?"

그러나 안에서는 기척이 없었다.

"스님, 스님, 저 수월입니다."

"난 그런 사람 모르오. 사람을 잘못 알았소이다."

그러나 경허 스님은 끝내 방문을 열어 제자 수월 스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수월 스님은 스승 경허 스님의 뜻을 알고 이를 받들기로 했다. 수월 스님은 몇 마디 말로도 경허 스님의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음을 알았다. 열반이 머지않았음을 짐작한 수월 스님은 경허 스님을 위해 짚신을 한 켤레 삼아놓은 후 삼배했다.

'모르오'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 천릿길을 달려온 수월 스님에게 '모르오'라는 그 한마디를 일러준 경허 스님. 스님은 그 한마디로 제자가 가야 할 길을 바로 일러줬다.

삼수갑산으로 몸 숨겨
유생 박난주로 글 가르치며
겉모습 다른 선사 풍모 여전
열반에 둥그런 원 남겨

스승 경허 스님으로 부터 짚신 삼는 법을 배워 간 도로 건너간 수월 스님은 당시 기구한 상황에 처해 있던 동포들에게 짚신과 주먹밥으로 보살행을 행했다.

경허 스님의 몸은 날로 쇠약해지고 있었다. 다만 두 눈의 광채가 병색과 나이를 잊게 했다. 1911년 경허 스님은 섣달 그믐날 홀로 서당에 앉아 인생무상과 노년의 고독을 노래했다. '섣달 그믐날 밤(際夕)'이란 시다.

天緖暗懷詎以言 山深雪冷一書幹
천 갈래 쌓이는 회포 어찌 말로 다 하랴
산은 깊고 눈은 차가운데 쓸쓸한 글방일세.
去歲淸明江界邑 今年除夕甲山村
지난해 청명은 강계읍에서 보냈는데,
올해 섣달그믐은 갑산 마을에서 맞는구나.
俄忽鄕關先入夢 不期旅?暫忘痕
홀연히 고향에는 꿈속에서나 가보았는데
기약도 없는 나그네의 시름 잠시 잊어볼이거나.
窓燈耿耿喧 佇聽隣溪幾寄門
창 앞에 등불이 빛나고 사방이 고요한데
이웃집 닭 우는 소리에 쓸쓸히 문에 기대네.

유생 박난주로 강계, 갑산의 낯선 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지도 아홉 해가 지났다. 1912년 4월 하순 어느 날. 경허 스님은 글방으로 찾아온 김탁과 마주앉았다. 경허 스님은 자신이 쓰고 있던 담뱃대와 쌈지를 가리켰다.

"여보게 담여, 내가 죽거든 이 담뱃대와 쌈지를 함께 묻어주시오."

"그 담뱃대와 쌈지가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까?"

"훗날 이 담뱃대와 쌈지를 찾는 사람이 있을 것이오."

그 담뱃대와 쌈지는 8년 전 천장암에서 만공 스님에게 전법계를 주며 후래불법을 부촉하고 북녘으로 향할 때 만공 스님이 경허 스님에게 올린 선물이었다.

경허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것이다. 그 달 어느 날 집 안팎의 잡초를 말끔히 정리한 경허 스님은 홀연 그 자리에 누웠다. 마을 사람들의 급전을 받고 김탁이 달려왔다. 벽 쪽으로 누워있는 경허 스님은 간혹 어깨만을 들썩였다. 문득 스님이 붓과 먹을 달라고 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있던 경허 스님은 힘차게 붓을 내리찍었다. 동그라미, 일원상이었다. 이어 힘을 다해 글을 쓰고 붓을 내던지고 숨을 거뒀다.

心月孤圓 光呑萬象
光境俱忘 復是何物
마음달 홀로 둥글어
그 빛 만상을 삼켰어라
빛과 경계 다 공한데
또다시 이 무슨 물건이리오.

1913년 4월 25일 세수 64세, 승랍 56세 때였다. 곧 날이 밝으며 붉은 해가 솟아올랐다.

경허 스님이 입적한 지 1년 뒤 1913년 여름 어느 날. 스님의 입적을 알리는 수월 스님의 서신이 수법제자 혜월과 만공 스님이 머물고 있던 예산 정혜사에 도착했다. 만공과 혜월 스님은 곧바로 행장을 꾸려 갑산으로 출발했다.

갑산 옹이방 도화동 글방에 도착해 수소문 끝에 김탁을 만났다. 김탁이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유품을 본 순간 틀림없이 스승 경허 스님임을 확인했다. 그리고 나서 난덕산에 있는 경허 무덤을 찾아 봉분을 무너뜨리고 땅을 파 관을 꺼냈다. 관 속에서 쌈지가 나와 경허의 시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공과 혜월 스님은 경허의 시신을 화장하는 다비식을 거행했다. 그리고 스승 경허 스님을 기리며 열반을 추모하는 시 한 수를 읊었다.

착함은 부처를 지나고 악함은 호랑이를 지나던
경허선사여
천화하여 어느 곳으로 향하셨는가
술에 취해 꽃 같은 얼굴로 누워 계시네.



그림 · 박구원

구성=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봉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다례" 행

일 시 : **불기 2556(2012)년 6월 14일(음 4/25) 목요일 오후 2시**
장 소 : **조계사**
문의처 :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회 ☏ 02)2198-5388**

■ 다례 봉행위원회

증 명 **종정예하 진제 대종사 법전 대종사**

고 문 종산 지혜 밀운 초우 고산 도문 지종 명선 월서 혜승 현해 고우 법흥 무진장 종우 월탄 인환 정관 암도 근일 세민 정련 지성 보성

문도대표 설정

봉행위원장 총무원장 **자승** 종사

봉행부위원장 보선 법등 현응 지원

봉 행 위 원

정호 우송 정념 현조 원혜 성웅 성문 돈관 성타 선각 성조
수불 도명 호성 원행 시몽 종삼 무상 범각 성효 법만 정수
자광 석원 고우 지환 무여 혜국 종진 덕민 동주

자 문 위 원

원융 철산 철산 능담 서강 적명 설당 의정 추일 원인 불산
황로 노옹 지심 정휴 종상 혜담 보원 정안 세영 혜자 정현
도현 태효 효웅 성문

지 도 위 원

태연 종성 정인 성직 성월 웅산 적천 삼혜 청원 원경 견진
법보 장명 현근 활중 장적 덕조 정문 운성 경성 심우 제정
종호 원정 무관 정오 오심 종선 자현 성우 원혜 만당 일문
영관 진화 원경 법정 함결 덕수 도정 경우 초격 일관 지홍
각일 무애 대오 혜일 각림 향적 법안 성행 정도 장윤 원범
종민 범해 정산 영배 혜림 본해 일운 상화 상덕 일진 탁연
계환 지홍 지성 정운 구과 허운 지산 몽산 경선 재원 종성
평상 도완 보경 진오 덕문 탄원 도연 승언 운달 범여 원오
삼묵 선문 자현 덕관 일초 범산 주혜 법준 원일 동산 현종
현민

추진위원장 지운

추 진 위 원

지현 능도 일감 진명 법광 정념 심경 효광 흥선 법인 송묵
법상 태성 도법 법진 도문 정묵 우송 현전 법정 법안 법찬
옹산 혜안 수경 응관 법룡 도신 삼오 자명 금산 진원 자인
월송

집행위원장 주경

집행부위원장 우봉

집 행 위 원

현담 도견 현담 수진 묘장 탄고 무관 본오 가섭 석중 남전
노휴 혜안 효성 지오 덕원 정경 선본 동준 능혜 정암 수암
정범 허정 진광 정오

재가추진위원

김의정 구자선 박윤흔 엄상호 이준 백창기 김성림 손안식
김대욱 김명숙 김화남 노춘배 신명 윤원호 윤천수 이기흥
이연숙 이춘호 임장수 정월자 김형남 김종욱 허경만 김응철
김규범 이송자 황채운 구본일 성기홍

진 행 위 원

대웅 종학 청운 서원 성화 낙운 경보 보정 성우 범신 육통
원일 청룡 명정 경학 혜찬 동덕 무여 강민 정호 보성 혜은
정준 성산 무구 청우 흥법 현우 혜연 초운 도문 선광 선오
관공 정운 지현 명선 종실 법경 지영 청화 도영 종식 우엽
현담 도한 정호 현암 수법 묘정 인벽 밀본 견신 도원 용운
원우 명업 국전 청안 현행 묘행 현명 광조 지철 승철 선혜
효명 진우 자홍 법륜 원경 지성 도묵 법탄 현적 영도 성종
대일

실 행 위 원

효탄 영덕 곽호일 한상길 이인혜 이상균 김용환 정성운 이정란

봉 사 위 원

제7교구신도회(회장 이종호) 수덕사 신도회(회장 박숙자)
수덕사 합창단(회장 최병희) 수덕사 봉사단 보현회(회장 이신숙)
수덕사 선다회(회장 민진)선 수덕사 수사모(회장 이종진)
수덕사 불교대 동문회(회장 조일형)

이상 〈무순〉

◆ 주최 :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다례 봉행위원회 · 대한불교 조계종 덕숭총림 수덕사 ◆ 주관 :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회 ◆ 후원 :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나의 서원 나의 신행 〈11〉

“동정 받는 장애인 보다 세상과 발맞춰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동한 이사장



이동한 이사장은 … 1951년 제주 출생 제주대 경영학 박사 탐라대 경영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석사 동국대 행정대학원 수료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춘강 대표이사 메이즈랜드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고 있다.

“장애인이라고 특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배고프다고 빵만 주면 자립 할 수가 없어요. 기술을 통해 스스로 설 수 있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장애인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갖추어야 해요. 저의 서원은 장애인들이 당당히 자기 실력을 쌓아 세상과 발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생구제의 원을 세우고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의 뜻을 되새기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동한(62세, 법명 춘강)사회복지법인 춘강 이사장은 지난 6월 1일 제 22회 호암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했다. 오랜 시간 장애인 복지에 매진하며 보시행을 실천한 그의 서원에 세상도 감동한 것이다. 이 이사장은 지난 1987년 11월 사회복지법인 춘강을 설립해 사회복지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본인 역시 2세 때 앓은 소아마비로 2급 중증장애인이지만 이웃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은 육체적 장애마저 무색하게 했다.

장애인도 능력 키워 자립 기반 마련해야

“저는 장애를 가졌지만 다행히 사업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세상과 격리된 채 살아가는 것이 늘 안타까웠지요. 그들을 돕고 싶었어요. 하지만 막연히 돕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산 복지 경제 복지 모두가 이뤄져야 해요. 장애인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제 사명이라 생각했어요”

그는 장애인복지관에 작업 재활 시설과 더불어 작업장을 만들게 된다. “중증장애인이나 집에서 돌봐줄 수 없는 장애인들을 제외하고 작업 능력을 갖춘 장애인 1천여명을 고용하면 생산성 있는 기업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들이 재활 시설을 통해 신체적 어려움을 조금씩 극복하고 또 기술을 익혀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 좋을 것이라 생각 했어요”

이 이사장은 이후 장애인들을 고용해 직업 훈련을 시키고 다양한 사업에 도전한다. 세탁 공장, 창호 공장, 피혁 · 귀공속 · 목 공예 칼라 믹스 등의 사업을 시도하며 생산성 있는 제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가 펼치는 모든 사업에 있어 목표는 하나였다. 장애인이 단순히 제품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품 그 자체로 인정받는 회사를 만들고 싶었다.

“당시 장애인이 만드는 제품이라고 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이 안좋았어요. 조잡한 물건 만들어서 싸게 팔며 사람들 동정심에 호소한다는 인식이 강했죠. 저는 품질 향상을 가장 우선으로 했지요. 장애인이라서 팔아준다 그런 말 듣기 싫었어요. 정말 제품이 좋아서 팔아준다는 말을 듣고 싶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했어요. 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게끔 배려했죠”

물론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이룩한 사업들은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꾸준한 노력 끝에 피혁 공예 사업은 6만불 수출이라는 성과를 낳기도 했다. 그리고 춘강은 장애인 고용개발의 모델이 되었다. 이런 그의 성과를 인정받아 춘강은 2002년 월드컵 당시 유망 중소기업 중 하나로 선정됐다. “사회복지법인이 만든 기업에서 이런 성과를 낸 것은 최초일 겁니다. 춘강은 장애인 고용시설의 좋은 모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죠”

사회사업가 어머니 오태인 여사를 본받다

그가 이렇게 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늘 이웃의 고통을 함께했던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어머니 오태인 여사는 제주도에서 유명한 사회사업가였다. “어머니는 배고픈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면 발벗고 나섰어요. 제주도 바닥에서 우리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또 베풀었죠. 제주도민들에게 수여되는 만덕 봉사상, 제주도 적십자사 봉사 대상을 받을 정도로 지역에서 인정받던 분이셨어요. 잘 곳 없는 보부상들이 제일 먼저 들리는 집도 우리집이었죠. 먹을 것이 없어 찾아 오는 사람들에게도 된장 고추장 찬거리 등을 아낌 없이 나눠 주셨어요. 남을 돕는 일에는 팔을 걷어 부치셨죠. 그렇게 어머니는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원천이요 밑거름이셨던 분이에요”

소아마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체력장 참가 못해 희망 고교 ‘좌절’
이후 계량기사 자격증 취득 사업 매진

수익금으로 사회복지법인 춘강 설립
장애인들 재활과 직업 훈련에 ‘최선’
제 22회 호암상 사회봉사상 수상
국제빈곤구호사업에도 힘쓸 터

그의 어머니가 더 존경스러운 이유는 넉넉하지 않은 살림을 쪼개서 이웃들에게 베풀었다는 사실이다. “아버지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홀몸으로 포목상을 하며 6남매를 키워야 했는데 형편이 그리 넉넉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찾아오면 없는 살림에 밥을 차려주고 잠자리를 제공했죠.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늘 어머니를 닮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제 삶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꿋꿋한 어머니에게도 장애인 아들은 늘 가슴 아픈 현실 그 자체였다. 7살이 되어서야 겨우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는 아들의 장애가 자신 탓이라는 죄책감이 그녀 마음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비가 오는 날이면 온 몸에 흙탕물 범벅이 돼서 들어온 이 이사장을 붙들고 설움에 복받쳐 대성 통곡 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결심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자. 강인한 의지를 갖고 비장애인들과의 경쟁에서 지지 말자’ 늘 어머니를 존경해 마지않던 이 이사장은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위해 노력했다. 공부도 열심히 했고 많은 책을 읽으며 모범생이 됐다. 어머니가 우울해 보이는 날은 회심곡(부모은중경)을 불러주며 그녀의 마음을 풀어주었다.

장애인에게 냉혹했던 세상을 만나다

이렇게 어머니의 따뜻한 보호를 받던 그가 세상의 냉혹함을 알게 된 것은 고등학교 진학 과정에서다. “의대에 진학하고 싶어서 일단 고등학교를 서울로 가보자고 마음 먹었어요. 당시 보성고로 입학 시험을 치렀는데 체력장 점수가 30점이 포함돼 있는 거에요. 저는 장애 때문에 체력장을 치를 수 없으니까 0점 처리가 됐지요. 당연히 보성고는 떨어졌어요. 그때 세상이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냉혹한지를 깨달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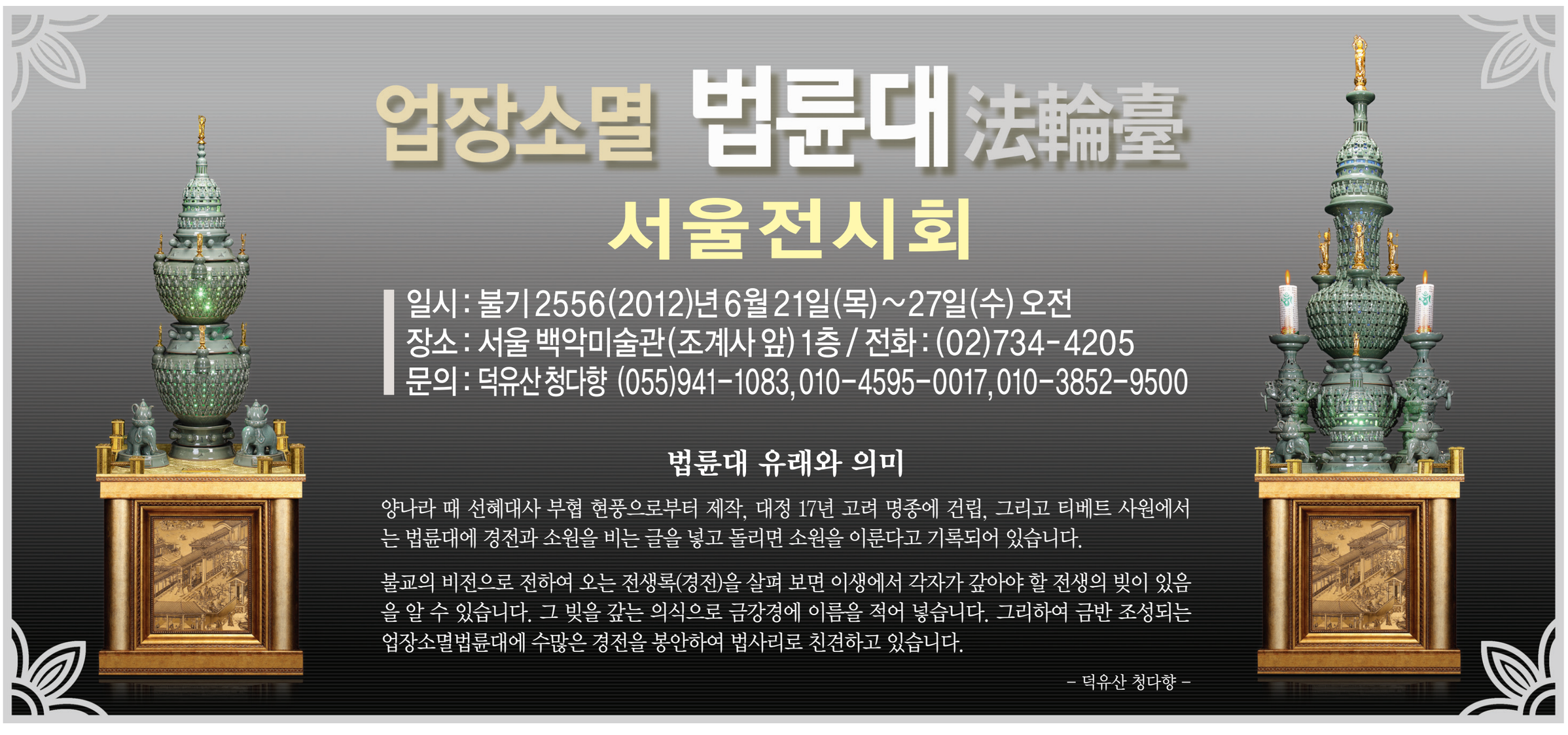
이후 이 이사장은 고향인 제주의 학교로 진학하며 좀더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시작했고 고민 끝에 기술 시험에 매달리게 된다. 그는 제주도 계량기사 자격증 1호를 취득하고 더불어 상수도 시공기술 자격증도 딴다. 제주도서 최초 계량기 사업을 시작해 사업에도 성공하게 된다. 또한 83년에는 조경면허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는데 이 또한 제주도 조경면호 1호로 인정받으며 조경사업에도 뛰어드는 발판이 됐다.

이렇게 잇따라 사업에 성공하면서 그는 복지 사업을 일으키는 발판을 마련한다. 이후 더불어 살며 이웃과 나누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온 이 이사장은 장애인복지 전문 법인인 춘강을 설립해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 제주춘강의원 등을 개원해 제주지역 장애인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과 한국장애인재활병의원협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의회장과 제주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을 맡고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늘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복지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88올림픽을 기점으로 복지관 건립이 활성화 되면서 본격적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생각보다 일찍 기회가 찾아온거죠. 늘 장애인들과 더불어 가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나를 지켜주는 기도의 힘

그의 이런 성과 뒤에는 중생의 고통을 함께하겠다는 기도의 힘이 있었다. 그의 기도는 신실한 불자로 늘 기도하며 남을 돕던 어머니의 삶을 본받은 것이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은 조석으로 염불하는 모습이었죠. 해가 뜨면 일광보살님께 달이 뜨면 원공 보살님께 부엌에 가면 조왕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가 생활화된 분이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불교를 공부했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리고 어머니가 그랬



당당히 살도록 돕고 싶었죠”

듯이 보살도를 실천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불자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이런 어머니의 원력을 본받아 춘강복지법인에 춘강정사를 설립하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늘 기도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 직원들도 이 이사장의 하루가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마무리한다고 말할 정도로 그의 기도는 절실하다.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랐으니 저도 조석으로 집에서 또 직장에서 불공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제 삶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집을 비우는 날에는 아내나 자녀들이 대신 기도를 하죠.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 기도가 오늘의 저와 저희 복지법인을 있게 한 원동력입니다”

늘 손님들로 북적였던 그의 집에는 스님들도 자주 들러 법문을 들려주곤 했다고 한다.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자주 들리던 스님들이 많았어요. 당시 스님들이 한 자락 씩 들려준 법문들이 다 인생의 밑거름이 됐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법문 중 하나가 어느 스님이 해주신 의상대사 말씀이었어요. ‘중생은 자기 그릇만큼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은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됐어요. 상황을 원망하기 보다는 제 자신을 긍정하고 세상을 도울 수 있는 그릇이 되고 싶다는 서원을 했죠”



〈사진제공=호암재단〉
이동한 이사장(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은 지난 6월 1일 호암재단에서 주최하는 제 22회 호암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했다.

이웃들에게 늘 보시하는
신심 깊은 어머니 본받아
복지관 내 춘강정사 설립
조석으로 기도하는 삶 실천해

‘해외 구호사업’의 서원을 세우다

이런 그의 서원은 사업과도 연관성을 맺게 된다. 지난해 4월 개원한 세계 최대 규모 미로공원 ‘메이즈랜드’가 그 대표적인 예다. 수익금은 국제빈곤아동 구호사업으로 회향하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3분의 1을 장애인, 이주노동자, 은퇴 노인 등으로 구성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메이즈랜드의 돌 미로 바람 미로 등은 온갖 번뇌와 고통으로 살아가며 갈림길에 서 있는 인간의 여정을 표현했죠. 아직은 초기 투자비용 때문에 적자 상태지만 앞으로 생기는 수익금은 국제빈곤구호사업으로 사용할 겁니다”

이제 그는 국내를 넘어 해외 장애인들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원을 세운 것이다. 그래서 이번 6월 1일 수상한 호암상 수상금 3억원 전액 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전쟁 등으로 팔과 다리를 잃고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는 동남아 장애인들에게 의족과 의수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남아 국가에 우리 복지관 모델을 전파하고 싶어요. 그들나라는 아직 복지관 개념이 뚜렷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복지관 문화는 그들에게는 훌륭한 롤모델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국내를 넘어 국외에서도 장애인들에게 무외시(無畏施)를 실천하는 불자로 여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한편, 이 이사장은 ▷한국사회복지법인대표자협회장▷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장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대의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포상 경력으로는 ▷국민훈장 석류장 제16730호 ▷국민포장 제4149호 ▷제주시민상 ▷ 적십자 박애장 금장 등을 수여했다.

글=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참여한 이동한 이사장이 농협으로부터 수여받은 쌀을 푸드마켓에 전달하는 장면 〈사진제공=춘강〉


소외 이웃을 찾아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펼치고 있는 이동한 이사장 〈사진제공=춘강〉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함 성


동국대 명예교수

함성이 들린다. 3월의 독립만세 소리, 4월의 독재타도 함성, 5월의 민주화의 함성이 이 땅에 변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함성은 곧 변화요, 함성은 신천지를 의미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알게 되었다. 빼놓을 수 없는 6월의 함성도 들린다.

일전에 동작동을 지나게 되었다. 국립묘지 앞을 지나며 오른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 청춘에 간 용사의 영혼이 아른거린다. 낯선 산야에서 조국을 지키다 가신 영혼이 아니던가. 새가 절규한다. 쉼 없이 절규한다. 전선에 보낸 낭군을 영영 보지 못하게 되어 까막과부의 원혼이 새가 되어 백주에 저리 짖어 대는 것이 아닐까.

함성은 어느 시대나 장소에 국한 되지는 않는 듯 하다. 동토를 헤집고 맨 얼굴을 드러낸 복수초, 온 강토를 꽃동산으로 수놓은 개나리, 진달래가 지고 난 후 구절초 사이에 영산홍이 꽃이슬을 함초롬히 흠뻑 먹고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몇 일이 지나자 구절초 사이에 꽃부리가 전신을 떨구고 있는 것이다. 군자란이 꽃부리가 한꺼번에 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던데 영산홍이야말로 군자의 기상을 빼다 박아 놓은 듯 하다. 저런 피맺힌 절규가 어디에 있었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저렇게 온몸으로 절규하다가 핏빛으로 물들였을까. 그 이유를 알아 무엇하리. 그냥 온몸으로 항거한 야린 함성이 메아리가 되어 귓가에 맴돌고 있다. 그리고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연못에 살포시 앉은 송홧가루를 본다. 작은 물결이 일어도 이리저리 밀리며 온갖 형태를 그리고 있다. 그들의 깔색이란 무엇에 비견할 만할게 없는 듯 하다. 바닥이 깊은 깊드리라 한들 아무렇지 않다는 듯 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어느 때는 저들의 유희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문인끼리 모여 자기의 글재주를 겨루고 있는 백전장(白戰場) 같기도 하다. 연못 가운데 있다 해서 장원이 되고 밀려 송홧가루가 연못가에 버캐마냥 엉켜 있다하여 차상이니 차하로 꼽는 것 아니냐고 불평하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종족번식에 전념하고 있을 뿐이다. 신발에도 묻어나는 송홧가루에서 강한 집념을 엿볼수 있다.

요즘 도토리알 만한 솔방울이지만 성숙한 수솔방울 하나에서 십만 개까지의 꽃가루가 생긴다니 꽃가루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다.

바람에 날리는 풍매화 꽃가루는 직경이 0.01~0.06 밀리미터로 작고 소나무 꽃가루처럼 공기주머니를 가지고 있다. 바람이 분다는 것은 단순히 나뭇잎을 살랑거리게 하는 행위가 아니다. 소나무에 있어서 바람은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꽃가루를 작게 많이 만들어 날려도 기껏해야 한 두 개의 꽃가루가 암술에 도착하게 되니 말이다.

이슬람 여성들이 얼굴에 걸치는 검정 부르카가 저 노란색으로 바뀐다면 더욱 신선해 보일 것만 같다. 모든 것은 유행을 따르기 마련이고, 그 유행은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것임을 거역할 수 없는 일이다. 어느 싯점에 복고풍이 유행하게 되면 검정으로 바뀔지라도 말이다.

난초의 먼지 같은 씨도 이끼의 작은 홀씨도 양귀비의 작은 씨도 미풍만 불어도 날아간다. 중력의 힘에 비견할 바 아니지만 연약한 나뭇잎을 건드리고 지나가는 바람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바람은 소중한 생명체의 종족번식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난초가 돈이 된다고 가방을 메고 허겁지겁 산야를 누비며 난을 채취하러 다니는 사람을 더러 만나게 된다. 저렇게 이기심이 발동한 사람의 손을 타서 잘 자랄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선다. 사람의 힘으로 탈속한 자연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어미 난초, 새끼 난초가 느끼던 그 바람 말이다. 그들만이 속삭이고 그들만이

함성, 시대나 장소에 국한 안돼
난초향, 만인이 누리면 천복
의연한 이끼에서 삶 진면목 발견
주체성없는 삶은 ‘부평초’ 같아

웃을 수 있었던 그 밀어를 인간은 왜 앗아가는지. 이 강산에 난이 있으므로 그 향은 만인이 누릴 수 있는 천복(天福)이 된다. 그러나 나의 소유물로 했을 때 이기적인 극소수의 사람만의 것이 되고 마는 것이다.

도량에서 함성을 듣는다. 연못에서도 함성을 듣는다. 저 영글디 영근 바위틈 절벽에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소나무를 본다. 소의 천엽에 붙은 고들개마냥 풍상을 겪으며 버티어 낸 이끼를 본다. 인간은 인고의 세월을 말로 표현하고 있으나 그들은 온몸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철 잊은 함성이 아니런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숭고한 것이라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서서 드러내고 앉아 드러내지 않아도 낮게 누워서도 비굴하지 않고 누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도 의연하게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이끼의 모습에서 삶의 진면목이 무엇인지 조금은 터득하게 된다.

어느 선사의 ‘수처작주’란 가르침이 그들에게는 호사스러운 말일 뿐이다. 숨쉬고, 수분을 저장하고 내뿜는 일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주체성이 확립된 행위이다. 주체성이 없는 삶은 부평초와 같다 하겠다. 고귀한 인격도 스스로 저버리고 빵과 거래하는 삶은 빈축 받을 만 한 일이다.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교화,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법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 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받습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 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입시다!

사찰등록 !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

남·여 행자(예비스님) 모집

영적지도자 100인 중 달라이라마 1위

불교적 성향 인물 다수 선정

전세계 현존하는 인물 중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이는 과연 누굴까.

영국 왓킨스 북(Watkins Book)서 발행하는 잡지인 〈마인드 바디 스피릿 매거진(Mind Body Spirit Magazine)〉은 최근 현존 인물 중 영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선정 발표했다.

100인 가운데 불교적 성향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은 달라이라마(1위), 틱낫한(3위), 디팩 초프라(4위), 앤드류하비(33위), 페마 초드론(55위), 소걀 린포체(64위), 사트야나라얀 고엔카(86위), 존 카밧진(94위)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왓킨스 북이 발표한 100인의 선정 기준은 ▷현존하는 인물 ▷세계적으로 특별하면서도 영적으로 공헌을 한 인물 ▷구글에서 자주 검색됐으며 닐슨 데이터(Nielsen Data)에 자주 등장해 블로그서 조명 받은 인물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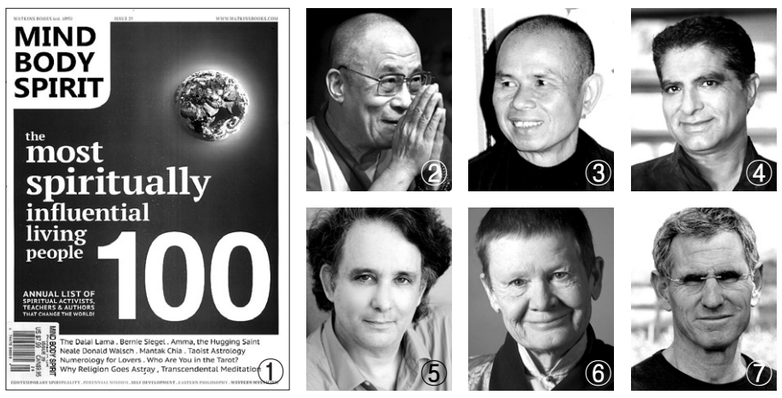
특히 디팩 초프라(Deepak Chopra)는 심신상관의학과 인간의 잠재력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자이자 영적 지도자다. 인도출신인 그는 하버드 의대서 공부하고 고대 인도의 전통 치유 과학인 아유르베다와 현대 의학을 접목해 '심신상관의학(MIND-BODY MEDICINE)' 이라는 분야를 창안하며 대체의학의 선두 주자가 됐다. 그는 〈사람의 아들 붓다〉 〈죽음 이후의 삶〉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다.

앤드류 하비(Andrew Harvey)는 인도출신의 영국인 명상 수행가이자 시인이며 작가다. 21세에 옥스퍼드 대학 역사상 최연소 교수로 임명된 그는 틀에 박힌 영국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25살에 인도로 돌아와 수행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저서 〈라다크에서 만난 부처〉에서 라다크에서 만난 스승 린포체(Thuksey Rinpoche)를 통해 얻게 된 영적 눈뜸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페마 초드론(Pema Chödrön)은 티베트 불교 최초로 금강승 수행을 마친 미국인으로 현재 서구인들을 위한 티베트 불교 사원 감포 아베이(Gampo Abbey)의 원장으로 재직중이다. '마음 전문가' 로 불리는 그는 세계 각지를 다니며 불교와 명상을 전파하고 있다.

소걀 린포체(Sogyal Rinpoche) 역시 티베트 불교의 핵심 지도자 가운데 한사람이다. 어린시절부터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비교종교학을 연구했다. 그는 일상의 체험과 붓다의 지혜를 연관지어 불교의 가르침에 함축된 진리를 생생히 일깨운다.

존 카밧진(Jon Kabat-Zinn)은 매사추세츠 의과대학 병원 스트레스 완화 클리닉의 설립자이자 감독자며, 동 대학의 예방 및 행동의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만성 통증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마음챙김 명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프로그램인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 MBSR)을 만들고 이를 널리 보급해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다. 그는 저서에서 숭산 · 틱낫한 스님으로부터 불교를 배운 바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①마인드 바디 스피릿 매거진이 선정한 영적지도자 100인 중에는 ②달라이라마 ③틱낫한 ④디팩초프라 ⑤앤드류하비 ⑥페마초드론 ⑦존카밧진 등 불교 수행자들이 포함돼있다.

지난해에도 같은 주제로 100인을 선정한 왓킨스 북은 "지난해 발표된 100인은 사람들에게 매우 반응이 좋았다. 이번 리스트 선정에서 우리는 500명 정도로 가능한 많은 후보자를 포함시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 목록은 우리에게 영적인 가이드 역할을 하고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많은 영감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왓킨스 〈마인드 바디 스피릿 매거진(Mind Body Spirit Magazine)〉은 1893년에 설립된 런던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서점인 왓킨스 북(Watkins Book)에서 발행하는 잡지로 영성, 밀교, 종교와 관련된 책을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다. 이 잡지는 달라이 라마를 칭송했다는 이유로 중국에서 판매 금지 처분을 당하기도 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생명 존엄성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SGI 다이사쿠 이케다 회장 제안… UN 리오 대회 주목

6월 6일 Soka Gakkai International (SGI) 불교협회의 다이사쿠 이케다(Daisaku Ikeda) 회장은 "지속가능한 국제 사회를 구축하는데 있어 개인과 지역사회의 권한 부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하는 제안서를 발표했다.

이 제안서에서는 6월 20일 브라질 리우데 자네이루에서 열리는 '리오+20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 회의(Rio+20 UN Conference)' 와 관련된 아이디어도 제시한다.

'지속가능한 국제 사회를 위해: 권한 부여와 리더십 학습(For a Sustainable Global Society: Learning for Empowerment and Leadership)' 이란 제목이 붙은 이 제안서는 교육을 핵심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이케다 회장은 2014년에 종료되는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 10년(Decade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DESD)을 열렬하게 지지했으며, 긍정적인 변화 주체를 도모하는데 초점을 맞춘 후계자 틀, 즉 2015년에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국제 사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변혁을 일으키려면 권한 부여 및 그것을 넘어 리더십을 제공해야 한다.

이케다 회장은 발전과 환경 보호 임무를 맡은 유엔 기관들의 원대한 개혁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하나의 통합된 "지속가능한 발전 기구"를 구축하기 위해서 유엔 개발 계획(UN Development Programme, UNDP)와 유엔 환경 계획(UN Environment Programme, UNEP) 및 이들과 관련된 기관들의 통합을 제안한다.

이케다 회장은 평생 학습과 실천을 위한 장으로서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전향적인 참여를 보여주는 사례로는 나무 심기, 재난 방지 노력, 지역 생산과 소비 강화, 재활용 홍보 및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 촉구 등이 있다.


이케다 회장(오른쪽)이 브라질에서 지속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공로로 현지인들에게 공로패를 받고 있다.

다이사쿠 이케다 회장은 불교 철학자, 저자 및 평화 구축자다. 그는 1970년대부터 평화 및 환경 보호와 관련된 대화에 참여하고, 이를 위한 제안서를 발표해왔다.

오종욱 편집위원

러 종교인, 16년간 14%↑

지난 16년 동안 러시아의 신앙인 수가 14% 증가했다. 러시아 여론조사기관 브치옴(VTSIOM)은 최근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기독교, 유대교, 불교, 이슬람교 등 신앙인이 1996년 57%에서 올해 71%로 증가했다고 지난 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5월 18~19일 러시아 전체 46개 지역 주민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서 주민 중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예배소에 간다고 응답한 사람은 7%, 가끔 간다고 표시한 사람은 30%, 간혹 간다고 답한 사람은 34%였다.

이 가운데 한 달에 한 번 이상 예배소에 간다고 응답한 사람이 7%, 가끔 간다고 답한 사람은 30%, 간혹 간다고 답한 사람은 34%였다. 1996년에는 이와 같은 항목에 대해 응답자가 각각 5%, 20%, 32%였다.

반면 예배소에 전혀 가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1996년 42%에서 올해 26%로 줄었다. 러시아는 국민의 75%가 정교회 신자로 기독교 계통인 동방정교회의 전통이 강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불교와 유대교, 이슬람교 등의 신자들이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아시아불교 섭렵한 화엄학의 대가

세계의 불교학자(20)

로버트 지멜로 美 노트르담대 교수



로버트 지멜로(Robert M. Gimello · 75) 美 노트르담대 교수는 세계 화엄학의 대가로 손꼽히는 학자다. 그는 선(禪), 천태, 법화, 정토 등 여러 종파의 불교뿐 아니라 인도 · 중국 · 한국 · 베트남 · 일본에 걸친 아시아국가의 불교를 섭렵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그는 제자들이 기독교 신학과 종교학 속에서 불교를 바라보는 관점을 갖도록 가르치고 있다.

지멜로 교수는 학부와 석사를 세튼홀대(Seton Hall University)에서 마쳤고, 1976년에 컬럼비아대에서 〈지엄(602-668)과 화엄불교의 기초〉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동 대학에서 3년간 중국불교를 가르친 후, 다트머스대학, 산타바바라의 캘리포니아대, 그리고 독일 하이델베르그대등 수많은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고, 아리조나대에서는 동아시아학부 학장, 인문학부 임시 부총장, 프랑스 이탈리아 학부 학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지멜로 교수가 신학 및 동아시아 언어 · 문화 연구 교수로 부임하고 있는 노트르담대는 미국에서 유명한 가톨릭 대학 중 하나다. 가톨릭대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동아시아와 그에 관련한 종교 학문은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던 이 대학은 지멜로 교수가 부임하면서 불교 학문의 중심지로서 아시아지역 학문과 종교 분야에서 명성을 쌓아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만큼 지멜로 교수는 서구권에서 인정받는 불교학자다. 1976년도 박사논문이 아직까지 화엄을 공부하는 수많은 학자들에게 인용돼오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의 명성을 알 수 있다.

"저는 비교신학과 불교간 대화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 대화를 통해 가톨릭 신학에 대한 뚜렷하고 분명한 견해를 갖고 싶습니다."

노트르담 대 부임 당시 인터뷰에서 지멜로 교수는 종교간 대화에 관심이 많다고 강조했다. 종교간 비교를 통해 불교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그의 생각 때문이다. 그 연장선상으로 수십년간 경전과 주석서 위주로 공부해오다 최근 불교와 기독교에서의 성상(聖像)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비교연구를 하기도 했다.

종교간 성상을 비교 연구한 그는 교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다.

"불교의 여러 가지 상(像)에 대한 연구는 주로 예술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영역이었습니다. 이들은 불교형상의 미적, 형식적 가치를 드러내는 데에 괄목할만한 가치있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종교적 요소를 드러내기 위한 연구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상들이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동방 기독교 정교와 같은 다른 종교의 전통을 주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학문적으로 정교하게 발전한 성상신학(聖像神學)이 도외시된 불교형상을 연구하는데 적용할 만한 언어나 관점을 불교학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비교연구를 통해 그는 동방정교의 성상 이론이 불교 성상에 있어 불교만의 독특한 의미를 얘기할 수 있게 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시험해 나가고 있다.

노트르담 대 부임 전 1999년부터 하버드대 방문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 지멜로

박사논문 많은 학자들 인용
가톨릭대에 불교학 싹 틔워
신학 · 불교 비교연구 관심

교수는 하버드에서 불교학을 양적 · 질적으로 높인 교수로 인정받고 있다. 당시 세계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의 수업을 듣기 위해 모였으며 매년 종교학과와 동양학과에 최소 2~3명의 학생들이 그의 밑에서 공부하기위해 들어왔다.

그의 명성은 한국에까지 소문나 2007년 조계종단과 한국불교학자들과 교류를 시작으로 고려대에서 중국불교학을, 서울대와 기타 대학에서도 관련학문을 가르치기도 했다.

당시 한국을 방문한 지멜로 교수는 한국불교학발전에 대해 제안을 하기도 했다.

"불교학은 수백명의 학자들이 미국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상당히 인기 있고 깊이를 갖춘 분야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불교전통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편입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한국불교대학과 불교 교단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또 한국불교학을 가르치는 교수직 자리가 미국의 주요 대학에 마련돼야 하고 한국불교를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기금이 제공돼야 합니다."

이나은 기자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국제붓다자비봉사단)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6월 추천선물

행운과 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 42수진언 그림 족자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고 서원을 이루게 됩니다.

대유불교 시리즈
① 옴! 그림으로 푼 천수경 ② 예언의 허와 실 ③ 꿈! 마음의 열쇠
④ 꿈과 마음의 비밀 ⑤ 마음의 달 1,2 ⑥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⑦ 42수진언 족자 ⑧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신간)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법 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그린, 레드』 사찰용(65x150cm) 100,000원
가정용(45x120cm) 70,000원

- 색상과 사이즈를 선택하세요.
- **특별증정** 족자 구입시 10,000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 한쪽 벽면을 장식할 수 있는 블라인드 (150x230cm) 제작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주시고
손 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卍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입문의 : 대유학당 **(02) 2249-5630**


42수진언 족자 (그린)

입금계좌 국민은행 807-21-0290-497 (예금주 :윤상철)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다양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daeyou.net
NAVER 대유학당 검색 네이버에 "대유학당"을 검색해 보세요.

사찰이미지 200% UP!

이제는 사찰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최고의 사찰이벤트와 만나십시오

사찰이벤트?

신도에게는 말씀의 감명을
비신도에게는 법(法)의 지혜를

法果 법과



법과란? (Buddha Cookie)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900년대 초에 처음 사용된 포춘쿠키는 쿠키 속 하나하나에 행운의 말 또는 운세가 적힌 쪽지(슬립지)가 들어있어 특별한 이벤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또한, 최고급 재료만을 사용하고 전자동 공정에 의해 생산되는 고급 식품입니다.

법과 이벤트(Event)

'법과(法果)' 속의 짧은 법구경 말씀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감명하고 진한 감동을 선물합니다.
'법과(法果)' 속의 메시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놀라운 힘이 있음이 연구를 통해 증명 되었습니다. 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사찰 홍보・이벤트는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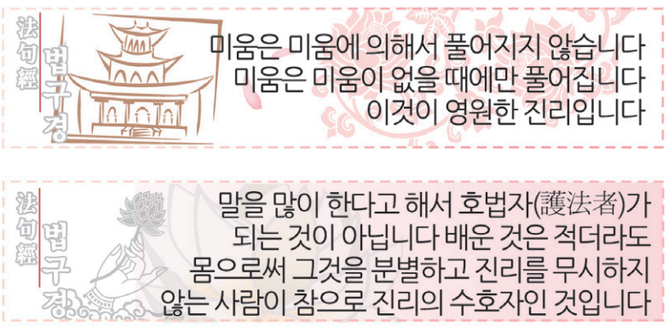
법과활용(Application)

많이 많은 사찰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지금" 경험하십시오.

앞면 – 사찰안내 또는 행사에 관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뒷면 –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법구경이 들어갑니다



※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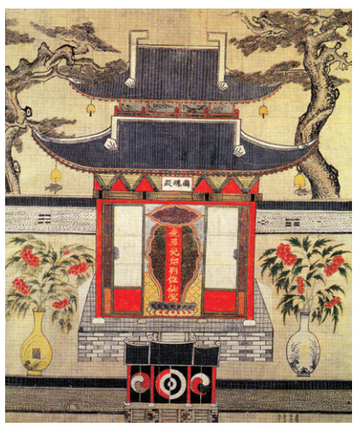
법과 문의
TEL : 02) 2004-8216
FAX : 02) 737-069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승가 화합과 전등의 사명 기억해야"

感慕如在圖(감모여재도) 소견(所見)


조선시대 유교사상을 표현한 '감모여재도'

감모여재도는 이름 그대로만 읽고 이해하려면 조금 무리가 가는 명칭이다. 감모여재(感慕如在)란 말은 사실 '사모하는 마음이 지극하면, 그 모습이 실재로 나타난다'는 뜻이다. 감모여재도는 원래 민화의 한 갈래로 들어가는 조선시대 특히 유교사상을 표현하는 그림이다.

대개의 경우 사당을 그리되 단아한 지붕에 잡상(雜像)이나 용두의 치미(雉尾)를 단정하게 그리고 서너 칸의 자그마한 집을 그린다. 그리고 그 안에 위패를 배치하고 바로 앞에 제사상을 펼쳐 놓은 형태가 주로 많은데 상에는 여러 가지 제수인 과일이나 제사도구인 향향합 촛대 술잔 꽃병 등을 그려넣는다.

그림의 형태는 대개 말아서 보관할 수 있도록 두루마리 형태로 놔두거나

사당과 제사상을 그려 넣어
조선시대 유교사상을 표현
사찰과 유사한 건물 보며
보조국사 지눌 부탁 떠올려

족자를 한다. 집안의 정갈한 곳에 모셔 놓았다가 명절이나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 앞에 걸어놓고 조상의 명복을 비는 방식이다. 이는 사당이 없는 가난한 선비들이나 멀리 여행을 나와서 제사를 지내는 경우에 많이 사용한다.

감모여재도의 다른 명칭은 사당도(祠堂圖)이다. 말 그대로 집을 그리므로 집이 주제가 되는 특이한 그림이다. 그 집 안에 조상의 영혼을 모시고 다시 그 영혼을 마치 살아있는 부모님을 모시듯이 제사를 올려 공양하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의 유훈(遺訓)을 받드는 그림이다.

감모여재도에 나오는 노송(老松)은 유서(由緖)깊은 집안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준다. 또 오동나무를 그리는 경우는 군자의 덕을 함께 보이며, 그 위에 달을 그려 차고, 기울어지는 달의 모습을 통해 조화와 융합, 재생 등을 보인다. 뜨락에 국화(菊花)를 그리는 경우는 무병장수(無病長壽)와 신비로운 영약(靈藥)으로 인식되는 국화를 통해 그 의(義)를 밝히고, 모란화분은 부귀옥당을 상징하여 음양의 기운을 묘사한다.

사당은 보통 주심포(柱心包) 양식에 약하게 배흘림이 있는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겹처마 팔작지붕을 얹는 것이 보통이다. 지붕 용마루 양쪽에는 용두치미를 두어 사악한 기운을 막고 처마의 곡선은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며 날렵한 모양새를 자랑한다.

또 전체적으로 단청을 칠해 아름다우면서도 정숙하고 화려한 모습을 지닌 집이다. 정확히 말하면, 사찰의 법당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지니는 것이 감모여재도에 나오는 사당의 모습이다. 그리하여 진실로 이미 돌아가신 부모를 사모하여 그 은덕을 기리면, 마치 금방이라도 위패를 모신 집 안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림이 감모여재도인 것이다.

요즘은 이 그림을 보면 간절히 그리워 만나고 싶은 분이 있다. 다름 아닌 보조국사 지눌 큰스님이다. 스님은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에서 후손인 우리 승려들이 반드시 승가의 화합과 전등(傳燈)의 사명을 잇도록 간절히 부탁하셨다.

특히 생각나는 구절은 부득양어가추(不得揚於家醜)하고, 단찬원문불사(但讚院門佛事)어다 라는 부분이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집안의 좋지 못한 일을 드러내지 말고, 다만 가람의 불사를 찬탄할지어다" 요즈음, 선배스님들의 활약을 보면서 더욱 더 생각나는 글귀이다. 매일 자고, 일어날 때마다 깎은 머리를 쓰다듬고 마음을 겸손히 하여 살아야겠다.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수륙재로 업보 푸는 비극적 사랑 노래

창작 뮤지컬 '카르마의 노래' 6월 14~15일 초연

지난해 공연된 뮤지컬 '원효'에 이어 불교를 모티브로 한 또 하나의 창작뮤지컬이 관객들을 찾는다. 불교의식 중 하나인 수륙재(水陸齋)가 대형 창작 뮤지컬 '카르마의 노래'로 탄생해 6월 14~15일 오후7시 30분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초연된다.

6월 12일 여수에서 개최된 세계불교도우의회 한국대회(WFB)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이번 뮤지컬은, 단 이틀만 공연되기 아쉬울 정도로 한국뮤지컬계의 최고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대거 참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카르마의 노래'는 수륙재를 통해 불교의 정신, 문화, 예술 등을 총망라해 선보인다. 수륙재는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영혼과 아귀(餓鬼)를 달래고 위로하기 위해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불교전통의 식이다.

공연에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를 볼 수 있는 여인 '서하'와 불의 정령 '갈마'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불교의 연기 · 윤회사상 등을 이야기한다. 이 둘은 전쟁 속에서 만나 이뤄질 수 없는 비극적인 사랑을 한다. '카르마(업)'라는 제목에서처럼, 다른 이의 업까지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서하'와 '갈마'는 자신들의 운명과 업보를 수륙재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한다.

이번 공연은 일반인들이 다소 이해하기 힘든 수륙재를 대중적인 뮤지컬로 승화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재밌게 알려 의미가 크다. 무대는 강렬하고 호소 짙은 음악을 바탕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꾸며질 예정이다. 공연은 전쟁과 수륙재를 바탕으로

최고 스태프와 배우들 대거 참여
3D그래픽 등 화려한 무대 선보여

전개돼, 3D그래픽 등 다양한 영상기술들이 화려하게 선보인다.

공연에는 2009년과 2007년 각각 '뮤지컬 어워드 남녀신인상'을 수상해 뮤지컬계의 기대주로 떠오르는 강태을과 이정미가 주인공을 맡았으며, 뮤지컬 '명성황후' 등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배우 이상현, 이필승 등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또 뮤지컬 '명성황후' '몽유도원도' 등을 제작한 윤상훈 연출가가 공동 연출로 참여했으며, 뮤지컬 '라디오 스타'로 뮤지컬 어워드 작곡상을 수상했던 허수현이 공연음악을 담당해 한층 기대를 모으고 있다.


WFB 한국대회를 기념해 만든 창작뮤지컬 '카르마의 노래'. 6월 14일 초연을 앞두고 출연진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용일 WFB 문화공연 총감독은 "공연은 그래픽 영상이 결합해 독특한 무대연출을 선보여 굉장히 인상적인 작품이 될 것"이라며 "관객들이 공연 후 '선업을 쌓을 것인가' '악업을 쌓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WFB 집행위원장 진옥 스님은 "뮤지컬을 통해 불교에서 말하는 전쟁과 평화 사랑 등을 이야기해 보고 싶었다"며 "이번 WFB 기간에 예술문화공연을 통해 한국불교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6월 16일까지 여수에서 열리는 WFB기간에는 ▷6월 12일 오후 4시 여수 흥국체육관 '불교합창제' ▷6월 12일 오후 7시 30분 여수 거북선 공원 '점등식 및 등 전시' ▷6월 13일 오후 7시 여수 디오션 호텔 그랜드볼룸 '소리 수행 범패 콘체르토' ▷6월 13일 오후 5시 30분 여수 흥국체육관 '천년의 보물 팔만대장경' 등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김석곤, 불화의 정통을 말하다

'佛 빛' 전 6월 13~19일까지

20년 넘게 불교미술작품 활동을 펼쳐온 김석곤 작가가 6월 13~19일 서울 종로 토포하우스에서 두 번째 개인전 '佛 빛'을 연다.

불화와 단청 뿐 아니라 벽화와 단청모사, 개금 등 다양한 장르를 작품에 반영한 김 작가는 이번 개인전에서 정통 불화기법으로 작업한 '아미타극락회상도' '지장보살도' '금니아미타불도' 등 다수의 작품을 선보인다.

김 작가는 연화병머리초, 포벽화, 용면 등에 고색단청기법을 적용해, 신색단청기법을 사용하는 불화가들과 차별화된 단청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아미타극락회상도'는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후불벽화를 모본으로 하단에 연화 화생하는 인물들을 표현하고, '지장보살도' 또한 고려불화의 지장보살도를 모본으로 나무에 한지를 배접해 그려, 작품에 대한 작가의 남다른 재해석을 보여준다.


'아미타극락회상도', 김석곤 作

이밖에도 김 작가는 금분으로 조성한 '금니아미타불도' 등을 전시해 다양성과 정통성을 살린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02)734-7555

이은정 기자

천진불들 성보 문화재 화폭에 담아

광주박물관, 어린이문화재 그림전 9월 2일까지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9월 2일까지 어린이 문화재 그림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제25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를 통해 선발된 시루 분청사기편병 백자연꽃무늬항아리, 선의왕후혼전도감의궤 등 50여 점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대상을 받은 남정우 어린이의 '시루'

이 전시는 어린이들이 문화재와 소통하고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광주박물관은 "어린이들이 국립광주박물관 전시실에 있는 문화재를 보고 자신의 느낌을 자유로이 표현한 그림이다. 이는 지난 5월 21일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를 통해 선발된 수상작들"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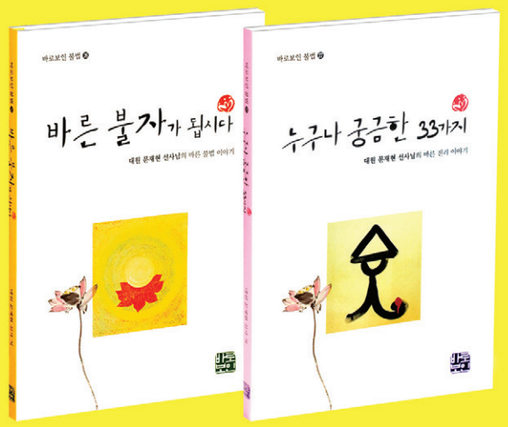
'제25회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는 광주 · 전남 지역 초등학교 어린이 313명이 참가해 51명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입선 30명, 특선 8명, 우수상 6명, 최우수상 6명, 대상 1명으로,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시루'를 그린 조봉초등학교 3학년 남정우 어린이가 수상했다.

광주박물관은 "심사위원단은 어린이의 맑고 순수한 심성으로 유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솔직하게 표현한 작품에 높은 점수를 줬다. 대체적으로 작년보다 표현기법이 다양해지고 세련된 기량을 보여주었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 행사에서는 또한 어린이 문화재 그림전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함께 공동으로 그린 협동작품도 전시된다. (062) 570-7025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바른 불자가 됩시다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명쾌한 진리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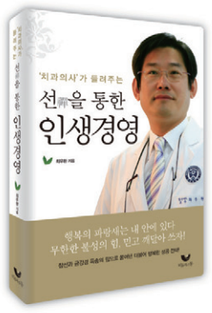


요즘 불자님들이 참된 발심을 하여 바른 신앙, 바른 수행을 하고자 해도 바르게 이끌어주는 곳이 드뭅니다. (중략) 때문에 바른 불법의 기준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불자님들의 수가 적지 않으니 이 얼마나 애달픈 일입니까. (중략) 이 책을 만나는 분들이 모두 바른 신앙과 바른 수행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라며, 불보살님의 가피가 불자님들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갑니까?
*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을 때의 모든 인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풀기 어려운 인연은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 종교만 믿으면 천국에 갑니까?
*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겠습니까? ...

각권 10,000원
☎ 031-534-3373

행복의 파랑새는 내 안에 있다
무한한 불성의 힘, 믿고 깨달아 쓰자!
자기를 비워 세상 전부를 얻는 비움과 나눔의 지혜!
시비 · 분별 없는 평상심으로 살면 일상의 삶이 도道이다
참선과 금강경 독송의 힘으로 풀어낸 더불어 행복한 성공 전략!



'치과의사'가 들려주는
선禪을 통한 인생경영
최우환 지음 | 비움과소통 펴냄
국판 양장 | 컬러 | 280쪽 | 14,000원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중

생활선生活禪으로 풀어낸 참된 자기계발과 성공학
마음공부와 인생경영이란 두 가지 과제를 선(禪)으로 풀어낸 자기계발서. 저자(최우환 궁플란트치과 대표원장)가 조석으로 《금강경》을 독송하고 좌선 하며, 보살행을 실천한 힘을 바탕으로 바쁜 치과의사 생활을 하며 살아온 성공 노하우를 불교적 관점에서 풀어냈다. 저자는 개인적인 수행체험과 사회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교 경전 및 선어록, 경제 · 경영 · 성공학 서적과 자기계발서 등을 인용하며 현대인의 참다운 행복을 논하고 그 성취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분주한 현대인들의 마음에 삶의 여유와 잔잔한 행복, 참된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스며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엮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세계 최대 와불(열반상)
성지순례를 와불법당 미암사로 오셔서 소원성취 하십시오.
시험합격, 사업번창, 학업성취, 자손득남, 운수대통, 무병장수


세계최다층 진신사리탑
(33층)
진신사리 1과가 3과로 자연증과된 신비한 영험 33층 진신사리탑


신비한 쌀바위(미암사)
(충남지방문화재 제371호 지정)
백제 침류왕때 유씨 부인이 자손을 얻게 해달라고 공을 드려서 쌀도 나오고 자손도 얻어 소원 성취하였으며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노화가 방지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신진대사가 원활해 집니다.

국가안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적멸보궁 미 암 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 041)832-1188,1189 www.ssalbawi.com(또는, 한글로 미암)

한국 불교의 진가를 일깨워 주다

초파일 특집 TV서 만난 서양의 두 불교 석학

세계적인 불교 석학들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안방극장을 찾았다. 평화인권 운동가 로버트 서먼 컬럼비아대 명예교수와 루이스 랭카스터 UC 버클리대 명예교수는 한국불교의 역사를 보여주는 동시에 혼돈의 시대에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해줬다.

MBC '땡큐 경허 禪을 묻다'는 21세기 지성으로 불리우는 서먼(70 · 뉴욕 티벳하우스 원장) 콜럼비아대 불교학과 교수가 돌아보는 열반 100주년을 맞은 경허선사 이야기다.

"한국을 변화시킨 선각자이자 수행자였던 경허선사의 발자취를 찾아 한국에 왔습니다. 구한말 식민주의 질서가 재편되고 불교가 억압당하던 그때 경허스님에 의해 오히려 불교가 되살아났다는 사실이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한국불교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고 열반한지 백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허의 삶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서먼 교수는 이렇게 첫 시작을 열었다. 그렇다면 그를 매료시킨 경허스님은 누구인가? 경허선사(1849~1912)는 치열한 구도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으며 서산대사 이후 끊어졌던 이 땅의 선맥을 다시 이어놓은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다. 서먼 교수는 경허선사를 대신해 한국 불교의 큰스님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 해인사 율주 종진스님, 해인사 유나 원각스님, 통도사 큰스님 명정스님 등을 만나 경허선의 의미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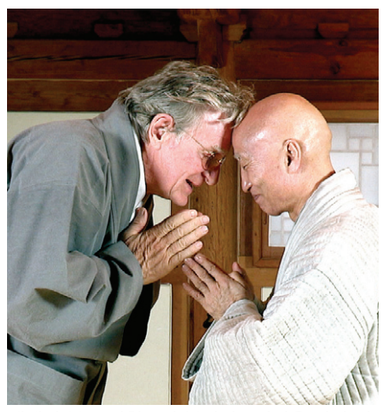
특히 서먼 교수가 설정 스님과 함께 천장암을 찾은 장면은 인상적이다. 경허 스님이 깨달음을 완숙시키기 위해 머물렀다는 이곳은 한 평 반도 안 되는 공간에서 자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용맹정진을 하면서

MBC- '땡큐 경허 禪을 묻다'
KBS-특집 다큐 '다르마'

한국 불교 발자취를 찾은 학자
불법의 메시지 전하는 계기 마련

한국 선불교를 완성시켰다. 서먼은 방으로 직접 들어가 스님의 자취를 느껴보기도 하고 부엌으로 가 방 아궁이에 불을 지펴보기도 한다. 그와 함께했던 설정 스님은 "전생에 우리가 어느 절에서 같이 공부하던 도반이었을 것"이라며 농담반 진담반의 전생 얘기를 던지기도 했다.

이 방송은 선각자로 그리고 실천수행의 모범을 보인 스승으로서 시대를 이끌어 갔던 경허선사의 삶을 통해 이 시대,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삶의 방향을 제시해 보는 시간이 됐다. 또한 선방의 젊은 스님들이 통역없이 교수와 영어로 대화하는 장면은 한국불교 세계화의 숨은 저력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세계적 불교 석학들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안방극장을 찾았다. MBC '땡큐 경허 禪을 묻다'는 21세기 지성으로 불리우는 서먼 교수(왼쪽)와 KBS 특집 다큐 '다르마'에 출연한 랭카스터 교수.

지난해 방영되어 '2012 아 · 태방송개발기구(AIBD) 월드 TV상' 인류애 부문 최우수상 '2011년 조계종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을 받는 등 큰 반향을 일으킨 KBS 특집 다큐 '다르마'의 재방송도 주목할 만하다. 여기에서는 팔만대장경의 영문목록을 작성하고 평생을 고려대장경 연구에 바친 미국 버클리대 교수 루이스 랭카스터가 출연한다. 대열반경을 읽는 교수의 모습으로 시작해 전세계 불자들의 릴레이 낭독이 곳곳에 삽입되며 4부 분량의 다큐멘터리를 이끌어 간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붓다의 유언 즉 불경을 통해 붓다의 자취 그리고 그의 참뜻을 찾아간다.

해외 석학들은 한국 불교의 자취를 통해 이 시대의 부처님 오심의 참 뜻을 되새겼다. 안팎으로 시끄러웠던 교계의 지난 5월, 두 방송은 진정 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불교 종합예술 현충일에 8시간 걸쳐 시연

국태민안 기원하는 제 24회 봉원사 영산재
일운스님 "영산재 상설 공연장 설립 큰 꿈"

"에엥이~어으어흐~이잉이~"

취타대의 사물소리에 맞춰 스님들의 범패소리가 장엄하게 들려왔다. 6월 6일 서울 신촌 봉원사 염불당 앞마당에는 대형 괘불이 모셔져 있고 이를 중심으로 양측에는 12간지 그림과 복을 기원하는 글들이 걸려 있다. 시간대 별로 영산재 이수자 스님들이 선보이는 바라춤과 나비춤 그리고 법고춤을 구경하고자 하는 관람객들이 무대 주변을 에워쌌다.

889년 신라 진성여왕 3년에 창건된 천년고찰 봉원사를 내리쬐는 따가운 햇살만큼 바라보는 이들도, 의식을 치르는 스님들도 열정적이면서도 화려했다.

현충일인 이날 봉원사에서는 산 자와 죽은 자 모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번뇌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다는 성대한 불교의식 영산재(靈山齋)가 열렸다. 국태민안과 경제성장을 기원하는 24번째 영산대재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인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가 영취산에서 여러 중생이 모인 가운데 법화경을 설파하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 영산재는 불교 음악인 범음범패(梵音梵唄)에 바라춤, 나비춤, 법고춤 등 무용적인 요소, 부처나 보살의 모습을 그린 괘불, 감로탱화 등 미술적인 요소가 더해져 불교예술의 결정판으로 꼽힌다.

영산재 도량인 봉원사는 매년 단오절마다 영산재 시연회를 해오다 2007년부터 호국영령들의 혼을 기리기 위해 날짜를 현충일로 바꿨다.

올해 행사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영혼을 모셔오는 의식, 영혼이 불법을 듣기 전에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는 의식,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의식 등에 이어 괘불을 영산재 장소에 옮겨 모시는 괘불이운(掛佛移運) 의식 등이 펼쳐진다. 이후 영산재에 참석한 대중이 공양물을 나눠 먹으면서 부처의 가르침을 새기는 의식, 부처를 공양하고 법문을 듣는 의식, 영혼을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의식 등으로 마무리된다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서울 신촌 봉원사 염불당 앞마당에서 제 24회 봉원사 영산재가 마련됐다.

봉원사 주지 일운 스님(영산재 보존회 회장)은 "6월 6일 현충일에 지내는 연례행사는 이번이 24번째 이지만 국가적인 큰 사건이 발생되면 그 때마다 영산재를 지내며 국태민안을 기원하고 있다"며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서 한국불교 전통문화의 중요한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영산재를 상설 교육하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큰 발원"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일섭문도회 첫 회원전…불교 미술 확산 기대

조각 단청 등 100여 작품 전시
6월 13~19일 서울미술관서

우리나라 근세대 불모 일섭스님의 후학들로 구성된 '불교미술 일섭문도회'(이하 일섭문도회 회장 전연호)가 6월13~19일 인사동 서울미술관에서 첫 회원전을 연다. 이번 전시회는 회화 조각 단청 공예 등 1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일섭문도회는 불화와 단청, 조각, 고건축 등 우리나라 불교미술의 중추적 역할을 해 오고 있는 현역작가 30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 중에는 석정스님, 전기만, 조정우, 양용호, 이정오 씨 등 13명의 회원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활동하고 있다. 또한 다수 회원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로 구성된 불교미술단체다.

이번 전시에서는 해봉 석정 스님의 '지장탱' 유천 봉래 스님의 '석가모니 후불탱' 조정우의 '11면 42수관음도' 등 100점의 불교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석정 스님의 지장탱은 지장보살과 좌우보처인 보명존자와 무독귀왕 등을 통해 제대권속을 표현했다.

조각도 눈에 띈다. 허길량 씨의 '비천' 김광열 씨의 '아미타 삼존불감' 한봉석 씨의 '남양주 흥국사 목조광배' 등은 목조 미술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특히 한봉석 씨의 '목조광배'는 흥국사 대웅보전 부처님 광배를 재현했다.

6월13일 오후 6시 개막행사에서는 각 부문 우수작품을 선정해 시상하며 전시기간 중 단청, 도금, 인경(탁본) 등 불교문화 체험행사도 개최된다. 일섭문도회 전연호 회장은 "우리나라 근대 불교미술사에는 조선후기 대표적인 불모(佛母) 유성(有誠)스님의 화풍을 이어 그 전통의 맥을 굿굿이 계승해 오신 금호스님-보응스님-일섭스님이 계셨다. 이번 전시를 기회로 문도님들의 원력을 모아 첫 번째 회원전을 열게 됐다"며 취지를 전했다. **정혜숙 기자**


석정 스님의 '지장탱화도'

"제주 불교 기자 생활 10년을 담다"

이병철 기자 사진전…연갤리서
사부대중 신행기록 컷 전시

제주불교신문 이병철 기자가 '제주불교 10년, 그 안에서 我를 보다'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제주시 연북로 연갤러리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기자의 10년 간 기록을 담았다.

이 씨는 "지난 2002년 입사 후 찍은 수만 컷의 사진들을 옛 일기장을 꺼내듯 기억으로 더듬어 보았다. 과거로의 시간여행은 더없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루하루 새삼 잊혔던 기억들이 나를 미소짓게 한다"며 전시를 여는 소감을 밝혔다.

'스님과의 차 한잔' 이 불교언론에서 일하는 매력이라고 말하는 이 기자. 전시에서는 지난 10년동안 제주도 내 사부대중과 함께 한 아름다운 여행을 담았다. 지난 2004년 불교호스피스의 불모지였던 제주지역에 그 꽃을 피워낸 수상 스님, 온누리에 등불을 밝히는 부처님오신날의 월평동 삼광사, 애월읍 상귀리 극락사, 연동 선림사의 아름다운 전경, 연등축제에서 시민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한마음선원 제주지원의 100일 간의 장엄등 만들기 기도 현장, 매년 음력 1월 8일 성도재일이면 철야정진 속의 제주불자들도 담았다. **정혜숙 기자**


중국 사천성 구채구 장족 동자승들, 이병철 作

대한불교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하시기를 발원합니다.

젊은 장병 불자들의 포교 전당인 논산훈련소 호국연무사에 부처님의 자비의 등불을 밝히고,
신축법당 대작불사의 원만한 회향을 위하여 1200분의 원불을 모시고 있습니다.
국가의 번영과 평화, 가정의 행복을 위한 원불 모연불사에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군종교구장 자 광
대한민국 육 · 해 · 공군 군 승 일 동 합장
국군불교총신도회 회장 해군중장 원태호

원불 / 불사금 후원계좌번호
제일은행 325-20-221949 국민은행 477401-01-179603
농 협 301-0063-3042-71 예 금 주 : 군종특별교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83호 / ☎ (02)749-8646. 797-7266 / www.gunindra.com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제재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부처님의 생애를 아는 것이 곧 '불교'



부처님을 만나다
일창 스님 지음
이솔 펴냄
2만3천원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이다. 아득한 다큐멘터리 한 편이 불자라면 누구나 궁금해 해야 할 부처님의 생애다. 누구인지. 어떻게 깨달았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어떤 가르침을 설했는지. 불교를 시작하는 일은 이 궁금함에서 시작된다.

책은 먼저 '괴로움'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것도 프롤로그에서 본격적으로 다룬다. 모든 것은 그 괴로움에서 시작됐다. 괴로움이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의 시작, 즉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불교의 출발점은 '괴로움(dukkha 苦)'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괴로움임을 알고 그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불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괴로움은 과연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괴로움의 원인을 먼저 살펴봅시다. 우리가 겪는 늙고 병들고 죽음 때문에 생겨나는 슬픔, 비탄 등의 괴로움, 또한 늙고 죽음 외의 다른 이유 때문에 생겨나는 슬픔, 비난 등의 괴로움은 태어났기 때문에 생깁니다. 태어남이 없었다면 늙음도 없고 병듦도 없고 죽음도 없을 것이고, 그와 관련된 슬픔 등도 없을 것이고 그와 관련되지 않은 슬픔 등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분명해진 명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괴로움을 진실로 괴로운 것으로 알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천을 하자는 것이고 그 실천이 '불교'라는 것이다. 그 불교는 다름 아닌 부처님의 생애이고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책은 빠알리 경전과 주석서 등의 원전에 철저히 근거를 두고 부처님 일대기와 가르침을 서술했다. 나아가 〈마하붓다원〉 등 미얀마 큰 스님들의 여러 저술을 참고하여 가능한 정확한 내용을 담고자 했다. 각주에서는 부처님 일대기를 자세히 공부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빠알리 원전과 함께 그에 해당하는 우리말 번역본을 출처로 넣었다.

전반부에서는 '정등각자 부처님'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면서 고따마 부처님께서 4아승기 10만 대겁이라는 한량없이 오랜 세월 동안 십바라밀을 실천해서 '정등각자로서의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후반부에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 안거별로 중요한 일화들을 서술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교학적 설명과 함께 부처님께서 직접 실천하신 여러 수행법에 대해서 설명했다.

"4아승기와 10만 대겁 전 / 매우 아름답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 아마라와띠라는 도시가 있었다 // 그 아마라와띠에 수메다라는 바라문이 살고 있었다 / 수천 만 금의 재산을 가진 매우 큰 부자였다" 책은 부처님의 발자취가 이렇듯 시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시간에서 시작됐고, 생각이 감당할 수 없는 생각 속에서 비롯됐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붓다 비긴즈'



부처님의 생애를 그린 팔상성도(해인사 소장)

다.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 기록들에서 대부분 언급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거대한 단위의 시간과 생각은 불자들과 가깝지 않은 이야기들이다. 책은 이미 흥행을 마친 부처님이 부처님되기까지 경전 등 원전에 근거 '성불'에 도움되길 '부처님'의 '비긴즈'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부처님이 부처님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한다. 제3장에서는 십바라밀을 실천하는 부처님을 통해 십바라밀을 다시 공부하고, 제5장에서는 드디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룸비니로 데려간다. 정반왕, 마야부인, 싯다르타, 야소다라…. 비긴즈의 에피소드에 이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처님 이야기가 이어진다. 우루엘라숲에서 고행을 하고, 마라를 물리치고, 고행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기까지. 그리고 그 깨달음 앞에서의 고민, 다섯 비구에게 설법하는 부처님. 그리고 44 안거 동안의 부처님을 통해 다시 공부한다. 마지막 제8장에서 부처님은 열반에 든다. "부처님께서는 해야 할 일을 마치셨습니다. 제도할 사람을 다 제도하셨고 건네주어야 할 사람도 더 건네주셨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과 같았던 몸과 마음조차 소멸하는 무여열반에 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자 천둥번개가 치며 대지가 진동했다. B.C 544년 음력 4월 15일. 부처님은 그렇게 다녀가셨다. 책은 부처님의 생애를 소개하는 것으로 독자를 공부시킨다. "이 책을 통해 부처님에 대한 크나큰 믿음이 생겨나길 그 믿음을 바탕으로 열심히 수행하여 진정한 열반에 이르게 되시길…." 저자의 바람이 적혀있다. 저자인 일창 스님은 1996년 서울대 화공과를 졸업하고 해인사 백련암에서 원융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범어사 강원을 졸업했고, 2000년과 2005년 두 차례 미얀마에 머물면서 미얀마 어와 빠알리 어 등을 공부하고 찬매 센터, 파욱 센터, 마하시 센터 등에서 수행했다. 현대 진주 녹원정사에서 초기불교에 대해 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저자의 바람처럼 이 책을 통해 지니고 있는 믿음에 더 큰 부처님의 대한 믿음이 더해지길 바란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산에서 쓴 '사연'들

행복한 산승의 일기

일수 스님 지음 | 클리어마인드 펴냄 | 1만2천원



스님의 사연이다. 뜨락의 잔디를 적시고, 산수유를 적시고, 앳된 풀들을 적시며 내리는 봄비 같은 사연들이다. 작은 사연이 하나 끝날 때마다 그 끝에는 다짐들이 있다. 스님은 "60여 년의 세월이 켜켜이 빗방울 하나하나에 맺히듯, 맺히고 다시 풀어져서 벌써 저만큼 흐른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그런 내 기억의 편린(片鱗)이고 그런 삶의 흔적들이다. 출가하여 사문의 길을 걸은 지 어언 40년, 흔한 말로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뀌었다. 절집 생활 하면서 또 강원과 율원, 서슬 퍼런 선원 등에서 정진하면서 일어난 에피소드들, 어떤 때는 웃고 어떤 때는 슬퍼해야 했던, 인간의 표정들로 이 글은 채워져 있다." 고 말한다.

책은 출가 전부터의 사연들과 사문으로서의 사유들을 다짐들과 함께 적고 있다. 출가 전 속가의 이야기는 코끝을 만지게 할 정도로 출가자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누구나 그렇듯 삶이 시작된 곳의 기억들은 망각할 수 없는 사연이다. 스님도 그 망각할 수 없는 사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다. 수행자로서의 삶, 불조(佛祖)와 스승의 은혜, 도반들의 은혜, 그리고 시주단월(施主檀越)의 은혜, 이 모든 연기의 관계성 속에서 그 그리운 속가의 시절은 밉던 곱던 '가슴'의 골조임을 어쩌지 못한다. "그렇게 할머니를 떠나보낸 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공부는커녕 학교에 가기조차 싫었다. 머릿속과 가슴속이 온통 할머니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걸핏하면 무덤에 찾아가 울다 잠들곤 했다. 활명수 병만 보아도 요강 단지만 보아도 할머니의 품이 너무나 그리워 어떤 일도 집중할 수가 없었다." /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맨발로 뛰어나와 얼싸안고 울던 어머니. 당신이 먼 길을 떠나던 날, 해인사에서 우연찮게 바라본 밤하늘에 별이 반짝하고 빛을 내다 이내 사라졌다. '중물'이 들수록 세속과는 점점 멀어져 집에 발을 끊게 된 때였는데, 그 별을 보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을 알았다." /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당신들의 사랑이 불보살의 가피와 어찌 다를까. 아무리 속세의 인연이라 한 들 두 여인의 사랑을, 그 가피를 단 한 자락도 잊지 않고 기억하련다."

그렇게 망각할 수 없는 속가의 시절을 기어이 접고 스님은 불가에 귀의한다. 성철 스님께 받은 화두 이야기, 도반들과의 잊지 못할 이야기 등 사문으로서 겪은 사연들이 봄비처럼 책장을 두드리고 지나간다. 창밖의 빗소리처럼 들려오는 사연들. 〈행복한 산승의 일기〉는 행복한 시간의 모음이다. 글을 쓴 일수(一守) 스님은 스물세 살에 우연히 스님을 따라 대흥사로 출가했다. 본사는 백양사, 은사 스님은 학봉 지선 스님이다. 해인사 선원에서 첫 안거를 시작한 후, 50안거를 성만했다. 고불총림 백양사 선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 성북동 법천사 운문선원 선원장, 조계사 자율선원 선원장으로 수행 정진 중이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30~6/5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4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출판
5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6	받아들임	타라 브랙	불광출판사
7	탄허록	탄허	휴
8	경허	일지	민족사
9	대안스님의 마음설레는 레시피	대안	김영사
10	석암스님의 범망경 강설	석암문도회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 3672-7181

불국사 갈 때 들고 가면 좋을 책

불국사 다시 가기

박종두 지음 | 생각나눔 펴냄 | 1만2천원



불국사. 절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소다. '국민가수', '국민 배우'처럼 특정한 종교의 이미지보다는 '국민'적인 개념의 명사다. 누구나 한 번쯤은 가볼 수밖에 없는 국민적 명소다. 때문에 불국사에 관한 정보는 너무나 많고 관심 있는 사람도 분야별로 수없이 많다. 이러한 국민적 명소인 불국사를 보편적인 눈높이로 설명해 주는 책이 나왔다. 책이 나온 이유는 이러한 불국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흔치 않고, 더욱 심각한 것은 그나마 알고 있는 사실조차 오류가 많다는 것이다. 책은 우리 문화재를 처음 접하는 장소이며 국가대표 문화재로 손색이 없는 이 불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까닭은 우리가 배워왔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불국사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다고 말한다. 다음으로는 문화재를 기본적인 식견도 없이 가르치고 관심 없이 배우는 문화재 학습 형태와 더불어 문화재를 탐방하러 왔으면서도 그냥 스쳐 지나는 우리 모두의 잘못된 탐방 습관도 지적한다.

"옛날에는 오늘날 잔디밭 자리에 깊은 연못을 팠고 홍예 밑으로 맑은 물이 흘러서 그림 배가 드나들었다 한다. 그래서 이 층층대를 청운교 백운교로 아름 지은 것이라 생각된다." 엽서나 달력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불국사의 대표적인 상징인 청운교 백운교다. 〈불국사 다시 가기〉는 불국사에 대한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밝혀내고, 처음 문화재를 접하거나 알려는 사람이 어렵거나 지루해서 포기하지 않도록 쉬우면서도 재미있게 풀어썼다. 그리고 불국사 도착부터 경내 모든 곳의 탐방을 마칠 때까지 이 책을 펴들고 함께 한다면 불국사 돌조각 하나에서도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고, 숨어있던 문화재의 매력과 흥미를 찾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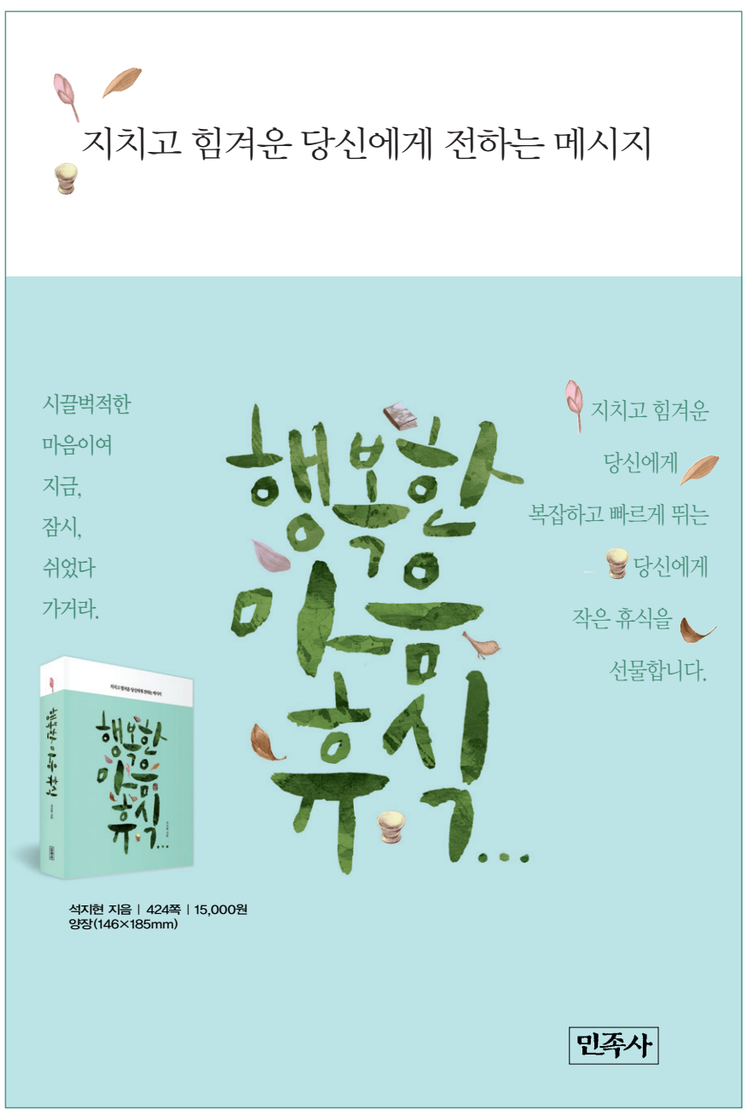
저자는 "자신의 문화유산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문화적인 미래는 없다. 조상의 숨결이 스며 있는 문화유산을 바르게 아는 문화의식 없이는 미래의 문화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고 출간의 의미를 밝혔다. 저자는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미래 세대에게 문화재에 대한 소중함과 올바른 문화의식을 심어주는 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며, 자성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지금까지 나그네처럼 다녀왔던 불국사로 다시 떠나자. 〈불국사 다시 가기〉가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문화재 여행으로 안내할 것이다. 저자 박종두는 현재 대구 성일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틈틈이 불교문화재에 대한 자료를 모아 2011년 8월, 사찰 문화재 탐방 안내서 〈절, 그 속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 문화재들〉이라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박재완 기자



청운교 백운교가 보이는 불국사 전경





묘엄 스님 구도역정… 제자가 쓴 英 논문



한계를 넘어서

정인영 지음
이향순 옮김
동국대출판부 펴냄
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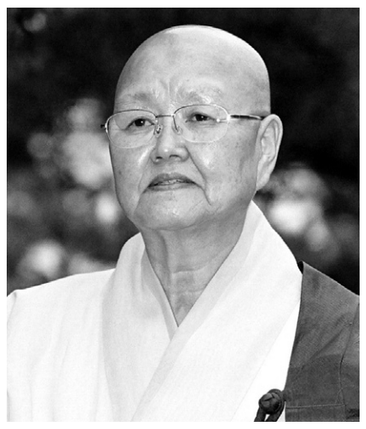
최근에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을 비롯해 한국 불교계를 대표하던 몇 분의 큰스님이 입적했다. 그중에서도 법정 스님, 지관 스님과 함께 비구니계의 큰 어른 묘엄(妙嚴) 스님이 주목 받았다. 스님은 뛰어난 율사(律師)이며 대강백(大講伯)으로 한국의 비구니 승단을 재건하는 데 앞장 선 분이다.

현재 한국 비구니 승단은 과거 어느 시기보다 교단의 인적 구성이나 역할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역사가들에게 비구니 스님들은 솔직히 소외된 존재였다. 비구니의 삶과 수행에 대한 기록은 오늘날까지도 한국불교사에 빈자리로 남아 있다. 그 결과 한국불교사 해석은 주로 남성 출가자인 '비구'를 대상으로 남성 위주의 시각에서 편향적으로 조명된 점이 없지 않다. 따라서 본격적인 '비구니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연스런 현상이다.

미국 버지니아대 종교학과에서 저자가 쓴 박사학위 논문을 번역한 이 책은 묘엄 스님(오른쪽 사진)의 일대기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한국 비구니 승단의 재건과 정체성 확립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명 스님들 행장기 특유의 미사여구를 피하고 문헌과 현장 연구를 병행한 응용불교학의 방법론으로 한국 비구니 연구에 있어서 새 지평을 제시한다. 시대의 격랑 속에서 비구니로 살아온 한 개인이 내린 선택과 결정이 어떤 다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 저자는 역사의 주역이나 관찰자 증언 또는 회고와 같은 구술을 바탕으로 진실을 밝히는 구술사 연구법을 도입해 생생한 다큐멘터리를 제공한다.

먹물 옷 입고 출가자의 길을 선택한 한 사람이 그를 겹겹이 둘러싼 가족과 승가공동체와 국가라는 거대한 울타리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는지를 밝히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은 매우 유용하다. 나아가 식민수탈과 전쟁으로 가난하고 혼돈스런 시기에 한국 비구니 승가가 어떻게 강력한 교육체제를 수립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통을 재정비할 수 있는지 설득력 있게 재구성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비구니의 삶이 색채 잃은 신화나 전설로 증류돼 버리기 전 생명력 넘치는 사바세계의 역사로 기록된 감동적 서사를 선사한다.

묘엄 스님의 입적이 특히 세간의 눈길을 끈 데에는 조계종 2대 종정 청담 대종사의 친딸이며, 성철 스님의 유일한 비구니 제자라는 사실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여성의 출가'가 한 개인의 범상치 않은 가족사를 내포한 극단적 선택의 메타포로 읽혀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묘엄 스님, 뛰어난 율사요 대강백
연기적 서사 구성 방식으로 조명
비구니 승단 정체성 확립이 주제
열린 자세로 불성론을 체화 시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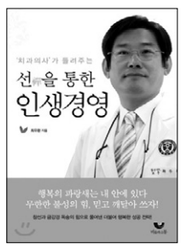
이 책의 논지는 "묘엄의 출생을 곧 청담의 파계의 결과로 인식하는 태도"라는 '특별한 상황'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펼쳐진다. 묘엄 스님의 제자인 저자 석담 스님(속명 정인영)은 비구니 승가의 일원이면서도 연구자로서의 객관적 성찰과 냉정한 관점을 놀랍도록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세는 승단 내부에서 금기시되고 있는 "비구들에게 '버림받은' 부모나 부인 혹은 자녀들에 관해 조명"하거나, "한국의 불교계가 성문제와 관련된 파계에 대해 비구나 비구니에게 보여주는 차별적 태도"를 논할 수 있게 한다.

한국 불교 전통에서는 가부장적인 유교사회의 영향을 받아 사미니가 비구 스승으로부터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묘엄 스님은 20세기 한국 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성철, 자운, 운허 스님 등 당대의 비구 스승들로부터 교육을 받는 특권을 누렸다. 저자는 이러한 특권의 향유가 특별한 한 개인에게 베풀어진 혜택을 넘어선 것이라고 본다. 비구 선사들은 임제선 전통의 가르침을 받아 '모든 중생이 붓다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서의 불성론(佛性論)을 체화한 이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묘엄 스님을 비롯한 소수의 비구니 제자들에게도 성의 이분법을 뛰어넘는 열린 자세로 비구와 동등하게 해탈의 길로 이끌기 위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다.

저자가 연기적 서사로서 재구성한 묘엄 스님의 삶에는 개인과 공동체, 여성과 남성, 보편과 특수의 씨줄과 날줄이 겹겹으로 엮여 있다. 승단 내에서의 성차별에 대해 치열하게 도전하고 비구니 승단의 정체성을 재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스님은 온생애를 관통하는 수행자의 치열함으로 여성의 한계를 넘어선다. 승가공동체에서 묘엄 스님이 '비구니 교육자'로서 '현대 한국 불교 최초의 비구니 율사'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상황'을 넘어서는 결연한 선택의 결과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행복한 성공 '진정한 자기'로의 회귀



선을 통한 인생 경영

최우환 지음
비움과 소통 펴냄
1만4천원

이 책은 저자(최우환 궁플란트치과 대표원장)가 2009년 9월 펴낸 〈치과의사가 들려주는 성공인생 마음공부〉의 후속편이라고 볼 수 있다.

전작이 저자 개인의 삶에 비춰본 자아성취의 과정을 에세이식으로 쓴 책이라면, 이 책은 마음공부와 인생경영이란 두 가지 과제를 선(禪)을 응용해서 풀어본 불교적 자기계발서라 할 수 있다. 전작에 대한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저자가 조석으로 〈금강경〉을 독송하고 짬짬이 좌선한 힘을 바탕으로 바쁜 치과의사 생활을 하며 살아온 나름의 노하우를 선(禪)의 관점에서 풀어내 보인 책이다.

저자는 18년 전, 계룡산 신원사 주련에 새겨 있던 '삼일수심천재보(三一修心千載寶: 삼일 닦은 마음은 천년 보배지만), 백년탐물일조진(百年貪物一朝塵: 백년 재물은 하루아침 티끌이다)'이라는 글귀를 보고 발심한 후 매일 금강경 독송과 참선, 보살행으로 마음공부를 해 왔다. 생활 속의 참선(參禪)을 통해 얻은 힘으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려온 그는 보살행을 적극 실천해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보현행을 생활화해 왔다.

조계사, 종로구청,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은정불교문화진흥원과 의료지원협약을 맺고 무의탁독거노인 틀니시술을 해주는가 하면, 종로구 소년소녀가장 14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치아를 관리해주기로 약정하는 등 환자를 부처님으로 보며 비움과 나눔, 소통을 실천해온 것이다.

이와 같은 수행과 사회적 실천을 두 수레바퀴로 한 오랜 불교공부와 인생공부의 경험이 고스란히 응축된 결정체가 바로 이 책이다.

저자는 개인적인 수행체험과 사회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불교 경전 및 선어록, 다양한 경제 · 경영 · 성공학 서적과 자기계발서 등을 인용하며 현대인의 참다운 행복을 논하고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바쁘게 살아가는 생활인들의 마음에 삶의 여유와 잔잔한 행복, 참된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스며들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책을 엮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자유와 행복, 깨달음을 빼앗아간 사람은 없다. 본래부터 자유와 행복, 깨달음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의 전도된 망상에 빠져 늘 새로운 것, 더 좋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갈애(渴愛)를 그치지 못하다 보니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고통 속에 허덕이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참다운 자기계발이란 '진정한 자기'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한다. 자기가 본래 원했던 일, 자신 있는 일을 즐겁게 하며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다양한 성공학 도서들과 자기계발서들이 성공 제일주의에서 벗어나 참다운 행복, 의미있는 삶, 함께 누리는 평화, 자아성취 등 참된 가치에 대해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자기계발의 핵심은 내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마음의 평화와 안정 없이는 돈과 명예, 쾌락이 영원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마음을 다스려 내적인 혁신을 유도하는 참다운 자기계발에 대한 관심을 점차 고조시키는 것도 같다.

세간에서는 물질적인 성공에 비중을 둘 것이고, 출세간에서는 정신적인 가치의 획득에 비중을 두겠지만, 사람의 행복은

마음과 경영 응용한 자기계발서
치과의사로서 비움과 나눔 실천
불교명상, 인연 의해 형성된 산물
진언 등 암송하면 자기 변화 느껴

궁극적으로는 정신적인 만족과 편안함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다. 행복하다는 느낌이 바로 인식(三界唯識)이라는 정신적인 과정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진정한 행복은 '자아 완성'을 목표로 할 수 밖에 없기에, 저자는 이 관점에 주목하여 자아 실현을 통한 참다운 행복을 성취하는 길을 밝히고 있다.

저자의 경우, 조석으로 〈금강경〉을 독송하고 좌선을 하고 있지만, 일상에 바빠 참선이나 독경, 위빠사나 등의 수행을 하기 힘든 현대인들은 틈틈이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염불이나 '옴마니반메훔' 등의 진언(다라니)을 외우다 보면 서서히 변화되는 자기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내 마음이 텅 비워져 자비광명으로 채워지면 나를 둘러싼 사람과 일이 저절로 내게 행복을 선사하게 된다는 사실은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수행의 과보이다.

그러나, 행복은 꼭 오랜 노력을 기울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대로 있는 그대로의 삶을 '여실하게 바라보면서(如實知見)' 감사하게 사는 마음에 있다.

김주일 기자

명상은 철학이 아니라 실천이다

붓다의 명상법

지하시 히데오 지음 | 남상영 옮김
아름다운 인연 펴냄 | 1만3천원



지금 이 순간 내 몸과 마음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위빠사나 명상이다. 여기에서 '알아차림'을 도와주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데 바로 '사띠'라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사물이 인식되기까지를 12처 구조로 설명하는데, 그 일련의 흐름에 따라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일일이 명확한 언어를 붙여 확인하는 것을 '사띠'라고 한다. 그것을 통한 선명한 알아차림은 당연히 올바른 판단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최소한 우리가 산더미 같은 망상과 태풍처럼 불어오는 잡념에 시달리는 것을 막아준다. 그러나 사띠만 잘 익힌다고 위빠사나 수행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올바른 판단의 행동 근거로 붓다가 제시한 것이 바로 오계를 지키는 불교적 가치관이다. 위빠사나 명상과 불교의 윤리적 기준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말한다. 명상은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런 만큼 이 책은 철저히 독자가 직접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실용적으로 쓰였다. 저자가 오랫동안 해온 수행과 자신이 지도했던 많은 사람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명상의 효과는 무엇인지부터 위빠사나 수행을 하는 구체적 순서와 방법, 궁극적 목표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김주일 기자

초심자 알기쉽게 풀은 '초기불교'

왕초보 초기불교박사되다

마성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원



이 책은 기존의 아함경 해설서의 분류 방식에 따라 크게 붓다와 담마, 상가로 구분해 초기불교의 주요 주제들을 다루었다. 제1장에서는 붓다의 생애와 붓다 시대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 다룬다.

한국은 오랜 세월 동안 대승불교 문화권이었다. 특히나 한국에서 초기불교는 '소승'이라는 이름으로 폄하되지만, 1990년대 이후 한국불교계에는 초기불교 바람이 불고 있다.

게다가 얼마전에는 조계종 최초로 초기불교 전문교육기관을 개원했다. 획기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한국에서 초기불교는 근기가 낮은 하근기의 사람을 위한 방편이라고 여겨졌다. 초기불교의 인식에 대변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초기불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초기불교에 입문하고 싶지만, 그에 대한 마땅한 입문서가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이는 주로 학술적 접근의 난해한 연구서와 수행법인 위빠사나를 집중 탐구한 서적이 많기 때문이다.

도대체 초기불교가 무엇인지, 초기불교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읽어야 할지 막막하다. 이에 전문적으로 빨리어를 공부하고 현재 팔리문헌연구소 소장으로 재직 중인 마성스님이 쉽게 초기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만든 입문서가 바로 이 책이다.

김주일 기자

특강안내
수정기공 Soojung Touch Therapy
대한민국 인증대상(기공부문)
2012년 대한민국 신지식인 선정기념
무료 공개체험
신지식 공유를 위하여
수시 공개합니다
전화요망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6시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 건물 넘어간 집 바로 잡음
■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 신축 및 기와 등 한옥 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 고도건축 대표 강충(姜忠)
대구광역시 동구 각산동 389-2
연 락 처 : 053)964-0858
휴 대 폰 : 011-804-1748

범음범패학인모집
▣ 과 정 : 초. 중. 고급과정 수시모집
▣ 교수법 : 처음 개인 교수식 후 각반 편입
▣ 바라무 : 천수, 요잡, 츰부다라니, 사다라니
▣ 착복무 : 도량게, 다게, 향화게, 오공양, 옴남, 기경이, 법고
▣ 사 물 : 법당북, 태징, 광쇠, 심벌, 목탁 ,요령, 경쇠타법
▣ 국악기 : 호적, 대금, 단소, 퉁소
▣ 핵심 경전강의 : 의식의 뜻과 이해
교육장소 :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553-6 (2층) 지 장 사
문 의 처 : 강주 홍인 010-5325-8123
학장 범성 010-9243-0113 합장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대가야 태자 월광이 망국 이후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월광태자, 신라가 도설지 왕으로 옹립

1. 대가야와 신라의 결혼동맹

가야연맹의 역사는 〈삼국유사〉 '기이' 편의 '오가야'와 '가락국기'와 '금관성파사석탑' 조목의 기록뿐이다. 이중 '오가야'와 '가락국기'에 의하면 가야연맹의 지리적 위치를 알 수 있다. 오가야는 아라가야(경남 함안), 고령가야(경남 진주), 대가야(경북 고령), 성산가야(경북 성주), 소가야(경남 고성)에 자리해 있었다. 이들 오가야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던 금관가야(경남 김해)는 오가야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관가야가 신라·고구려 연합군에 의해 부산 복천동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하고 왜나라로 떠난 이후 대가야는 후기 가야연맹을 주도했다. 대가야는 금관가야로부터 이식받은 철기를 중심으로 여타 가야국들을 이끌면서 가야연맹을 지속시켰다. 그 중심에는 가실(嘉實)왕과 이뇌(異腦)왕 및 그의 아들 월광(月光, 뒷날의 道設智·指王)이 있었다. 월광은 대가야의 마지막 왕 이뇌가 신라에 구혼하여 신라 왕녀 양화공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대가야는 결혼동맹을 통해 신라와의 관계를 개선한 뒤 백제에 대응하였다. 하지만 백제와 신라는 삼한일통을 위해 가야연맹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점점 옥죄어 들어오는 두 나라 사이에서 대가야 지배층은 오랜 격론 끝에 새롭게 부상하는 신라와 등지고 기존의 백제와 연합하는 국제정책을 수립했다. 이즈음 신라와 백제 역시 나제동맹을 맺고 고구려가 차지한 한강 유역을 공격하여 한강 상류는 백제가

신라 배척·백제 연합 정책 펼쳐
관산성 전투로 백제 원조 끊겨 위기

차지하고 중하류는 신라가 차지하였다. 다시 신라는 120여년을 지속시켜온 나제동맹을 깨고 고구려와 연합하여 백제의 관산성(충북 옥천)을 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가랑(가야)은 백제군의 일원으로 참석하였다. 백제는 관산성 전투(554)에서 성왕과 좌평 4인 및 군사 29,600명이 전사했다. 살아 돌아간 군마가 한 필도 없었다고 전한다. 백제는 대가야에 대한 원조 능력을 상실하였고 대가야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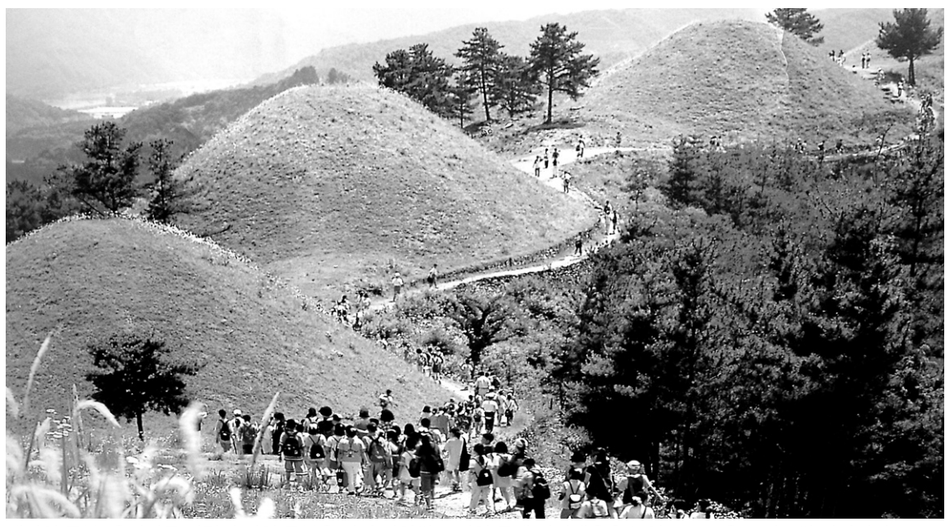
당시 대가야는 신라의 양화공주를 수행하기 위해 보낸 700여명의 하인들을 가야옷으로 변복시켰다. 이에 신라는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 결혼동맹을 파기했다. 그러자 대가야 내부는 백제와 우호관계를 유지하자는 쪽과 새롭게 부상하는 신라와 선린관계를 유지하자는 쪽으로 갈라졌다. 격론 끝에 대가야는 친백제 정책을 추진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태자 월광은 어머니의 나라인 신라로 망명했다. 신라의 진흥왕은 신라를 배반한 대가야를 토벌하기 위해 이사부(異斯夫)를 보냈으며 사다함을 부장으로 삼았다. 사다함은 기병 5,000명을 거느리고 앞질러 전단문에 들어가 백기를 꽂았다. 온 성중의 사람들은 겁을 내어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이사부가 군사를 끌고 들이닥치자 일시에 모두 항복해 버렸다. 대가야 지배층의 결정을 따를 수 없었던 가야금 연주자 우륵(于勒)도 신라에 투항했다.

금관가야의 '출가야기'(出伽倻記) 이후 그들의 철기문화를 흡수하여 이웃 가야연맹국으로 전파한 대가야 백성들은 망연자실하였다. 그들은 철기문화를 발전시켜 대륙과 반도 및 열도에 수출해 오면서 선진문명의 담지자로서 자존심이 강했다.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520여년을 지속해온 가야연맹의 백성들은 신라에 마음을 열지 않았다. 〈일본서기〉(欽明천황 23년조)는 이때의 상황을 〈양서〉 '왕승변전'을 인용하여 "어찌 솔토지빈(率土之賓), 왕신으로서 사람이 곡식을 먹고 사람의 물을 마시면서 누가 이를 참아들으며 마음에 대도하지 않을 것인가"라고 적었다. 신라는 대가야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이뇌왕의 아들인 월광을 도설지왕으로 옹립했다. 도설지왕이 된 월광은 대가야인들을 안돈시켰다. 하지만 신라는 대가야를 완전히 장악한 뒤 도설지를 내쳤다. 결국 도설지 즉 월광은 가야산 해인사 서쪽 5리에 월광사를 짓고 출가를 하여 말년을 그곳에서 보냈다. 대가야 마지막 왕의 후손이었던 순응(順應)과 이정(理貞) 역시 가야산에 해인사를 세우고 가야의 정신을 이어갔다. 이후 대가야인들의 마음은 가야 지역 곳곳에 남아 전설과 설화로 퍼져나갔다.

2. 정견모주와 해인사

해인사 대웅전 계단 옆에는 대가야 시조신인 정견모주(正見母主)를 모신 국사단(局司壇)이 있다. 순응과 이정은 이 사당 주위에다 해인사를 창건하였다. 해인사는 일곱 번이나 화재가 났지만 이 전각은 불을 피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곳에서는 매월 음력 보름에 큰 재를 올린다. 또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대재를 올린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고령현 '건치연혁' 조에 실린 최치원(崔致遠)의 '석순응전'(釋順應傳)에는 "가야산신인 정견모주의 10세손이자 시조 이진아시왕(伊珍阿?王)의 9세손이며 아버지는 대가야의 제9대 왕인 이뇌왕(異腦王)이고, 어머니는 신라의 이찬 비조부(比助夫)의 딸이다. 두 나라가 혼인을 통해 동맹관계를 맺었으나, 후에 동맹을 깨뜨린 신라의 진흥왕 23(562)년에 대가야가 멸망하였다. 그 후 월광태자는 승려가 되어 가야산 아래 월광사(月光寺)를 짓고 만년을 보냈다"고 한다.

또 여기에는 "해인사에는 정견천왕의 사당이 해인사에 있다. 해인사가 들어서기 전에 가야산신 정견모주 천신이 감응한 곳"이라고 했다. 이곳에는 1,200여년 전 해인사 창건을 기념해 심은 나무가 지금도 자라고 있다. 또 경남 합천군 야로면 북쪽 5리에 세워진 월광사는 대가야의 마지막 태자인 월광이 불문에 귀의하여 결연(출가)한 곳이다. 월광사에는 지금도 탑 두 기가 서서 신라에 멸망한 대가야의 오백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여러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과 유구 및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복원한 대가야의 왕계는 이렇다. 즉 시조신인 정견묘주와 이비하지 사이에서 제1세 이진아시왕이 태어났고 그 아래에서 제3~4세의 금림왕(47호분), 제6~7세의 가실왕(嘉實/荷智王), 제8세의 이뇌왕과 제9세의 도설지왕(월광태자) 정도가 확인된다. 아직 제2세와 제5세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진아시로부터 도설지왕까지 9대에 걸쳐 이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대가야 고분. 웅장하고 화려한 가야 고분은 당시 가야의 국력이 크게 신장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중의 하나였다.

금관가야가 '출가야기' 한 이후 적손이 아니라 지방 추장(방계?)로 이어지기는 했지만, 금관가야의 왕계 역시 9대에서 마감되었다. 반면 대가야의 월광태자는 〈삼국사기〉 '지리지-고령군' 조에 나오는 대가야의 마지막 왕인 제16대 왕 도설지왕(道設智王)과

합천 월광사에 가야 왕조 흔적
월광태자 왕에서 밀려나 출가

동일인으로 보고 있다. 세계(世系)가 다른 것은 10을 16의 오기로 보는 견해와 10대는 직계로, 16대는 왕계로 보는 견해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신라가 세운 단양적성비(545~550)에는 공적을 세운 10여명의 장군이름 가운데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이었던 구해(仇亥)왕의 셋째 아들이자 신라장군이었던 무력(武力, 김유신의 조부)과 함께 신라장군(9위 급간지-丹陽新羅적성비; 8위 사척간- 昌寧眞興王척경비)이었던 도설지(월광)가 적혀 있다. 그리고 진흥왕순수비(561)에는 왕의 수행한 장군이었던 '도설지'(都設智)가 적혀 있다.

표기는 다르지만 도설지는 월광태자가 분명하다. 나라의 비운을 온몸에 안았던 대가야의 마지막 태자 월광은 신라에 의해 도설지왕으로 왕위에 옹립된 뒤 곧 밀려나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는 월광사에서 출가하여 말년을 쓸쓸히 보냈다. 월광태자의 이미지는 신라의 경순왕이 나라를 고려에 바치자 개골산으로 들어간 마의(麻衣)태자와 겹쳐진다. 대가야의 마지막 태자였던 월광(月光)은 우리말 '달님'을 나타낸다.

3. 대가야의 햇빛과 달빛

경북 고령군 지산동 주산 7부 능선에 펼쳐져 있는 대가야 고분군은 후기 가야연맹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대가야의 위용이 잘 나타나 있다. 대가야는 남원과 하동 및 김해와 합천을 좌우로 날개처럼 끼고 머리 부분에 자리한 가야산 주변의 고령을 거점으로 해왔다. 발굴조사에 따르면 봉분이 사라진 무덤까지 셈하면 약 1,000기 고분군이 잔존하며 이중 일련번호를 매긴 큰 고분은 72기이다. 이중 약 30여기는 봉분을 지닌 고분군이다. 현존하는 무덤의 봉분들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으나 공간이 모자라자 다시 아래로 내려와 서부지역으로 확장되었다.

대가야는 일찍부터 백제를 통해 중국 남조(남제)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금관가야를 비롯한 가야 일부지역에는 낙동강 하류를 통해 들여온 남방불교의 흔적이 일부 보인다. 하지만 가야 연맹의 불교는 중국 남조의 대승불교가 주류였다. 능선 중간에 자리한 32호분에는 회칠을 한 좌우 벽면이 드러나 있다. 천정 부분 위에 연꽃 무늬가 그려져 있어 6세기 초에는 이미 불교가 들어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32호분에는 화려한 금동관이 나와 대가야의 문화수준과 강성한 힘을 엿볼 수 있다. 북방에서 이주해온 가야인들에게는 일찍부터 순장제 풍습이 있었다. 44호 고분에는 1인을 위해 35인 순장되었다. 석실 3개와 석관 32개가 출토되었다. 이 무덤에서는 인골을 비롯해서 가야의 철제갑옷과 투구, 금장식, 곡옥 등 수많은 유적과 유구가 나왔다. 또 묘실 안에서도 2명의 순장자 인골이 발굴되었다. 44호분에는 오키나와에서만 나는 야광조개국자가 발굴되어 당시 대가야의 교류폭을 보여주고 있다.

대가야의 수도였던 고령은 가야금을 만든 우륵의 탄생지였다. 〈삼국사기〉 '잡지'에는 가야금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신라고기〉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가야국(대가야)의 가실왕(嘉實王)이 당(唐, 중국)의 악기를 보고 만들었다. 왕이 이르기를 "여러 나라 방언이 각각 다르니 성음(聲音)을 어찌 단일화할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드디어 성열현(省熱縣) 사람인 악사 우륵(于勒)을 시켜 12곡을 짓게 하였다. 우륵은 12곡 모두에다 대가야의 영역을 표시하였다. 당시 가실왕은 왕도를 상부(上部)와 중부(中部)와 하부로 나누어 중앙집권을 도모했다. 대가야 토기의 명문에 적힌 '하부(下部)사리(思利)'는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는 음악을 통해 고대국가의 기틀을 공고히 하려고 하였다. 가실왕 이후 급박한 국제관계 속에서 이뇌왕은 신라와 결혼동맹을 맺었지만 이내 파기되었고 다시 백제와 연맹을 맺었다. 그러자 우륵은 나라가 장차 어지러워질 것을 알고, 악기(가야금)를 들고 신라에 가서 진흥왕에게 의탁하였다. 진흥왕은 그를 받아들여 국원(충주)에 편히 살게 하고 이에 대내마 주지(注知)와 계고(階古)와 대사 만덕(萬德)을 보내어 그 업을 전수받게 하였다.

세 사람이 11곡을 전수받고 서로 이르기를 "이 11곡은 번거럽고 또 음탕하여 정아(正雅)의 악이 될 수 없다" 하고, 드디어 요약해서 5곡을 만들었다. 우륵은 처음 이를 듣고 성을 냈다가 다섯 가지 음곡을 듣고서야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말이 "즐거우면서도 방탕하지 않고 애련하면서도 슬프지 아니하니 정악이라 이를 만하다. 그대들의 왕의 앞에 가서 연주하라" 하였다. 왕이 듣고 크게 기뻐하자, 간신이 아뢰기를 "멸망당한 가야국의 음악이니 취할 것이 못됩니다"고 하였다. 왕은 말하기를 "가야왕이 음란하여 자멸한 것이지 음악이 무슨 죄냐. 대개 성인이 음악을 제정함에 있어 인정을 따라 조절하게 한 것이며, 나라의 흥망이 음조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하였다. 드디어 시행하여 대악(大樂)으로 삼게 하였다. 가야금에 2조(二調)가 있으니 하나는 하림조(河臨

고령은 가야금 만든 우륵 탄생지
우륵, 가야금 12곡에 가야 지명 넣어

調)요 다른 하나는 눈죽조(嫩竹調)로서 모두 185곡이다. 우륵이 지은 12곡은 첫째는 하가라도, 둘째는 상가라도, 셋째는 보기, 넷째는 달기, 다섯째는 사물, 여섯째는 물혜, 일곱째는 하기물, 여덟째는 사자기, 아홉째는 거열, 열째는 사파혜, 열한째는 이혁, 열두째는 상기물이다. 후기 가야연맹을 주도한 대가야는 사라졌지만 영원한 가야인 우륵은 가야금 12곡 이름에 가야 지명을 새겨 넣어 가야를 살려놓았다.

참고문헌

권상로 역주, 〈삼국유사〉(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신호열 역주, 〈삼국사기〉(동서문화사, 1978; 2010).
전용신 역주, 〈완역 일본서기〉(일지사, 1987).
최치원, 「석순응전」, 〈동국여지승람〉
김태식, 〈가야연맹사〉(일조각, 1993).
김태식,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1.2.3(푸른역사, 2002).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민족사, 2005; 2007).
역사스페셜, '대가야 최후의 왕자, 월광은 어디로 갔나'(2001. 04. 21)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설법·화술
설법, 강의, 인사, 축사, 최면 등

교육내용
◆ 좋은 성격, 좋은 음성, 좋은 표정 만들기
◆ 설법, 강의, 인사말, 축사, 최면 등 이론 및 실습
◆ 인간관계 및 설법에 필요충분 조건인 스피치 기법

교육일정
◆ 종합반 :
(1) 매주 목요일 (2개월과정)
(2) 훈련식 교육임으로 하시라도 등록 가능함
◆ 특 혜 :
(1) 3인이 함께 등록할 경우 원하는 일시에 맞추어 드림
(2) 개인지도, 출장지도 가능함 - 직접 상담 결정함

특기사항 : 비디오 촬영 - 모니터링

韓國說法研修院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6번지 고영빌딩 7층 / 1.3.5호선 종로 3가역 1번 출구
010-7248-1567
☎ 02)747-1567 / FAX 02)766-2475
국민 011-24-0405-181 | 농협 217049-51-010252 예금주 : 김철회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원목 법탁

움직이거나 덛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원목 법상
NAVER 무인경보불전함
서원불교 ㈜ 043-647-2378, 011-467-1472

간염, 간경화, 천식, 자궁근종, 물혹, 전립선 으로
더 이상 혼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
한 솔 한 의 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심의필번호: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20312-중-10065호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황금이 소나기처럼 퍼붓는다 해도 끝없는 욕망을 채우지 못한다.
지혜로운 이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안다
만족은 짧고 고통은 길다는 것을.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증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초혼 재혼 인연찾기
불자 독신 남녀 , 결혼, 친구
연인 인연 지어드립니다.
성실하고 진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 환영
인연찾기
02)365-1345
010-9114-4345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49재회향·바라무·
점안식·범음범패
이인연으로성불의씨앗되십시오
011-850-0176

산신제 불공
산신제 불공 월 1회
미리 접수
바랍니다
010-8676-6132

법당 유무선 마이크
고성능이 100만원 초반대
소리를 들어본 후 공사결정
중고고가 매입
전통사찰 200만원대
한성음향
010-4440-8687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 임)
법인 불교단체양도
법인 종단 양도
011-412-8040 법광

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천도재,49재 및
각종 불공
바라작법
스님이 직접 만든 은행 엑기스 판매합니다
011-628-1156

동영상 기문성명학
평생운을 볼 수 있는 한글성명학
용신, 실전사주. 고급-일진내정법
(명반법,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누구나쉽게단기간에배울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쉼 터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비법
대체의학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약사선원
010-2766-7677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작명 개명 전문
보석암
주지 금봉
010-4063-0087

지장대사 원력 천도법
1. 조상빙의와 대화를 통한 천도재
2. 빙의 퇴마 치료전문
3. 가정우환, 병명없이 몸이 아프신 분
4. 엑소시스트도 치료 못한 환자도 치료
금 강 사
010-2418-6222

신심있는 화주보살님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1-774-4099

육임배울 분
정통으로
성심껏
지도하겠습니다
011-729-6011

평생 함께 살 50대전 비구니 도반 스님을 찾습니다
(포항 동호사) 주지 혜연 합장
054)284-6601
010-3376-6601

사찰처사 구합니다
운전 및 숙식가능하신 분
(50대, 경기 성남)
010-5264-831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평택)
031)682-5583
010-4541-445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938-7957
010-3738-0338

전통 염불 배우면서 부전스님 하실 분
(55세 미만)
010-3428-6665

심 와 기 도
• 업장을 소멸시키고 운도 바뀌게 하는
심와기도법을 스님에게 전수합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9호 부산영산제 연수원(바라,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 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특전 2. 부산시 문화재 행사 출전 실무
부 전 스 님 안 내
부전스님 필요한 사찰
부전 사찰이 필요한 스님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010-5511-7000 (사주,명리,영가찾는법 개인지도)
전통불교조계종에서는 종도 여러분의 입종을 환영합니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합천)
010-9506-570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234-2198
011-9721-2198

공부하는 부전스님만을 모십니다
016-9779-0191

공양주(급) 구합니다
처사(70대 전) 구합니다
(산의 조그만 암자)
02)954-9848

佛 불영TV
불영TV는 인터넷방송으로 영상 뉴스 다큐 법문 행사(사찰순례,산사음악회)등 의 영상사업전반에 걸쳐 토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영상포교의 선구자가 되고자 합니다.
■ 원통스님 관세음보문품 CD27장 190,000
■ 예불대참회문 DVD 52장 290,000
■ 원순스님 신심명 12장 120,000
■ 능엄주(도민스님)DVD동영상+오디오CD 15,000
www.bytv.kr 영상제작 및 구입문의
02)2236-7209, 010-8519-9279 < 법보시 상담환영 >

간암,위암,폐암 등 각종 암과 종양(혹) 갑상선 일반
난치병 빙의(귀신병)등 치유 됩니다.
상담하여 주세요
010-4547-002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순천 정혜사)
061)755-8484
010-4174-741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정릉)
02)919-048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양산)
보시금 130만원)
055)375-0142
011-880-660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010-8982-2328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예비스님(행자)모집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대학, 강원, 기본선원)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산중사찰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 문의 : 010-9562-8228

불자축구팀 FC붓다 회원 모집
축구를 통한 불자들의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불자축구팀인 'FC붓다'가 신규회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대상 : 불교계에 종사하는 불자 (서울, 경기지역 / 20~50대까지)
▣ 매월 2, 4주 토요일 09시부터 정기모임 (인조잔디 전용구장)
▣ 불자축구대회 준비 중
홈페이지 - http://WWW.fcbuddha.com
페이스북 - FC붓다 / 문의 010-7339-8688

불교성지순례 전문여행사
프리랜서 직원 모집합니다
40세 미만
모집인원 : 00명
02)365-7747 / 010-9468-1714

임종 전까지 함께 할 50세 전후의 신심깊고 후덕한 보살님을 찾습니다
02)584-8844

서울, 경기 지역
절,법당,빈집,건물 무상으로 관리를 맡기시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여 도움 주실 분을 찾습니다
010-3131-0772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무량사
• 법 명 : 한법은(한해웅)
•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340
• 사찰명 : 해광사
• 법 명 : 하정오(하종기)
• 주 소 : 경북 영천시 화산면 삼부리 42
• 사찰명 : 용문사
• 법 명 : 이무영
• 주 소 : 경북 영천시 대창면 병암리 641-4

위 사찰 본인은 귀 종단의
종헌종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행된 총무행정에 따를 수 없어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불기2556(2012)년 6월 1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강 화 고 려 사
매주 토요일 철야정진
■ 시 간 : 21 : 00 ~ 03 : 30
■ 내 용 : 법화경 전품 독송
■ 동 참 금 : 성의껏

천일동안 법화경 일천번 독송
한 가족 매일 축원 : 한 달 30,000
(전화/팩스 접수 가능)
■ 기도 · 요양 하실 분 환영
진달래 축제로 유명한 고려산에 소나무가 많아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3km 거리에 강화 해안도로가 있고,
15분 정도 절 뒤편의 산으로 오르면 아름다운 석양을
볼 수 있는 법화경 독송 수행 도량입니다
■ 전화 032)932-3525 FAX : 032)934-3525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사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331-4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원거리일 경우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❶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❷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❸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❹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❺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 강 욱
☎ 010-9842-4200
과장 김 상 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불 자 정 보 26 | 892호 | 전면광고

2012년 6월 13일 수요일 / 불기 2556년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 법당 : 35(목)
- 요사 : 60평
- 삼성각 : 5평
- 부지 : 2200평
- 가액: 약 30억이 소요됐으나 사정상 경남 부산, 양산, 창원지역 20억 정도 건물이나 사찰과 교환하고저 합니다

- 위치 : 경기
- 법당 : 30평
- 요사 : 50평
- 부지 : 80평
- 가액 : 2억

- 위치 : 경남
- 법당 : 25(목)
- 요사 : 75평
- 부지 : 1,000평
- 가액 : 8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경남 사천 아름다운 토굴(급)

- 총 부지 : 630평
- 건물3동, 법당25평, 요사(방5칸)
- 사천읍내 5분거리
- 가액: 1억8500(은행 7천)

대 사찰 급 양도(반값)

- 총 부지: 약 1000평(평지)
- 건물8동,목조40평 2동, 요사채 방(12개)
- 사천왕 ●종가: 대북, 대종
- 진주공원 부근,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 총가액: 9억(은행 6억가능)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공양주 구함 (수수료 없음)

직011)560-8522,051)863-662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암자,토굴,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광역시 동구 신도시 인근
- 부지 : 500평(종교용지)
- 법당 25평, 요사 40평
- 산신각 5평
- 가액: 3억 7천만원
- 특징 : 신도시 인근의 조용한 사찰로 포교지로 좋음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창녕읍
- 부지 : 100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
- 요사: 2동 50평
- 기타: 산신각, 나한전, 용왕당 등
- 가액: 1억 9천만원
- 특징 : 도심 인근의 조용한 사찰로 기도정진 할수 있는 도량임

좋은인연 됩시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 서울 010-5828-045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산청 지리산
- 면적 2,100평, 대웅전 30평
- 요사채 각 80평, 30평
- 산과 강이 잘 어울어 아름다운 사찰
- 가액: 6억 5천만원

010-2610-9997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시 계양구 경인교대역 근처
- 약 32평
- 삼존불, 소불100불, 큰방1, 부엌
- 보증금 5백만원, 월 43만원
- 시설비 1천만원
- 몸만 오시면 됨

010-6449-623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구미 등산로입구
- 총평수 : 580평(종교용지)
- 국유지로 임대료 년220만원
- 법당 황토방등 요사3동
- 가액 : 1억 5천만
- 50여년의 역사가 있는 사찰임
- 비품일체 포함 양도

010-3413-3212

경관 좋은 토굴,산방터

- 위치 :경남 합천군 용계리
- 답,임 약 800평
- 남동향,시멘트 포장도로접
- 청정한 계곡과 수려한 경관
- 만대산7~8부 능선,건축가능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3900만원

010-9367-1010

최고의 암자터 급 안내

- 위치 : 전남 순천시 승주읍 월계리 소재
- 최고의 명당, 도로접
- 임야 4830평
- 가액: 4천만원

010-4396-773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시
- 상가, 시장, 주거지 밀집지역
- 4층 37평, 옥상이용, 창고1 별도있음
- 시설 5개월된 미개원
- 전세 5백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별도(모든 집기) 답사 후 절충

052)287-8180

사 찰 안 내

- 한번 가보고 싶은 사찰
- 지리산 천왕봉 아래 위치 최고(목조건물)
- 아주 완벽한 전통사찰
- 대웅전 27평(토굴) 황토, 요사채 55평
- 법륜전 70평 6개 각방 욕실완벽
- 등산로 끝까지 도로 포장되어 있음
- 현공풍수학으로 (최고 좌향)
- 가액 : 8억

010-4586-4525

사 찰 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명곡동
- 전 1,200평, 2500평, 3600평
- 평당 65만원
- 물좋고 양지바르며 태풍의 피해가 없는 명당땅
- 원로스님, 유명지관이 추천하는 명당 창원 통합시 인구 110만명의 도심속의 주변야산 200만평 속의 금세기 최상의 큰 절터

010-9393-8945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가야곡 야촌리 논산 IC 2분거리
- 대지 125평 조경완벽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0평, 공양간 15평,
- 석물- 5층석탑, 해태 1쌍 연못 조경 완벽
- 가액 : 1억 3천만원

011-9004-1492
041)741-1492

사 찰 안 내

- 충북 청원군 이원면 운암리
- 청석굴 관광지역
- 대지 220평, 요사채, 산신각 60평
- 해수관음 모셔져 있음
- 법당 25평, 밭 754평, 총 1142평
- 가액: 3억 5천만원

010-8801-3837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밀양시
- 대지 500평
- 법당 30평(단청완료)
- 요사채 약 50평 2동, 산신각 2평
- 가액: 4억

017-802-3290

사찰자리(터)

-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 대지 약 600평 ● 가옥 3채
- 가야산자락 주변경관수려함
- 선방 ,절터로 최적지임
- 가액: 2억 8천만원

010-8880-1180
010-8886-0602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청송
- 대지 : 135평
- 법당 14평, 개금 삼존불
- 후불, 칠성, 지장, 신중, 영가단
- 심야전기
- 주차장 완비, 도로에서 200m
- 가액 : 9천5백만원(조정가)

010-4146-6556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구미시
- 임야 2500평, 야산 5000평, 대지 1500평
- 건평 110평, 법당 50평, 요사채 60평, 산신각
- 주차장 2,000평
- 소나무 많고 산세 좋음
- 가액: 7억 5천만원

010-9433-3543

사 찰 안 내

- 물좋고 공기 좋은 경북 왜관 사찰
- 부지 : 2천 500백평
- 법당, 삼성각, 용왕당, 공양간
- 대출 1억 6천포함
- 총포함 4억 9천만원

010-7246-010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최요지
- 평수 22평
- 모든시설완비, 최고의 조건
-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시설비 합 500만원

010-8315-2100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 시내 중심가
- 3층
- 평수 : 60평. 시설 A급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90만원 (조절가능)
- 시설비 상담후 결정

011-9335-553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소개동 (사찰등록)
- 평수 40평
- 구조: 스님방 따로 (욕실, 화장실,주방포함) 공양간 별도있슴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비품일체)

010-8940-5858
055)252-3172

사 찰 안 내

- 위치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 평수 37평
- 법당, 방 4개 등 시설완비
- 보증금 3천만원, 월 20만원
- 150년 역사
- 몸만 오시면 됨

02)914-5214
010-4788-7157

농 가 주 택

경북 영양

한적한 계곡에 위치한

대지 194평

건물 4동, 건평 46평,

암자시설 호 조건

주인직 6500만원

010-8899-8899

사찰터(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산시 (남향)
- 총평수 613평 중 대지 350평
- 별도부지 263평
- 건평 1동 130평(옥상사용가능)
- 방4, 대형방3, 심야전기보일러 수세식화장실 3, 주차시설완벽 큰도로 30m, 집기포함
- 가액: 5억 5천만원(상담후절충)

011-3188-1241

사 찰 안 내

- 팔공산 한티재 부근
- 대지 200평,법당, 요사채 60평
- 삼존불, 노상 지장보살님
- 집기일체 양도
- 주변 경관수려함
-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2천만원, 월60만원
- 시설비 2천 8백만원

016-849-8889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기장군 읍 대라니
- 평수 : 82평, 4층 4층
- 법당·삼존불,신중단,칠성,용왕,산신,지장단
- 인등 : 지장등 관음등
- 종무소, 주지실, 친견실, 주방, 화장실, 창고, 최고시설, 몸만 오시면 됨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 시설비 2천 9백만원

010-5031-808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거창 남상면
- 전 300평
- 소나무산속 정남향 자연경관수려
- 거창지방도로인접
- 가액: 9천 2백만원

010-2493-2452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남부동 주택단지내
- 법당 삼존불, 신중, 영가단
- 방2,거실1,공양간1, 2층은 비어져있음
- 60평, 시설비무료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모든시설완비, 즉시법회가능
- 개인 사정상 급양도

010-4036-3048

사찰터 안내

- 경남 창원시 명곡고교 뒤 야산
- 전 350평
- 가액: 상담 후 차후 결정
- 물좋고 양지바르며 태풍의 피해가 전혀 없는 명당땅
- 원로스님, 유명지관이 추천하는 명당 창원 통합시 인구 110만명의 도심속의 주변야산 200만평 속의 금세기 최상의 큰 절터

010-9393-8945

포교원(급)안내

- 위치: 충남 천안시 대흥동
- 5층 80평, 엘리베이터 有
- 천안역 3분거리 ●관음, 칠성, 산신, 용궁 모셔져있음, 후불탱화,신중탱화
- 법당, 큰방1, 에어컨2대, 냉장고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만원(조정가능)

04)558-6658
010-4781-865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 군포역 부근
- 면적 : 65평, 방 9개
- 시설비최저가절충
- 즉시입주가능
- 보증금 천만원 월세 팔십 시설비 1천만원

031)427-447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 시내
- 평수 180평
- 산신각, 용왕당 대웅전(23평), 종각 요사채
- 가액: 1억 6천만원 (시설비 포함)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1-532-5919

광 진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90평
- 법당: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6억5천

- 위치 : 경기,용인
- 부지 : 700평
- 법당 : 35평(목조포집)
- 요사 : 60평
- 가액 : 33억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인근
-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30평, 요사채 20평, 공양간 10평, 해우소3평반
- 청돌암반지하수 130mm, 물수량 100톤 일급수 cc카메라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잔디 및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IC 5분거리 1호선 국도 8분거리
- 개인사찰,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 가액: 5억 5천만원 (조정가능)

010-6375-0108

불교용품점(급)안내

불교 용품 전문점 (중,대형)

서울 근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성업중 . 개인 사정상 급 양도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가액: 상담 후 결정

010-6397-944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소재
- 나대지 533평, 법당 23평, 경관 전망 좋음
- 요사채 23평 ● 가액: 2억 6천
- 구미 15분거리, 도심지역 사정상 급 양도

- 전원주택, 요양원 부지, 경관 전망 좋음
- 833평 ● 가액:1억 5천만원

010-4514-3136(스님직접)

사 찰 안 내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종교부지 및 산 168-2
- 종교부지: 5,577 ㎡, 산 168-2 : 13, 640㎡ 합계 19,217㎡ (5,830평)
- 건물 4개동 : 대웅전 1동, 요사채(2층) 1동, 부속건물 1동, 스님승방 1동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장기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
02)403-3333 / 031)771-1816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8차선대로변
- 3층건물 3층, 법당 25평, 방3개,공양간1, 화장실2
- 2층 옥상 마당같이 넓은 25평 사용
- 총평수 100평
- 설비: 영가단, 후부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불기 일체
- 가액: 전세 7천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1-9864-1095

전원주택.실버.요양지적지

- 사천시 사남면 가천리 67번지.현 전원주택
-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갖춘 정남향
- 스틸하우스 1동 23평
- 컨테이너 건물 2동 8평
- 나무때는 황토방 1동 3평
- 대지 : 554평, 1억 9천 5백만원

011-9517-8526

포교원(급)안내

- 위치: 충남 해수욕장 부근
- 법당: 삼존불, 후불, 신중, 각탱화
- 남향기와집, 텃밭, 대지 124평(건물 약 30평)
- 전세+시설비+가구일체= 오천만원(월세없음)
- 주차시설완비. 소임관계로 급 양도
- 조절가능, 꼭 하실분만 연락
- 몸만 오시면 됨, 조용한 마을에 위치

070-4142-4927

포교원안내

- 위치 : 울산시
- 상가, 시장, 주거지 밀집지역
- 4층 37평, 옥상이용, 창고1 별도있음
- 시설 5개월된 미개원
- 전세 5백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별도(모든 집기) 답사 후 절충

052)287-8180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후포면 금음리
- 대지 150평, 전 170평
- 건물 18평 (조립식)
- 마을끝 산자락에 위치
- 바다보임, 산세수려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요망
- 가액 : 9천만원

054)787-2697
010-3518-3958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동구 신암동
- 3층건물중 2층(45평)
- 삼존불,산신, 각탱화, 소불270,지장관음
- 친견실,방1,공양간,창고, 수세식화장실,세면실
- 에어컨, 집기일체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500만원, 월45만원
- 시설비 3000만원(조정가능)

010-5555-8744

사 찰 안 내

- 부산시 금정구 지하철 10분 이내 거리
- 1층 요사채(화장실 2개, 방4개, 거실), 2층 법당
- 신축개조, 법당, 단청일체
- 삼존불 은행목불, 원목불단, 108소불 있음
- 1층 약사불, 포대화상
- 2층 산신, 용왕, 독성 별도
- 위치좋고 옆 공원 산세 좋음
- 스님 건강 관계로 9억(절충가능)

010-2503-0776

사 찰 안 내

- 위치: 광주 나주 중간 도심근교
- 토지 400평
- 법당, 요사채
- 가액: 1억 5천만원
- 꼭 필요하신 분 연락주세요

011-9602-2293

포교원(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 시내
- 5층 80평, 엘리베이터 有
- 천안역 3분거리 ●관음, 칠성, 산신, 용궁 모셔져있음, 후불탱화,신중탱화
- 법당, 큰방1, 에어컨2대, 냉장고
-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1천만원(조정가능)

04)558-6658
010-4781-8658

사찰터 안내

- 경남 창원시 명곡고교 뒤 야산
- 전 350평
- 가액: 상담 후 차후 결정
- 물좋고 양지바르며 태풍의 피해가 전혀 없는 명당땅
- 원로스님, 유명지관이 추천하는 명당 창원 통합시 인구 110만명의 도심속의 주변야산 200만평 속의 금세기 최상의 큰 절터

010-9393-894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진역 맞은편
- 삼존불, 후불, 신중, 산신탱화
- 주방가구 일체
- 30평, 방2, 주방,샤워실
- 가액: 보증금 6백만원, 월 59만원
- 시설비1천만원, 주방기구 일체

010-2208-7749

불교용품점(급)안내

불교 용품 전문점 (중,대형)

서울 근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성업중 . 개인 사정상 급 양도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가액: 상담 후 결정

010-6397-944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소재
- 나대지 533평, 법당 23평, 경관 전망 좋음
- 요사채 23평 ● 가액: 2억 6천
- 구미 15분거리, 도심지역 사정상 급 양도

- 전원주택, 요양원 부지, 경관 전망 좋음
- 833평 ● 가액:1억 5천만원

010-4514-3136(스님직접)

사 찰 안 내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종교부지 및 산 168-2
- 종교부지: 5,577 ㎡, 산 168-2 : 13, 640㎡ 합계 19,217㎡ (5,830평)
- 건물 4개동 : 대웅전 1동, 요사채(2층) 1동, 부속건물 1동, 스님승방 1동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장기임대 (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 주인직접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010-4225-0012
02)403-3333 / 031)771-1816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간석3동 8차선대로변
- 3층건물 3층, 법당 25평, 방3개,공양간1, 화장실2
- 2층 옥상 마당같이 넓은 25평 사용
- 총평수 100평
- 설비: 영가단, 후부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불기 일체
- 가액: 전세 7천만원, 시설비 1천5백만원
- 꼭 하실분만 전화 요망

011-9864-1095

전원주택.실버.요양지적지

- 사천시 사남면 가천리 67번지.현 전원주택
- 청룡, 백호, 주작, 현무, 갖춘 정남향
- 스틸하우스 1동 23평
- 컨테이너 건물 2동 8평
- 나무때는 황토방 1동 3평
- 대지 : 554평, 1억 9천 5백만원

011-9517-8526

포교원(급)안내

- 위치: 충남 해수욕장 부근
- 법당: 삼존불, 후불, 신중, 각탱화
- 남향기와집, 텃밭, 대지 124평(건물 약 30평)
- 전세+시설비+가구일체= 오천만원(월세없음)
- 주차시설완비. 소임관계로 급 양도
- 조절가능, 꼭 하실분만 연락
- 몸만 오시면 됨, 조용한 마을에 위치

070-4142-4927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을 힘써라. 오직 저 니르바나를 향해 나아가라. - 장부경전 -

마음 길들이기

〈2〉 마음을 계발하는 방법

아쟌 차 스님 (태국)

법을 수행하려면 반드시 마음을 숙여 법 앞에 절하라



그림 · 박구원

부처님 법따라 수행하는 것이 지름길

자기 기분을 좇는 대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Dhamma)으로 자신을 길들여야 합니다. 게으르게 하든, 부지런하게 하든 그저 계속 정진하십시오. 그 길이 훨씬 낫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다른 길, 즉 당신 기분을 좇는 길은 아무리 헤매어 봐도 결코 법에 다다르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법을 닦는 다면, 그 때는 기분이야 어떻든 상관없이, 끊임없이 정진을 하게 됩니다.

이 길이 아닌 다른 길, 즉 제멋대로 공부하는 길은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이 아닙니다. 수행에 대해서 또 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낸 소견을 따른다면, 우리는 곧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그른지 명확히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은 가장 느린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법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게으를 때도 수행하고 있고 부지런할 때도 수행하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이 어느 시간 어느 공간을 향하고 있는지 항상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계발' 이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견해를 따라 수행하던 사람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의심을 하게 됩니다. "난 별로 소질이 없나봐. 행운도 없어. 벌써 몇 년이나 공부를 했는데도 아직 깨닫지 못했어. 난 아직 법을 보지 못했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로 수행하는 것을 '마음의 계발' 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재앙의 계발' 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그와 같다면 즉 아직도 뭐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보지를 못하는 수행자라면 또 아직까지 스스로를 새롭게 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릇되게 공부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난다여, 부지런히 수행을 하라! 수행을 끊임없이 향상시켜라! 그러면 그대의 모든 의심도, 모든 불안도 사라지리라."

의심은 생각이나 이론으로, 사변이나 토론으로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 해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번뇌는 오로지 바른 수행을 통하여 마음을 향상시키는 것에 의해서만 없어집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마음을 계발하는 방법은 세속의 방법과는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가르침은 청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속의 번뇌를 떨어낸 청정한 마음이 바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길입니다.

법을 수행하려면 여러분은 반드시 마음을 숙여 법 앞에 절해야 합니다. 법이 여러분에게 절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가 생기고 맙니다. 이 고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수행을 시작하려 하면 바로 그 때 고가 그곳에 나나 버티기 때문입니다.

선정 수행은 정념 · 침착 · 지족 갖춰야

선정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의무는 정념(正念), 침착 그리고 지족(知足)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멈추어 줍니다. 길들여진 적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의 습성을 멈추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성가시게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마음을 길들이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 마음은 타고난 그대로 거친 채로 남아 있게 됩니다. 원래 마음의 성품은 이롭게 쓰일 수 있도록 길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의 예에 견줄 수 있습니다. 나무는 집을 짓는 재목이지만, 다듬지 않은 자연상태 그대로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집 짓는 데 소용되는 널빤지로도 다른 무엇으로도 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수가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그는 바로 이런 나무를 찾을 것입니다. 그는 이 원자재를 가지고 필요한 대로 깎고 자르고 해서 용도에 맞게 활용할 것입니다. 단시간 내에 그는 훌륭히 집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선정이나 마음계발도 이와 비슷합니다. 숲속에서 자연 상태의 나무를 취하듯이 길들여지지 않은 이 마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 상태의 마음을 보다 품위 있게, 보다 스스로를 잘 알고 감수성도 더욱 예민하게 되도록 길들여야 합니다. 모든 것은 원래 자연 상태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본연의 성질을 알게 되면 그때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로부터 떨어질 수 있으며, 그것을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움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원래 성질이 이와 같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떤 대상에 집착할 때에는 반드시 동요와 혼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마음은 처음에는 이곳을 방황하다가 그 다음에는 저곳을 방황합니다. 이 같이 동요하는 모양을 관찰하다 보면 마음을 길들인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 애써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생각과 감정은 이처럼 배회합니다. 마음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성질을 거듭해서 잘 살펴보면 마음은 원래 그런 것이며 또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성질입니다. 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으면 우리는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헤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놓고 우리 스스로에게 '그건 원래 그런거야' 라고 꾸준히 되뇔 수만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덧붙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모든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마음은 그것들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사유와 느낌이 아직 남아 있긴 하겠지만 그 사유와 느낌 자체가 이미 힘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 마음은 비유컨대 다음의 어린애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어린애는 까불며 놀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이 지나쳐 우리의 신경을 거슬렸다 해서 이 애를 야단치고 때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마땅히 어린애들은 원래 그렇게 행동하기 마련이라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아이가 제멋대로 놀도록 내버려 두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풀려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린 아이의 방식을 받아 들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하여 사물의 참 성질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놓아둡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더욱 평안해집니다. 우리는 '사물에 대한 바른 이해' 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 법대로 수행하지 않고
제멋대로 공부하면 '재앙의 계발'

대상에 집착할 때 동요와 혼란 생겨
있는 그대로 보면 바르게 이해하고
집착감에서 벗어나 마음 평안해져

마음을 길들여야 하는 이유
다듬지 않은 나무로는
집을 지을 수 없듯이
마음 계발도 이와 비슷

더 이상 풀어야할 수수께끼 없는 상태

그릇된 이해를 지니고 있는 한,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살아도 혼돈이고 하늘 높은 곳에서 살아도 혼돈입니다. 바른 이해가 있을 때만이 마음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풀어야할 수수께끼도, 더 이상 생겨날 문제도 없게 됩니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떨쳐버립니다. 여러분은 놓아버립니다. 집착하는 감정이 일어나면 그때마다 우리는 그 집착감이 원래 그렇게 존재할 따름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서부터 헤어 나옵니다. 그 집착감은 특별히 우리들을 성가시게 굴려고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원래 그런 식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새삼 정색을 하고 그걸 깊이 숙고해 봐도 여전히 집착감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착감을 놓아버리면 그때 색깔은 단지 색깔이고 소리는 단지 소리이고, 향기는 단지 향기이고, 맛은 단지 맛이고, 감촉은 단지 감촉이고 마음은 단지 마음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각기 물과 기름처럼 별개입니다. 설혹 여러분이 물과 기름을 같은 병 속에 넣어도 각기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뒤섞이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이 다른 것처럼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도 다릅니다. 부처님도 색깔과 소리, 냄새, 맛, 촉각, 생각의 여섯가지 대경(對境)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아라한(깨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쪽으로 살았습니다. 그분은 마음은 단지 마음이고,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돌아보지 않고, 조금씩 멀리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들에 혼동되지 않았고 또 그것들을 뒤섞어 놓지도 않았습니다.

이 글은 (사)고요한 소리에서 펴낸 보리수잎 시리즈 중 2편 〈마음 길들이기〉의 내용입니다.

불자정보 892호
TEL 02) 2004-8215(直)
FAX 02) 737-0696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니다.

포교원안내
• 위치 : 동대구역, 고속터미널부근
• 5층건물중 3층
• 평수 60평(법당,방3,거실, 공양간,욕실)
• 삼존불,탱화(상단/신중 /칠성/산신)
• 소불 200불, 전통나무불단
• 보증금 1천만원에 월 88만원 (시설비 3천5백만원)
• 모든비품일체양도, 법회즉시가능
010-4634-3015

전원주택 겸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월정사입구
• 평수: 2500평 (토굴가옥1채포함)
• 계곡물 맑게 흐르고 양지바르며 자연경관이 수려함
• 가액: 2억 5천만원
010-9057-2211

포교원안내
• 위치 :경남 진주
• 평수: 4층 건물에 2,3층 사용
• 모든 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85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0-8390-6654

사찰터 안내
• 위치 :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두산리
• 대지 526평
• 사찰이나 전원주택지
• 평당 80만원 • 30평 허가나 있음
• 절충가능(최대1억5천만원 융자 가능)
017-855-6717
017-856-2344

포교원안내
• 위치 :울산 남구 신정 1동 630-21번지
• 평수 70평, 방6개
• 포교원으로 아주 적합한 장소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052)227-9306
010-4775-7973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동구 지하철역 앞
• 평수 : 58평 3층건물 2층
• 삼존불, 신중, 칠성, 산신, 용왕, 각단탱화
• 만년위패 330위, 호신불 약 300불(인등사용)
• 방2개, 화장실 별도
• 보증금 5천만원 월세 40만원
• 전세 가능
• 시설비 상담후 결정(A급)
011-9588-5923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도천면 송진2리 240번지
• 평수: 540평
• 대웅전 25평, 산신각 5평 요사채 2동 각 13평, 5평
• 가액: 1억 7천만원 (꼭 하실 분 절충가능)
011-571-8961
010-2739-3816

포교원(급)안내
• 위치 :도봉구 쌍문동
• 4호선 2분거리
• 평수: 주택건물 2층
• 대지 85평 요사 95평
• 가액: 11억 5천만원
02)588-6118

사찰안내
• 위치 : 울산 중구
• 평수 : 약 50평
• 법당, 공양간
• 보증금 5백만원 월세 8만원
• 시설비 1천 5백만원
010-4560-0058
019-482-3778

사찰안내
• 인천시 남구 도화 1동 441-1번지
• 평수 : 48평
• 건물 : 4층건물에 2층
• 시설 : 3불상, 후불탱화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 : 3백만원(절충할수 있음)
032)875-4984
011-259-1604

포교원(급)안내
• 위치: 충남 해수욕장 부근
• 법당: 삼존불, 후불, 신중, 각탱화
• 남향기와집, 텃밭, 대지 124평(건물 약 30평)
• 전세+시설비+가구일체= 오천만원(월세없음)
• 주차시설완비. 소임관계로 급 양도
• 조절가능, 꼭 하실분만 연락
• 몸만 오시면 됨, 조용한 마을에 위치
070-4142-4927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지산동 아파트 단지
• 평수 : 40평
• 보증금 : 1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3천만원
• 법회 즉시 가능
010-7726-2358

포교원안내
• 위치 : 창원시 진해구 이동
• 2층 25평, 대로변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없음
• 명당터, 교통편리, 주차장완비
• 광개토 부동산 서영현
010-7180-2235
055)256-1686

포교원안내
• 위치 : 망월사 전철역, 아파트 밀집지역내
• 평수 : 35평
• 현대식시설, 살림가능
• 산사 이전 관계로 양도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관리비 無
• 시설비용, 답사 후 상담결정 (저렴한비용)
010-8522-2203

사찰 및 별장 가든 (급) 안내

▣ 공주시 반포면 소재
대지 520평, 건물 단층 60평 슬라브
가액 : 5억 주인직 절충 가능
세종시에서 5분거리

▣ 공주시의 당면소재 대 538평
건물 2층 84평
가액 : 5억 5천 주인직 절충가능
세종시에서 5분거리

▣ 지리산 중산리 천혜의 계곡 물
교통 좋음, 대지 2000평
별장건물 2동 70평
잔디 펜션

주인 017-422-3114
직접 010-9223-3117

'현우경' 이야기 (24)

하늘에 태어난 앵무새

아난다의 설법을 외운 앵무새들은…

어느 나라에 수닷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율제와 사율제라는 앵무새 두 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수닷타는 앵무새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다. 앵무새는 매우 영리해 수닷타의 말을 잘 알아들었다.

수닷타의 집에는 비구스님들의 왕래가 잦았다. 앵무새는 스님들이 수닷타의 집을 찾으면 아름다운 소리로 즉시 소식을 알렸다. 수닷타는 그런 두 마리의 새를 매우 사랑했다.

어느 날 아난다가 수닷타의 집을 찾았다. 새들은 아난다가 온 것을 보고 매우 반갑게 맞이했다. 아난다는 새들의 영리함에 반했다.

"너희들은 정말 영리한 녀석들이구나. 너희들은 사람 말을 알아듣느냐."

"네. 알아듣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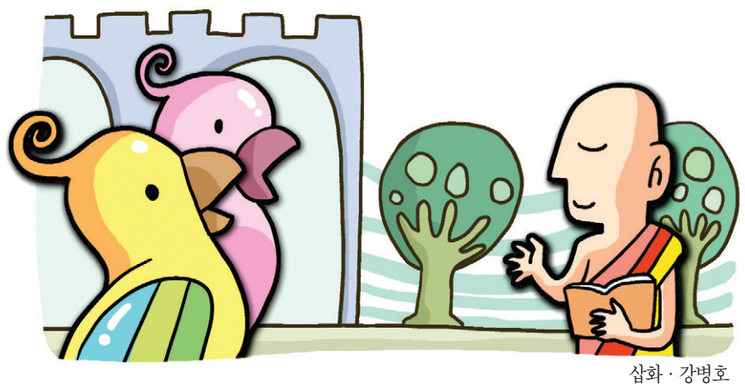
"그럼 내가 법문을 설해주겠다."

새들은 매우 기뻐했다. 아난다는 고집멸도(苦集滅道)에 대해 설했다. 새들은 아난다의 설법을 경청했다. 이들은 설법을 듣고 난 후, 몇 번을 되풀이하며 그 내용을 외우기 시작했다.

어느 날 율제와 사율제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독경을 하고 있었다. 우연히 수닷타의 집 앞을 지나가던 사냥꾼이 새들의 독경 소리를 듣게 됐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가진 새가 있다니."

사냥꾼은 새들의 아름다움에 반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 했다. 사냥꾼은 새들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쉽사리 잡히지 않았다. 결국 화가 난 사냥꾼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활을 쏘아 새들을 죽였다. 새들은 그 자리에서 그만 죽고 말았다. 아난다는 새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잠겼다.



삽화 · 강병호

이 모습을 본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슬퍼할 필요 없다. 그들은 지금 사왕천에 태어나 잘 지내고 있느니라."

"어떻게 그 사실을 아십니까?"

"저 새들은 너에게 법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외웠기에 그 복으로 사왕천에 태어난 것이다. 인간계의 십년은 사왕천의 하루다. 그곳에서 오백년을 지낼 것이다."

"그곳에서 목숨이 다한 후에는 어느 곳에서 태어납니까?"

"두 번째로 도리천에 태어날 것이다. 사천왕의 백년이 도리천의 하루인데, 그곳에서 천년을 살 것이다."

"그 다음에는 어느 곳에 태어납니까?"

"야마천에 태어날 것이다. 도리천의 백년이 야마천의 하루이며, 이곳에서 천년을 지낼 것이다."

"그 다음에는 어느 곳에서 태어납니까?"

"도솔천에서 태어난다. 야마천의 백년이 도솔천의 하루이며, 도솔천에서 사천년을 살 것이다."

"도솔천에서 살다 죽어도 또 다시 태어납니까?"

"교만하지 않고 즐거움도 탐닉하지 않는 세계에 태어날 것이다. 도솔천의 백년이 이곳의 하루이며, 팔천년을 살 것이다."

"이곳이 새들이 태어나는 마지막 곳입니까?"

"아니다.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곳에 태어나 만 육천년을 살 것이다. 이곳의 하루는 교만하지 않고 즐거움도 탐닉하지 않는 곳의 백년이다. 그리고 다시 새들은 거꾸로 다섯 번째 하늘로 내려갔다가, 도솔천, 도리천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여섯 하늘을 일곱 번 왕복하며 다시 태어나게 된다."

"하늘에서 나고 죽음이 다하면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다시 인간계로 내려올 것이다. 한낱 미물인 새마저도 법문을 듣고 외웠는데 사람은 어찌해야 되겠느냐. 그 과보는 비교할 수 없느니라. 새들은 네가 일러준 네 가지 진리를 다 외웠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아 프라데카 부처로 태어날 것이다. 하나는 담마고, 또 다른 이는 수담마가 될 것이다."

부처님이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나 스님, 중생들이 복을 받는 것은 많거나 적거나 선한 업을 쌓았기 때문이다. 선한 업을 많이 쌓을수록 훗날 많은 복을 얻게 된다. 또 그 크기에 따라 나고 죽음을 결정되게 된다. 그러니 평소 선한 인연을 많이 쌓아야 하느니라."

구성=이은정 기자 soej84@hyunbul.com

팔만대장경 속 우화 26

[혼자서 수도를 할지언정…]

구성-김흥인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25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 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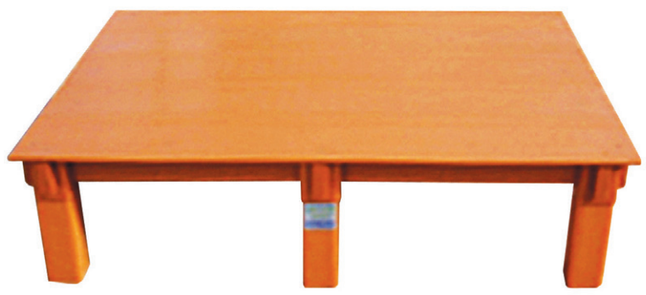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6-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 3칸겹집 목조건물 : 9500×7000×4500㎜ / 가격 : 평당 150만원
다그라스목재기둥 180×180×2470 / 다그라스목재도리 170×170
다그라스목재서까래 100×100 / 목재판재 120×18 전통강판기와
주춧돌 300×300×300 ※ 황토흙 ALC블럭 내화벽돌 판넬 자유 선택
원하는 평수 가능 토목공사 부가세별도



◆ 눈비를 맞아도 썩지않는 조립식 평상 : 1800×1030×400㎜
~~가격 29만원~~ → 할인가 19만원
부가세 운송비 별도
폴리프로필렌 자재 기둥 110×90×400 / 도리 80×35 / 중간대 80×35 / 마루판 210×12
연결이동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 설치가 간단한 평상

지구산업
www.bangaro.com / 방갈로.com
TEL 063)323-3011~2 / FAX 063)323-3010

'적하수오' 묘목 분양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묘목을 분양 합니다.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문의 : 010-8442-4444 (상담)
■ 묘목 재배 농장 :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대행 스님

우리의 불성 에너지는 그대로 영원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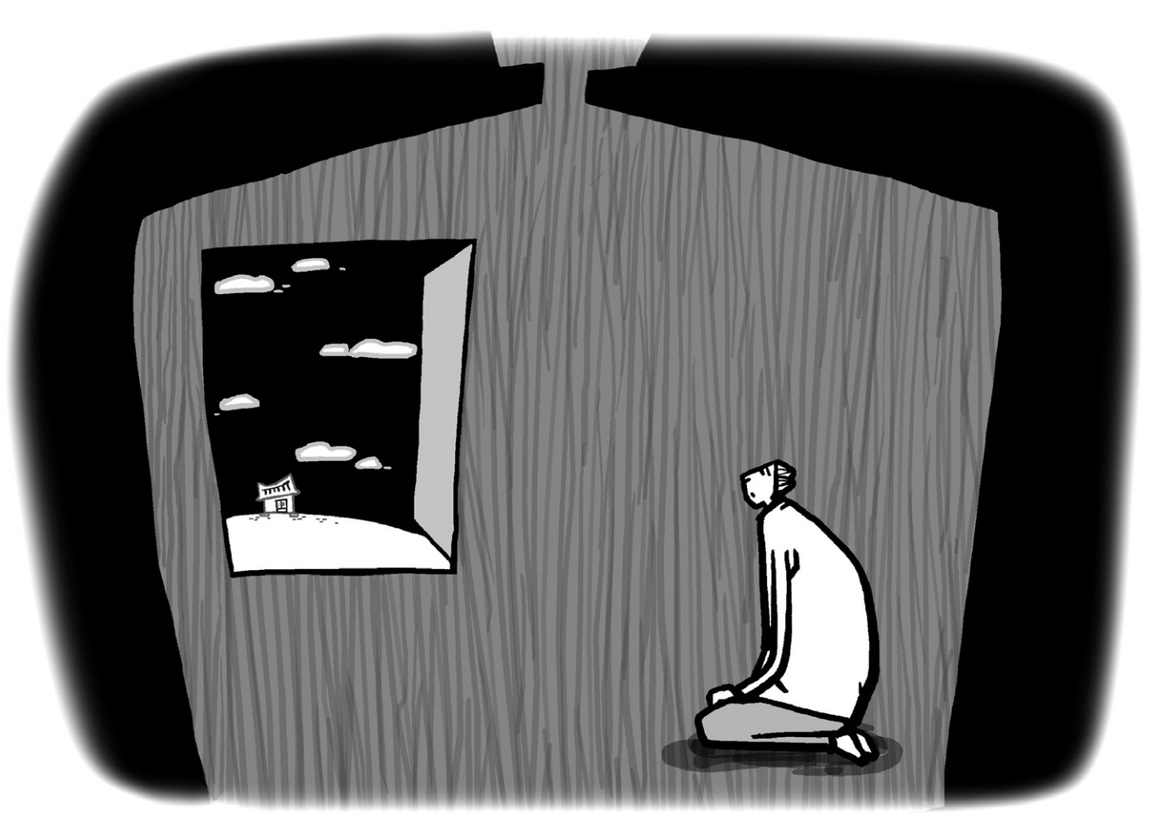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때로는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날더러 "스님께서는 왜 용(用)만 가르칩니까?" 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이라는 것은 용이라는 이름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발전을 하든 발전을 안 하든 우주와 더불어 같이 우리 세상이 그대로 시공을 초월해서 그대로 움죽거리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움죽거리고 하는 자체가 바로 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움죽거리고 살고 있는 그것 빼놓고 뭐가 있습니까? 그러하니 내 마음으로써 다스리고 해나가는 그런 것이 모두가 발전이요, 보고 듣고 발전을 시키는 것도 발전이요, 모두가 용이 아니라면 발전이 없습니다. 목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배우느냐 하면은, 이 움죽거림이 없이 움죽거린다 하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 이런 게 있죠, 고정됨이 없다는 거. '색(色)이 공(空)이고 공이 색인데 그 가운데 움죽거림이 없다, 고정됨이 없어서.' 이랬죠. 여러분은 지금 한시도, 일분 일초도 쉬지 않고 움죽거립니다. 눈을 깜박거리십니다. 눈 하나 깜박거리는 것도 용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지 않다면 눈도 깜박거릴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살아있는 자체가 그대로 용입니다. 그래서 용신(龍神)은 모습이 용으로 생겨서 용신이 아니라, 우리가 움죽거리고 찰나에 바로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까닭에 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일일이 따지려고 든다면 이 공부는 천하없어도 못합니다. 모두 우주와 더불어 인간의 근본 이 생명, 생명이 없으면은 아니 되는 까닭에 생명의 근본이 있습니다, 또. 근본은 불성(佛性)이라고도 하죠. 불성의 에너지는 이 우주를 덮고도 남습니다. 이거는 혼자의 에너지가 아닙니다. 불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주와 더불어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주의 에너지와도 직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하고도 모두 가설이 돼 있는 거와 같아서…, 왜 이런 게 있죠? 내가 그 소리를 가끔 하죠. 전력 하나를 가지고 수만 개로 화(化)해서 나투면서 돌아간다. 진화되고 바뀌고 말입니다. 또는 그 불성이라는 에너지 때문에 공기력으로 수많은 것을 발전해낸다 이겁니다. 비도 눈도 바람도 모든 절차를 거기에서 다 발전을 해냅니다.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자유스럽게 발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공부를 우리가 서로 도반으로서 같이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당시에 그렇게 가르치셨죠? 어떠한 걸 따지고 이렇게 하려면, 일일이 따지다보면은 하나도 건질 게 없다. 그런데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또는 『천수경』이나, 뭐 또 다른 경들이 다 합쳐진 것이 바로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 내기 이전에 낸 것이 『금강경』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걸 일일이, 한마음에서 일일이 생활이 나오는 거를 요거는 요렇고 저거는 저렇고, 아버지 노릇 할 때는 어떻고 남편 노릇 할 때는 어떻고 형제 노릇 할 때는 어떻고, 요걸 일일이 따진다면은 이 마음법은 언제 배웁니까? 한마음에서 모두가 찰나찰나 바뀌면서 돌아가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구성돼서 부처라고 내놓은 것이 마음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마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부처인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처입니다. 헤아릴 수 없이 듣기 때문에 부처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응신(應身)이 돼서 나투기 때문에 부처인 것입니다. 수없이 진화되는 그 나툼이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묘한가. 여러분이 연기법(緣起法) 연기법 하지만 진짜로 실천을 해보지 못한 분들은 연기법이라는 이름만 들었지 한 번도 관여해서 실천해보지 못한다면 도무지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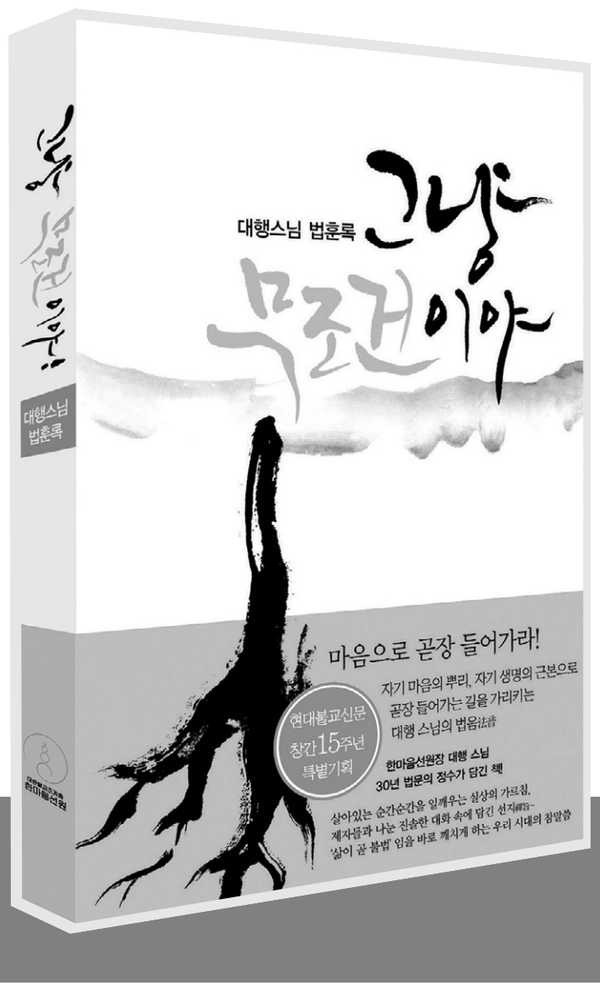
그러나 알고보면은 우리가 본래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못 믿기 때문이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즉 말하자면 콩싹이 콩씨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콩싹은 머지 않아서 싹이 없어질 텐데도 불구하고 콩씨를 무시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콩씨라는 것은 아주 영원한 것입니다. 콩씨라고 했다고 해서 또 콩씨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근본 종자를 말하는 것이니깐요. 그것을 콩씨로 비교한 건데 콩씨 하나 가지고 이 세상만사를 다, 일체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콩씨 하나가 되남더라 이런 말입니다. 어때요? 틀립니까? 심어서 먹이고, 다 먹고 나면 또 심어서 또 먹이고 영원토록 그 콩씨는 남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불성의 에너지는 영원한 것이지 늘고 줄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다 죽는다 하더라도 그 불성의 에너지는 그대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생명만, 즉 말하자면 하천세계의 모든 중생들의 생명만 생명이 아니라 이 전체가 생명입니다. 바람도 생명이요 비도 생명이요 물도 생명이요 눈도 생명이요. 이 공기력이 어디로부터 이렇게 광대하게 나오며 어디로부터 이렇게 광대하게 생명들을 살리며, 어디로부터 광대하게 이렇게 천차만별로 화해서 바꾸어지면서 찬란하게 꿈을 키우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나는 무기력하고, 나는 죄가 많고, 나는 업보가 많고, 뭐가 많고 뭐가 많아서, 나는 빌어야만 되고, 기도해야만 되고, 백팔배 해야만 되고, 삼천배 해야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막아지는 겁니다. 다 막아지죠. 자기 마음이 자기를 막아놓고 자기가 뛰려고 그러면 뛰어집니까?

우리가 이 공부는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공부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거를 알라 했습니다. 그 도리를 알라. 인간이 그런 도리를 모른다면 하(下)의 동물하고 고등 동물하고 무엇이 다를 게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이차적으로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또 어떻게 해야 발전을 시키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움죽거리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빛이 되게 할 수 있느냐.

내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네 집이 비어서 주인이 없다면, 이 마음이 부처인데 내 심안에 진짜 주처를 두지 않고 바깥으로 끄달리고 이렇게 돌아간다면 그런 사람에 한해서는 집이 빈 거라고 말입니다. 집이 빈 거와 같은데 만약에 댁이 사는 집들을 싹 비워놓아 보세요. 집 없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치우지도 않고 건사하지도 않아서 그냥 거미줄도 슬고, 뭐 벌레도 생기고 좀도 슬고 뭐, 이만저만 야단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집은 썩어서 허물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듯이 내 주처에, 내면세계에, 이것도 (가슴을 짚어 보이시며) 내면세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면세계! 여기도 발전을 하면은 무지하게 발전이 되고 집을 비워놔서 막 녹이 슬게 하고 그렇게 된다면, 뭇생명들이, 악종의 생명들이 알을 까서 수만 개로 만들어서 그 집은 없어지고, 그 집 모습을 악종의 집으로 만든단 말입니다. 거짓말로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자기를 이끌어가는 근본 종자를 믿어보세요

☞ 29면에서 계속

알지 마세요.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는 것을 내가 되놓으라고 그러는 것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된 것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있는 거다. 그건 다스리는 선장이 있는 거다. 그래서 몸속에 있는 모든 의식들을 다스리는 주인이 있어서 나의 의식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억제하고 또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모든 상황을 봐서 '이럭하면 안 되지.' 한다면 그것이 바로 다스리는 겁니다. 강력하게 다스리는 그런 주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주인이 없다면 애들만 있는 집에 애들이 친구들이라고 막 끌어들여서 집을 수라장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런 게 있죠. 두꺼비가 말입니다, 큰 구렁이한테 가서 너불너불 약을 올립니다. 약을 올리면은 안 먹으려고 애를 쓰다가, 자꾸 그냥 입을 치고 쫓아다니며 약을 올리고 그러니까 부아가 나서 나중에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덥석 물어서 삼킵니다. 그러면 자기가 구렁이라는 위치를 그냥 망각하고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뼈 마디마디마다 두꺼비로 나오니깐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한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시겠죠? 내 집 속에 세균이라든가 모든 악종의 세균이 자꾸 바깥에서 끌어들이기도 하고, 안에서 일어나게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히는 척해가지고 그쪽에다가 자기 거를 부화를 시킨단 말입니다. 이거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나쁜 거를 잡아먹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군사들한테 가서 집적거려서는 그 군사한테 먹힙니다. 예를 들어 말을 하자니깐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어서 이럽니다. 먹혀가지고 거기서 자기 알로 부화를 크게 해가지고 그게 커지면은 백혈병이니 뭐니, 병원에서도 참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형성되는 거죠. 이게 좀처럼 해서 되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서운 도립니다, 이게. 악성으로 돼 있으니까, 벌써 그게 생기려면 발끝과 손끝에서부터 생깁니다. 피를 빨아먹기 위해서, 그게 성장하기 위해서. 그것이 좋지 않다는 거는 내가 말로 하면 또 그렇게만 알아들으실까봐 말은 못하겠지만, 그게 좋을 법한 일입니까? 자기 분신을 싹 쳐 싸그리 그냥 없애버리는 망종한 일들인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극히 어려우니라.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진짜 사람 되기가 극히 어려우니라. 진짜 사람이 됐다면 부처 되기가 그렇게 또 극히 어려우니라, 이런 겁니다.

우리는 '시대가 이렇게 지금 신세대로서 발전이 되고 그랬는데 그까짓 게 다 뭐야.' 하면은 자기가, 자기 몸뚱이가 자기 근본 종자를 무시하는 것밖에는 안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콩싹이 콩씨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내가 나의 고깃덩어리를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부처님의 형상을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이름을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허공을 믿으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이끌어가는 자부처 불성(佛性)을, 진짜 종자를 믿으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믿다 보면은 이 부처님의 형상이 달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움죽거리고 보고 듣고 이렇게 무쌍하게 발전하는 거기에 있고 여러분이 그 역할을, '앉아서도 천리 만리를 다 뛰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부터, 내 종자부터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자를 심어서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자 난자를 빌려서 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종자가 있다면. 이건 밭이니까. 그래서 그 콩씨를 하나 심으려면 흙과 수분이 필요하죠. 수분 없는 흙에서는 나오지 않으니깐요. 또 수분만 있고 흙이 없어도 아니 되니깐요. 그래서 싹이 나왔는데 여러분은 과거로 돌아가서 콩 종자를 찾으려고 애를 쓰니 어디 가서 찾습니까? 콩 종자는 벌써 화(化)해서 자기 싹으로 화했는데. 그거 아십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깐 없다.' 하는 뜻이 그런 뜻에서 있는 겁니다. 콩이 콩싹으로 화해서 네가 됐으니 현재에 있는 거지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은 저보다도 더 잘 배우시고, 여러분은 저보다도 더 넉넉하시고, 또 지혜롭고 여러 가지로 볼 때에 정말이지 숭배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나는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배우질 못했으니깐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내 스승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만하면은, 아이그, 내가 그까짓 불법, 부처님 법이라면 내가 위로 꿰고 옆으로 꿰고 가로 꿰고 해도 다 알어.'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내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를 보고 느끼고, 하나를 보고 잘못된 거를 알고, 하나를 보고 잘된 거를 알고, 내가 이럭하면 안 되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럭하면 되지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대성 원리가 나로 인해서 생긴 거지 어떻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방편을 써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도 난 그렇게 배운 게 유창하지 못해서, 말하자면 지금 현실의 용어를 적당하게 둘러댈 줄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그저 이걸로 끌어대고 저걸로 끌어대고 이렇게 해서 근근히 해갑니다. 그러나 방편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진실한 문제입니다.

아까 여러분한테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바깥에서 들어오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면서, 어떻게 대치해나가면서, 어떻게 굴리면서 어떻게 발전을 해나가느냐는 얘기를 했죠? 생각하면은 아주 겁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한 번도 그런 데 대해선 생각해본 일도 없이 가는 분들도 많은 반면에, 나는 될 수 있으면 어떡하든지 이것을 알게 해서, 자기가 대치해나갈 수 있게끔 만들려고 무지 애쓰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땐 눈시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잣대를 대려고 하지 말고, 남의 마음에 잣대를 대서 둥글게 항상 자비스럽게, 몰라도 깔보지 말고 알아도 높이 보지 말고, 항상 둥글게 해나가십시오. 우리가 내 한 마음을 쓰는 대로 이 안의 의식들은 따라갑니다.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대로 따라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생각 하기가 극히 그렇게 어렵죠.

많은 분들이 그러죠. '스님, 내가 여기서 다닐 때는 그걸 몰랐는데 외국에 나와서 외롭다 보니깐 스님을 자주 찾게 되고 아,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그냥 아주 간절하게 하게 됩니다. 학교 칠판에 써놓은 걸, 말도 잘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스님을 부르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간절히 그렇게 하고 가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게 남보다 떨어지지 않고 그냥 대처해 나가겠더라.' 이러는 겁니다.

어느 때는 자기가 방을 얻어가지고 있는데 그 안집에 도둑이 들어서 자기 방에까지 왔다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가긍한 시 한 수를 책상 위에다 써놨는데 그거를 봤나보더래요. 펴진 대로 그냥 있더래요. 그 시 한 수 읊어 놓은 걸 보고는 거기다가 돈을 천 불을 놓고 갔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자기의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눈물어린 그걸 시로 그냥 읊었는데 그걸 보고 천 불을 그냥 책상 위에다 놓고 갔더랍니다. 이런 예가 있다는 것을 편지로 해서 나한테 전달하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너무 불밑에 있으면은 불빛이 어떤지 몰라도 불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 밝은 줄을 압니다.

그렇듯이 자기와 자기 콩씨가, 콩씨하고 콩싹하고 너무 가깝게 붙어있기 때문에 도대체 자기 콩씨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너무도 좋은데, 시시각각으로. 그래서 이 공부가 웬만큼 돼서 감응이 되면, 어떤 사람은 바깥에서 단전을 하고 그냥 귀로 뭐가 들리고, 그냥 머리로 나오고, 온통 야단법석이 난다는데 이렇게 관(觀)하고 들어가는 사람들한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귀로 들리거나 그런 법도 없어요. 마음으로 발전이 돼서 자꾸자꾸 스스로 알아지고 스스로 느껴지고, 스스로 봐지고 스스로 해지고 그러는 거지. 또 삼차적으로 한마디 하겠어요.

이 공부가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은 아마 생각조차도 못할 겁니다.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우주 전체, 행성이라든가 혹성이라든가 별성, 그 모든 자체가 그대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수명이 짧지만 또 우리 인생보다도 더 짧은 생명들이 많죠? 우린 그거보다도 수명이 좀 긴데, 수명이 아주 긴 별성들도 그렇고, 혹성들도 다 하나하나의 세계가 있고, 하나하나의 작용이 있고, 하나하나의 수명이 있단 얘깁니다. 우리가 우주와 직결이 돼 있다는 것은 그 에너지가 즉, 불성과 불성끼리 하나로 돌아가는 에너지가 너무 광대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부에 정말이지 마음을 기울여야 될 이치가 있는 것은, 가만히 보니깐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봐도 즉각적으로 이렇게 내 콩싹이 콩씨를 찾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어요. 없어요. 전부 기도하고, 전부 상대를 믿고 기도하고 모두 달라는 거지, 직접 자기 콩싹이 콩씨를 근중하게 생각하고 내면세계를 발전시키고, 내면세계에서 발전해서 그 중심에서 중용으로써 가차없이 대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하는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생각할 땐 여러분이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공부라는 건 이름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대가 알아듣게끔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는 거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태양이라든가 그 옆에 수성이라든가 금성이라든가, 이 우주라든가 또는 은하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결부돼 있거든요. 결부돼 있는데, 만약에 어느 것이 수명이 다 돼서 타버린다든가 팽창된다든가 이런다면은 우리 이 지구에 붙어서 사는 생명체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두가 같이 전멸하게 되는 이치가 또 있다 이 소립니다. 또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가 다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뿐만 아니라 불성의 세계 모든 데서 자동적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면서 이게 벌어졌다 오므라졌다 작용하는 그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이 지구도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지구에서, 아니 한국이라고 합시다. 일본도 그렇고 영국이나 뭐 다 있지마는, 우리 한국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하면은 조그마한 일이라면 모르겠지마는 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딴 데서는 물에 가라앉기도 하고 물에 없어지기도 하고, 불쑥하게 솟았던 것이 가라앉기도 하고 또 가라앉았던 게 불쑥 솟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기울어지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붙을 데 또 그냥 가서 붙는 게 아니라 잘못 어긋나게 붙기도 하고, 화산이 일어나고 온통 때때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움죽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 자체도 움죽거리고 있는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잣대를 대려고 하지 마시고
남의 마음에 잣대를 재서 항상 둥글고 자비스럽게,
몰라도 깔보지 말고 알아도 높이 보지 말고
항상 둥글게 해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대로 이 안의 의식들은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생각 하기가 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위 법문은 1995년 7월 16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승단을 지켜내지 못한 죄를 참회합니다.
마이크 목걸이


A타입 ₩65,000
B타입 ₩55,000
A+B (1set) ₩100,000
택배비무료
주문전화
구 미 미륵사 (지연) 010-8631-3527
팔공산 정원사 (성봉) 016-849-8889
거제도 정토암 (진각) 010-6657-5522
☆ 마이크 굵기 직경 38㎜ 이상은 장착이 불가합니다.
입금계좌(예금주 : 미륵사)
농협 351-0251-7333-73
우체국 700914-02-063333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텍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뿌린 후 닦지 마시고 약30분후
물로 세척해주세요!
곰팡이는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호흡기질환, 알레르기, 천식 아토피를 유발합니다.


곰팡이골드
99.9% 제로
곰팡이균 +유해균 초강력 살균
욕실, 화장실, 창문틀, 실리콘, 벽지, 베란다벽, 타일줄눈, 장판밑부분, 장롱 위 부분, 탑에 낀 곰팡이나 물이끼제거등...
제품특징
• 뿌려만주면 30분후 곰팡이 소멸
• 무기계 염소를 사용하여 인체에 극히 안전함
• 인체에 유해세균 99.9% 30초이내 사멸
• 점성과 검품의 유지력 강화로 접촉시간 연장
중량 500㎖
농협 312-0029-1189-81(예금주 : 고태용)
영일상사
☎ 070-8262-9291 / 010-5462-3620

디자인특허등록 2010-0039035
황금위패


• 규 격
大 / 中 / 小 의 다양한 규격
• 흑단제사용위패(가정용)
위패전문기업 (주) 대 양
대표전화 : 02-966-9650
휴대전화 : 010-8238-1511
팩 스 : 02-921-9650
홈페이지 : www.dya.xo.st

에너지 절약 "불교 안에 다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 '탈핵' 주제 좌담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사건은 우리에게 방사능 공포를 일깨워 주었고 핵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불교생명윤리협회(공동대표 법응, 박광서)는 6월 5일 렘플스테이 정보센터에서 박원순 시장을 초청 '탈핵과 에너지 절약'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서울시 에너지를 절약해 원전 1기분의 에너지를 줄이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 박 시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좌담회에는 불교생명윤리협회 대표 법응 스님 · 박광서 교수, 종회의장 보선 스님,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 등이 참석해 박 시장과 질의응답을 펼쳤다.


박원순 서울시장


법응 스님


박광서 교수

위험 부담 큰 원전 증가보다
생활 속 절약 실천이 더 '중요'
불교가 환경문제 해결 '열쇠'
발우공양 등 실천덕목 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6월 5일 불교생명윤리협회가 주최한 '탈핵과 에너지절약'에서 패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질문(박광서): 원전을 줄이자는 주장은 에너지 절약 차원인가 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가?

박원순 시장: 일본의 원전사태를 보면서 핵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고 느꼈다.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데도 원전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다.

저렴한 클린에너지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한번 사고가 나면 파멸 위기에 이른다. 러시아 체르노빌 사태가 그렇지 않나? 바람이 불면 독일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이런 상황이라면 원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우리는 100년 동안 선진국을 따라가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렇게 (원전이 자꾸 세워지게)되면 다시 100년을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한국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지붕이 텅텅 비어 있지 않나?

이번에 서울 시청 청사 옥상에 4월부터 벌꿀을 키워 얼마전 40ℓ의 꿀을 수확했다. 도시의 생태계 복원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옥상을 활용할 수 있는 예로 마련된 것이다. 옥상에 태양광 설치 등을 통해 대체 에너지를 마련할 수 있다.

질문(법응):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민들의 의식과 인식은 어떻게 변해야 하나?

박원순 시장: 얼마 전 청계천에 마차를 중단시켰다. 마차가 관광 사업은 될 수 있지만 말에게 있어서는 잔인한 행위다. 이처럼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번에 환경의 날을 맞아 상도동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이 대상을 받았다. 도서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녹색연합과 함께 환경공부를 하다가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절약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시작은 늦지만 금방 달궈지는 속성이 있으니 잘 될 것이라 믿는다.

질문(법응): 사실 서민들보다는 부자나 기업들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 대책은 없나?

박원순 시장: 에너지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역은 건물과 수송 분야다. 대형 건물들이 생태적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처음부터 창문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환풍이 잘 되면 선풍기 없이도 선풍기 효과를 낼 수 있다. 10년전 런던 생태주거단지 베드제드를 다녀왔다. 효율적 에너지 활용이 너무나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도 세계 최고의 기술로 이런 단지를 조성해 외국 사람들이 관광 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과 걷기를 활성화해야한다. 웬만한 유럽 국가도 자전거 사용이 20%를 차지한다.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되면 자전거 공방도 살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걸어 다니면 동네 상권도 산다. 하지만 여전히 도로를 뚫어달라는 요구가 많다. 이러면 대기업의 자동차 회사만 좋은 거다. 터널 하나 뚫는데 5천억 든다. 이것이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질문(법응): 시민들의 의식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박원순 시장: 에코마일리지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 지금도 이미 CO2를 줄이는 양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이런 시스템이 정착되면 마일리지를 물건 등으로 보상 받아 중소기업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질문(법응): 불교계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하나?

박원순 시장: 불교에서는 개미 한 마리 살생하지 말라고 한다. 에너지 절약은 불교의 본질에서 볼 때 가장 적합한 일 중 하나다.

텃밭 가꾸기, 전기 절약, 지렁이 퇴비 등 불자가 실천해야 할 10가지 정도의 원칙을 세워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발우공양은 음식물 안 남기기 운동에 있어 훌륭한 실천덕목이 될 수 있다. 대중들이 모여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면 크게 에너지 절약이 될 것이다.

정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社說

쇄신, 사부대중 실천만이 가능

조계종이 6월 7일 제1차 쇄신계획을 내놨다. 5월 한국불교를 뒤흔든 도박 파문과 승풍실추로 인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모든 방안들로 채워졌다.

△재정 투명화 △공명선거 실현 △승단 청정성 회복 등 세 가지로 압축되는 이번 쇄신계획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사찰예산 회계법'이다. 스님은 수행과 교화, 관리만 하고 재가자가 사찰 운영과 신행을 담당하는 합리적 운영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회계전문가 감사, 영수증 발급 의무화와 지출 예산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까지 권장키로 했다.

또한 △전문종무원 양성 △사찰재정 공개 △사찰운영위원회 기능 강화 등도 추진한다는 계획까지 포함돼 있다. 종단, 사찰운영에 있어서 사부대중이 공의를 모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선거공영제 도입, 총무원장 직선제 논의 등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향 설정은 잘됐다는 평가다.

문제는 쇄신계획의 실현이다. 6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 조계종 자성과 쇄신결사추진본부의 야단법석에서도 대중들은 실천을 강조했다. 대중들이 우려하고 불신하는 점도 기존 기득권의 저항과 반발이었다.

쇄신 관계법안들의 입법에 있어서도 중앙종회의 협조가 관건이다.

이제는 이해관계가 아닌 공심을 가진 종도로서 전 사부대중이 쇄신을 위한 실천에 동참해야 한다. 앞으로 걸어갈 길은 모든 종도가 함께 걸어가야 길이다. 그것이 실추된 승풍과 한국불교 위상을 되살리는 일이고, 불조(佛祖)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방편이다.

사랑의교회 건축 즉각 중단하라

특혜의혹을 받아온 사랑의교회가 최근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 공공용지 불법 점용 등의 문제로 교회 신축공사 중단 위기에 놓였다.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도로 지하를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적법 절차에 따라 허가했다면서 강력 반발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주민감사 결과 불법적인 행정조치에 따른 위법이 드러났음에도 서초구는 공사 강행 의지를 밝혀 지자체의 행정편향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서초구가 서울시에 맞서는 이유는 교회 도로점용신청 허가 당시 국토해양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서울시장 등에 의뢰한 결과 "서초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6월 1일 '주민감사 청구사항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공공도로 지하를 특정 교회가 점유할 수 있게 허용해 준 행위는 명백한 특혜라고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 주민 감사 청구를 주도한 황일근 서초구 의원은 4일 "교회가 당초 지하실 목적으로 도로점용을 신청 했지만, 실질 설계상으로 보면 거기에 예배당이 포함돼 있었다"고 불법 설계변경을 폭로하며 공사 중지를 주장했다.

결국 사랑의교회 신축 논란은 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지만 서초구는 특혜 시비와 자칫 종교 편향 시비로 치달을 수 있는 사랑의교회 공사를 당장 중지 시켜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시설은 모든 국민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공익 시설이나 공용 시설이 아니므로 구청장 재량행위 이전에 법령을 위반한 처분"이라는 서울시의 결론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의 말처럼 종교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다분히 많은 것도 또 다른 이유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 "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효도선물 **통증을 시원하게 날린다!**

글로코에이
팔꿈치통증 · 관절통증 · 허리통증 · 어깨 · 목통증



세상에 이럴 수가 통증이 싹

신기술 신물질로 만든 글로코에이크림이 항상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이 되고 있다. 금강닥터사에서 시판되고 있는 글로코에이크림은 팔꿈치 통증, 무릎 관절통증, 허리통증, 어깨와 목의 통증 등에 바르기만 하면 통증이 사라진다.

강원도 정선에 계시는 토굴 스님은 5년 전부터 무릎 관절통증으로 걷기도 힘든 가운데 팔은 괜찮아 손으로 하는 일을 많이 해 팔꿈치 L보까지 통증이 와서 물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파스도 부치고 바르는 소염 크림도 발라보고 몇 년간을 노력했으나 새벽만 되면 극심한 통증은 더욱 심해 이것이 나의 고행이라 생각하고 있던 중 50대 후반정도 되는 등산객이 비상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닌다는 클로코에이크림을 발라주겠다하여 나도 바르는 약이 있다 했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하여 무릎과 팔꿈치에 바른 후 30분 정도 지난다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움직이기만 하면 통증이 오던 것이 사라진 것이다.

등산객은 스님 저도 골프를 너무 좋아해 무리한 운동을 하다 팔꿈치 L보를 다쳐 고생고생하다 이 크림을 만나 지금은 괜찮지만 골프를 못하고 등산으로 취미를 바꿨다는 것이다. 그 후 스님은 전화번호를 알아 2set를 구입했다고 한다. 사찰에서 스님 비상용으로 구입해놓으면 요긴하게 쓸 수 있다. 120㎖×2개. 1set **가격 30,000원** (스님 특별할인 가격)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金剛닥터사 / 전화 02)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아픈이 이제 끝! 美國산 신비의 치약
지금 치아 때문에 고생하세요?

풍치 아픈이 치염 입냄새 등 7일이면 깨끗



7일만 닦으시면 평생 고생 안하십니다.

스님!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그러면 치아로 인한고통은 없으실거예요.

사람들은 이가 아플 때마다 확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으나 이 하나 뽑을 때마다 수명이 3년씩 단축된다고 하는 미국 구강학회의 연구가 있듯이 연세가 들수록 이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 치약은 그동안 오랜 임상 연구 끝에 2006년 4월 28일 미합중국 발명대회 特許 大賞을 수상하였다.

브라이트 치약은 어떠한 치아질환에도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처음 7일간은 아침 · 저녁으로 그 다음부터는 저녁에만 사용하면 구강내의 아픈 증세가 사라지고 계속 사용하면 치아가 튼튼해지는 것을 자각증상으로 느낀다. 이 치약은 사용할수록 윤택을 내며 하얀이로 美白효과까지 있는것으로 사용해본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가격 : 50,000원**
金剛 닥터사 / 전화 : 02) 2271-1441
농협 015-01-415953 최성욱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피를 맑게, 아침을 생기있게…"참옻 덕 봤죠"

옻은 만성설사 · 변비 · 소화불량 · 위무력증 · 위하수증세 · 위염 · 위궤양 · 위암 · 수족냉증 · 자궁근종 · 생리불순 · 당뇨병 · 관절염 · 신경통 · 만성피로 해소와 정력 강화, 어혈제거, 혈액순환 등의 효과가 있다. 최근 연구결과를 보면 옻의 산 성분이 강한 항암 · 항산화 및 항균활성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됐고, 아토피와 당뇨에도 좋다고 조사됐다. 다슬기는 칼륨 · 나트륨 · 아연 · 망간 등 성분이 들어 있어 간에 좋은 작용을 한다. 조상들은 예부터 시름시름 기운을 못차리면 다슬기를 달여 간의 조직 원료가 되는 청색소를 공급해줘 간기능을 회복시켰다.



토종 참옻을 이용해
국내 최초로
상품화에 성공한
지용우 옻가네 대표

피로 회복 · 혈액 순환에 좋은 참옻
몸이 따뜻해지기만 해도 10년전 정력으로‥
옻가네, 식품의약안전청 승인 받아

옻추출물은 류머티즘관절염 치료뿐만 아니라 피를 맑게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희대 척추관절센터팀은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류머티즘관절염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옻의 효능을 SCI급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다. 경희대 한방병원은 "한방치료는 순환기능을 개선해 어혈을 제거한다"며 "어혈과 염증을 풀어주며 피를 맑게 하는 옻나무 추출물을 이용해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여성에게 많은 류머티즘관절염도 옻을 이용하면 어혈 제거를 통해서 염증이 자연스레 소멸된다.

· 참옻다슬기진액

옻가네에서는 옻이 오르는 것을 극복하여 옻오름 염려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참옻제품을 선보였다. 국내에서 옻오르는 성분을 제거하고 옻의 유효성분만 그대로 유지되도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옻가네가 유일하다.

몸에 좋은 참옻과 다슬기의 영양을 더한 옻가네의 '참옻다슬기진액' 은 해독작용, 간기능 회복, 피로회복, 혈액순환, 노폐물 제거 등 다양한 기능으로 피로에 지친 현대인들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 참옻발효진액

옻가네에서는 옻나무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순수 국내산 참옻만을 사용하여 '참옻 발효진액' 등을 판매하고 있다.

옻나무는 세계적으로 600여 종 존재하는데 이중 한국 · 중국 · 일본 등 아시아에서 자라는 나무들만이 약재로 사용된다. 한국의 옻나무 수액은 우루시올 함량이 60%로 다른 나라에서 자라는 옻나무에 비해 함량이 10%정도 많고 약효도 뛰어나다. 특히 강원도에서 나는 옻이 유명하다.

· 홍삼참옻 위간보

옻의 효능을 업그레이드한 제품이 바로 옻가네의 홍삼참옻 위간보다. 위간보는 만성적인 속병을 다스리는데 효험이 뛰어난 참옻진액에 발기부전 치료 효과가 있는 마카 성분과 유황오리를 함께 달여낸 고농축액으로 휴대용으로 간편한 파우치 포장제품으로 만들었다.

위간보의 주성분 옻은 만성 속병(만성설사 · 변비 · 소화불량 · 위염 · 위궤양 · 위암) · 수족냉증 · 부인병(자궁근종 · 생리통 · 냉증) · 당뇨병 · 관절염 · 신경통 · 만성피로에 좋고 정력강화와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속이 아프거나 숙취가 심한 경우. 멍이 잘 들고 뼈속이 시리다고 느끼는 경우. 입냄새, 생리불순, 생리통이 심한 사람. 소변량이 적고 잔뇨감이 있는 사람이 먹으면 더욱 좋다.

옻 산성분이 항암 · 항산화 · 항균활성이 있다는 최근 연구결과도 있다. 옻나무의 수피 및 목질부에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 및 전이를 억제하고 정상 세포로의 분화를 유도한다. 아토피 치료, 당뇨수치를 낮추는데도 효과가 좋다.

또 옻은 노폐물, 나쁜 피를 삭히는 살균작용으로 혈액 · 체액 순환을 돕고, 몸 안팎의 상처 · 염증이나 장부 · 혈관의 만성 질병을 낫게 한다. 여성 갱년기 증상 자궁건강에 좋고, 어혈을 풀고 강장효과가 있어 임산부들의 산후 관절시림 증상을 치료하는데도 많은 효과를 보았다.

· 몸을 따뜻하게 하는 토종참옻

우리 몸에 이로운 획기적인 식품이자 의약품 원료인 토종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데는 최고이다. 내용인 즉 우리 몸의 정상체온이 36.5℃이나 에어컨 및 냉방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 차가운 맥주, 냉음료 등을 많이 먹는 현대인들은 대부분 저체온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체온이 1℃ 상승하면 면역력이 5~6배 상승하며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자라기 최적의 조건이 35.5℃라 한다.

우리몸 장기 중에서 유일하게 암에 걸리지 않는 심장은 39℃이다.

특히 ㅇㅇ그라 같은 정력제는 뇌에서 성호르몬 분비가 촉진되면서 흥분하면 해면체에 혈액을 24배까지 증가시키는 원리인데 천연식물인 옻이 혈액을 8~12배까지 증가시킨다. 남자가 몸이 차가우면 정력이 약해지고, 여성일 경우에는 냉, 대하 생리통이 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남자가 참옻을 먹고 몸을 따뜻해지기만 해도 10년전 정력을 되찾으며, 여성은 몸이 따뜻해지면서 임신하기 좋은 체질이 되며 생리량도 늘어나고 그날을 쉽게 보내게 된다.

1991年 동아일보 발췌



참옻, 넘치는 정력으로 비첩을 134명이나 거느려…
무월경이나 복강내 종양성질환에 특효



수양제(隨煬帝)는 비첩을 1백 24명이나 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태미나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방을 공모했다. 이 때 공모한 것중에서 엄선한 처방의 하나로 益多散이란 게 있다. 지금까지도 絕倫의 명약으로 꼽히는 이 처방에는 다음과 같은 숨은 얘기가 있다.

齊迂는 나이 80에 정력이 쇄해져서 한 비방을 얻어 약을 조제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다. 한데 그집 머슴 益多는 75세로 허리가 굽고 백발에 다리는 힘이 없어 겨우 어린애 걷듯 하는 자였는데 화부의 아내는 이를 불쌍히 여겨 이 약을 익다에게 주었다. 그랬더니 복용 20일만에 30대 남자처럼 되더니 이 집 하녀 番息과 謹善을 처로 삼아 아들과 딸 넷을 낳았다. 화부의 아내도 익다와 관계하여 두 자식을 낳았는데 아내는 익다에게 질투가 치밀어 그만 익다를 죽여 버렸다. 그리고는 그의 정강이뼈를 꺾어 버렸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속에 누런 骨髓가 가득차 있는게 아닌가! 이 처방이 바로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益多散에는 乾漆이 배합되어 있다. 건칠은 옻나무 줄기껍질을 칼로 상처내어 흘러나오는 진을 모아 말린 것이다. 처음에는 회색이지만 물기를 없애면 검붉은 색을 띠는데 이 덩어리에는 벌집 모양의 작은 구멍이 있고 윤이 나며 쉽게 부서진다. 生漆은 독이 있으므로 밀폐된 가마안에서 가열하여 탄화시켜 약용한다. 그래야 독성도 줄고 위장 손상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항간에 회자하고 있는 옻닭은 어떠한가. 옻닭이 냉증, 월경불순, 酒毒해소 및 강정제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일까. 임상경험에 의하면 사실이다. 그러나 益多散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무월경이나 복강내 종양성질환에 특효하다.

그럼 옻닭을 어떻게 만들면 될까. 건칠과 닭을 함께 삶거나 혹은 닭내장을 제거한 배속에 새끼 손가락 길이만하게 자른 옻나무 껍질을 1백g정도 넣고 푹 고아서 탕으로 만든다. 그러나 옻에 있는 우루시올이라는 화학물질에 예민한 경우, 전신에 심한 알레르기 피부염이 생기게 되고 때로는 위험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알레르기 체질자는 금하는게 좋으며, 生漆을 피하고, 옻닭 湯속에 쌀을 넣고 죽을 쒀서 계란흰자를 풀어 먹으면 옻을 탈 염려가 적어진다.



무더위로 지친 여름이면
즐겨 찾는 전통보양식품 **옻닭**

옻가네 참옻진액은 국내 연구진이 3년동안 연구 개발하여 식약청에서 안전성검사를 통해 인정받은 제품으로 누구나 옻오름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옻닭 요리입니다.

든든한 보양식 옻닭, 안심하고 드세요!

재 료

토종닭 한 마리 또는 오리, 발효참옻진액, 소금, 부추, 찹쌀

만드는 방법

1.토종닭(또는 오리) 한 마리에 참옻진액 300ml~500ml에 물을 500ml~1000ml 붓고 천일염을 1/2TS 넣고 압력솥에 17~20분간 끓인다.
2.고기가 다 익으면 전골냄비에 옮겨서 부추를 넣고 약한불에서 끓으면서 드시면 좋다.
3.남은 국물에 불린 찹쌀을 넣어서 끓이면 옻죽이 된다.
닭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사라지고 고기가 쫄깃쫄깃하며 구수한 맛이 일품이다.

소비자들이 옻가네 참옻제품을 신뢰하는 이유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대상
2011년 10월 13일

옻이 안타는 토종참옻 개발로
최고의 영예 대통령포장 수상했습니다

2011년 10월13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에서 최고 대상(산업포장)은 농업법인옻가네 지용우 대표가 영예를 받았습니다. 옻가네는 옻안타는 참옻을 국내최초로 상품화 하였으며 발효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국민 건강은 물론 농촌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공로로 영예의 대상인 산업포장을 수상하였습니다.

옻가네 토종참옻, 15년 역사 이래 꾸준히 국민의 사랑과 신뢰로 최고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신지식인 대상 수상 / 사단법인 한국대학발명협회 하이브리드기업 확인서 / 2010 대한민국식품대전 최우수상 수상 · 식약청장상 수상



2010 서울국제발명전시회 금상 · 은상 수상 / ISO 9001 인증서 /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 FDA 인증서

국내에서는 식약청 (KFDA)에서 안전성을 인증받았으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안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 미국식품안전청 FCS/SO 제조업체등록, 품목허용등록 / 특허청

- **KBS 아침마당** 냉증, 가볍게 보지 마라 김달래 경희대 한의과 교수 2011.7.14
- **MBC PD수첩** ○기적의 암○○제인가? 2011.6.7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내몸을 바꾸는 건강법- 체온건강법 2011.1.7
- **MBC 이재용 홍은희의 기분 좋은 날** 2010.11.17
- **KBS 6시 내고향** 2010.2.16
- **SBS 출발 모닝와이드** 2009.10.27
- **KBS 동의보감, 그 의학적 진실은?** 2009.8.6
-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2006.6.19 2)"옻으로 건강을 다스린다" 2007.4.20
- **KBS 환경 스페셜** 약이 되는 독 2006.11.22
- **KBS 무한지대 큐** 돈이 되고 약이 되는 팔방미인 옻나무 2006.10.31
- **KBS 상상 일요일** 계절의 보석 2006.8.20
- **중앙일보** 다양한 옻의 개선 효과 2010.9.9
- **동아일보** 옻은 어혈제거, 만성간염, 간기능 개선 2008.10.27
- **한국경제** (적지만 강한기업) 10년 묵은 체증 녹이는 참옻

폐경 10년만에 생리가 다시 시작 박○○ 1949년생 1월생 61세

저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살고있는 61세 여성 입니다. 2010년 5월 경인에 지인으로부터 옻가네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참옻진액 제품을 60통을 구입하여 복용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소화기능이 약해서 잘 체하고 고기나 밀가루음식과 찬음식도 잘먹지 못하고 손,발과 어깨도 차가워 변비가 심했고 신경이 예민해서 깊은잠을 이루지 못하여 신경외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약 10년동안 약을먹고 잠을 잤은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3일정도 복용 했을때 아랫배가 빵빵해 지더니 그이튿날 아침에 숙변이 검정색에 덩어양이 나오더니 속이 후련한 정도로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되고 속이 아주 편안해지고 일주일정도 복용하고 나니까 뱃속에 항상 체했던 증상이 서서히 아프던 통증이 줄어지고 20일정도 복용 했을때 폐경된지 10년만에 생리를, 5년동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60통을 다먹고 나니까 10년동안 꾸던 수면제도 먹지 않고 깊은잠을 잘수있고 이제는 고기나 밀가루 음식을 아무데로 가리지 않고 먹을수 있고 소화도 잘되고 변도 매일 잘볼수 있고 체중도 확 줄어서 몸이 아주 가벼워 진것 같습니다. 또다시 60통을 구입해서 복용하고 있는중입니다. 이와 같은 제품을 만나게되어 모든 건강이 다 좋아져서 정말 진심으로 옻가네 사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전신에 어혈이 돌아 무척 고생했었으나 김○○ 55세/주부

저는 동네이장님에서 어혈이 잘 풀린다는 옻제데 참옻진액을 소개받아 2010년 8월 7일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 7년전 대형교통사고와 4년전, 1년전 심하게 넘어져 왼쪽 옆구리 갈비뼈와 엉치에 금 타박상을 입어 전신에 어혈이 돌아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옻제데 참옻제품을 먹으면서 운동이 서서히게 잘이 돌고 시지가 쑤시고 저리고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통주사까지 맞았지만 효과가 없었는데 꾸준히 한달을 복용한 결과 거짓말처럼 나았습니다. 하지 정액이 있어 굵은 정액이 튀어 나왔고 심핏줄이 수십개 엉켜 덩었는데 10일 정도 복용하면서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필요하시면 궁금한 분들에게 직접 확인해 드릴수 있습니다.

독성만 빼고 몸에 이로운 것만 담았습니다.

참옻식품의 **원조** 미국식품의약국안전청(FDA)에서 인증받은 절대 **옻 안타는** 제품입니다.

무색소
무방부제 / 무과당
100% 국내산

고급형구입시 선착순 500분 사은품 증정



(삼계탕은 1.5리터 한병으로 8마리 이상 가능합니다)
참옻발효진액 (1.5ℓ ×12병)
168,000원



참옻진액(일반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198,000**원



참옻진액(고급형)
참옻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60,000**원



참옻다슬기진액(고급형)
참옻다슬기진액 : 2박스(80㎖×60포)
2개월분 **298,000**원

16 16th Anniversary 옻가네16주년기념

참옻, 만들레, 인진쑥이 듬뿍! **신제품 토종참옻환 옻가네 16주년 기념 파격 사은품 증정**



토종환 별도구입시 3개월분 69,800원

몸에 좋은 참옻과 민들레 거기에 인진쑥을 더해
가족의 건강을 간편하게 지킬 수 있는
토종참옻환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토종참옻환은 온가족이 간편하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토종참옻에 신진대사 활성화, 면역에 도움을 주는 민들레에 항균 작용이 뛰어나 민간요법에 다양하게 활용되는 인진쑥을 더해 만들어진 토종참옻차을 옻가네 16주년 기념 사은품으로 하루 선착순 500분에 한하여 드립니다.

옻오르지 않는 참옻의 명가
농업법인 (주)옻가네 제 2010-서울영등포-0212호

상담전화: **080-810-8100**
• 주문하시면 2~3일내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